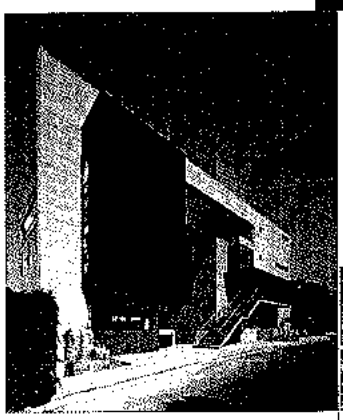
建築士

K.I.R.A | vol. 410 | 2003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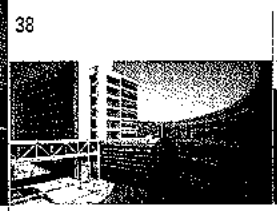
대한건축사협회 발행, 2003년 6월호, 통권410호

건 축 사

차례 2003 6 410호



THE WALL(조민석 · 석순주)



시론	손발 안 맞는 도시 · 건축 행정	이세훈	22
컬럼	건축사의 소명과 업무분장	이호진	24
건축만평		유원재	27
회원작품	THE WALL - 건축과 도시의 경계 허물기	조민석 · 석순주	28
	경기테크노파크	이영희 · 정영균	36
	교원비전센터	조남호 · 박종수 · 양원모	44
작품노트	인계2호 공원내 공중화장실	김동훈	60
연재	공간 클럽 - 01	이재훈	64
기고	우리는 이 시대의 고전을 만들고 있는가	김낙중	70
	건축일상(建築日常)	이공희	72
건축마당	건축계소식		75
	현상설계		84
	해외잡지동향		96
	세무안내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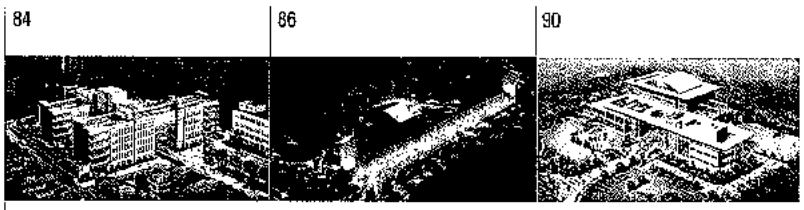
발행인: 이세훈
편집기획: 김선양(담당이사), 장양순(위원장), 김종복, 민승열, 박영순, 손기찬, 윤상기, 윤시덕, 이상림
취재 · 편집: 조한극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137-070
전화: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02)586-8823
인터넷: http: //www.kira.or.kr
E-mail: korea@kira.or.kr
인쇄인: 김중식/중앙미술인쇄공사 (02)2269-7619
광고문의: 대한건축사협회(이홍식 팀장)

■ 월간 '건축사'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 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Korean Architect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Contents Vol. 410 June 2003



Focus

Disconnected Urban-Architecture Administration — Lee Se-Hoon — 22

Column

The Given ethics of an Architect and his Scope of Work — Lee Ho-Chin — 24

Cartoon — Yoo Won-Jai — 27

Works

THE WALL — Cho Min-Suk & Suk Soon-Ju — 28

Gyeonggi Technopark — Lee Young-Hee & Jeong Young-Kyoon — 36

Kyowon Vision Center — Cho Nam-Ho, Park Jong-Soo & Yang Won-Mo — 44

Design note

Ingye Public Toilet — Kim Dong-Hun — 60

Serial

Space and Rooms — Lee Jae-Hoon — 64

Feature

Are we Making the Classics of this Period? — Kim Nark-Joong — 70

Routine of Architecture — Lee Gong-Hee — 72

Architects' Plaza

Archi-Net — 75

Competition — 84

Overseas Journal — 96

Taxation business — 102

Publisher: Lee Se-Hoon

Assistant Editor: Kim Sun-Yang, Chang Yang-Soon, Kim Jong-Book, Min Seung-Ryeol, Park Young-Soon, Son Ki-Chan, Yoon Sang-Ki, Yoon Si-Deok, Lee Sang-Lim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Printer: Kim Jung-Sik (Jungang-art Printing Co.)

손발 안 맞는 도시 · 건축 행정

Disconnected Urban-Architecture Administration

이세훈 /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공학박사
by Lee Se-Hoon

정부는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정비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은 법률을 지켜야 할 국민의 입장은 외면한 채 권위주의적 발상으로 제정 · 공포됨으로서 2003년 7월 1일이 되면 수많은 국민이 권리를 침해당하고 엄청난 재산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그 경위를 보면, 건설교통부는 2000년 7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분류하여 전국 555개 도시의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되, 정비할 때까지는 일반주거지역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규정에 의거 2003년 4월 현재까지 45만3천 동의 건축허가를 하였고, 주거용 건축물만 20만3천 동을 허가하였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건축허가는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사업 또는 공사를 착수한 자만 계속 시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토록 함으로서, 6월 30일까지 "착수"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국민은 건축허가가 무용지물이 되는 권리의 침해는 물론 재산상의 피해도 모면할 길이 없는 실정이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도시 및 건축 행정의 제도적 모순과 시행상의 오류를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고자 한다.

현실을 외면한 법령 운용의 문제

우리나라의 도시는 국토면적의 약 16%에 해당하는 작은 공간에 전국인구의 87.6%가 거주하며 생산활동을 하는 국토의 핵심공간이다. 따라서 도시계획제도를 마련하고 집행함에 있어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업무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건설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업무를 집행하고 있어 국민을 혼란시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건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2년간의 기한을 주어 건축허가를 내어주고 있는가 하면, 건설교통부는 도시관리계획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들어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금년 6월 30일까지 착수하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을 못하도록 한다면 많은 자금을 들여 허가된 건축권을 누가 보상하고 책임을 질 것인가? 차라리 건축허가를 제한하였어야 할 것이 아닌가? 신뢰를 받아야 할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멀어지는 국민정서가 우려된다.

둘째, 법령의 취지를 살리는 운용에 문제가 있다.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 세분화하는 것은 법률시행상의 경과규정이다.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법률에서도 경과규정을 두었어야 할 것이다.

같은 법률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에 "개발행위 허가제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건축법에서도 "건축허가제한 제도"가 도입되어 2~3년간 건축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용도지역변경이 예상되는 지역에 건축제한이 필요하였다면 이와 같은 제도를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하여 국민의 피해를 예방했어야 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조치 없이 국민의 피해가 얼마나 발생할지 예상도 못하면서, 홈결이 있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만 고집하고 있다.

셋째, 건축제한의 적용시점에 문제가 있다.

모든 법률이 그러하듯이 제도의 적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시점에 허가, 인가, 승인 등을 신청 중에 있는 것까지 포함하여 구제하는 것이 일반적 규정이다. 이것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같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도 경과 규정 모두가 신청 중에 있는 것까지 포함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같은 법률에서 도시관리계획의 효력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신청한 것은 물론 정부로부터 허가, 인가 받은 것까지 배제하여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것만 인정하고 있어 법 적용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넷째, 이 법률의 경과 규정과의 관계이다.

경과규정에서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건축허가 등을 신청 중에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 시행령상의 경과규정은 과도기적 특별 적용 규정이므로 2003년 6월 30일까지의 일반주거지역의 종 세분화에 따른 건축허가는 이 법률의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국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허가 신청중인 것까지 구제되어야 하며, 이러한 조치가 있어야 국민이 신뢰하는 정부가 되는 최선의 방책이다.

다섯째, 건축허가를 받는 국민은 정부를 원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도시는 태생적으로 자연발생적 도시이거나 반세기 동안 용도지역을 세분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가 형성된 것이므로 기존시가지인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하는 것은 실현성이 없는 이론중심의 탁상공론에서 나온 제도이다. 일반주거지역과 종세분화에 따른 건축 제한에 관하여 일반 국민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해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

여섯째,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여야 한다.

지금은 용도지역 세분화의 적용기한을 목전에 두고 있다. 정부는 이 법률이 최초로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국민의 권리 침해와 피해예방을 위하여 단 한번만이라도 홍보하고 계도한 적이 있는가? 지금도 정부는 도시관리계획의 효력을 주장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하고 있으며, 국민은 그 피해가 무엇인지 모르고 개인의 경제사정에 따라 금년 6월 30일 이후에 착공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제 6월 30일이 경과하면 정부를 원망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 사회적 물의가 있을 것이다.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정부의 성의있는 조치 필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가 시급히 요청된다.

첫째, 국민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허가, 승인 등을 받은 사업은 계속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의 효력발생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거나, 일반주거지역의 종 세분화에 따른 경과규정을 두어 구제하여야 한다.

둘째, 이와 같은 제도개선이 2003년 6월 30일까지 실현되기는 일정 계획상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선량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우선 방침을 정하여 조치한 후 제도개선하기를 권고한다.

셋째, 장기적으로 도시에서의 건축실태를 파악하고 토지이용관리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70여년의 도시역사를 가지고 자유로운 토지이용질서 속에서 형성된 도시를 인위적으로 도시를 재편할 수 없다. 또한 일반적 토지이용질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두고, 개별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 건축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으로 환원하고 특히 중복지정 되어 있는 용도지역분류제도는 국민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재정비되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다시 한번 정부의 성의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

건축사의 소명과 업무분장

The Given ethics of an Architect and his Scope of Work

이호진 /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by Lee Ho-Chin

건축이 무엇인가를 너희들(사회)이 아는가? 이러한 질문을 이 사회를 향해서 외쳤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응답할 수 있을지? 너무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겉으로는 아는 척 할 수 있지만 참 뜻은 모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사의 사회적 위상이나 건축사의 설계비에 대한 대우가 기대 이하로 전락되어 가서 생계에까지 위협을 받는 보잘 것 없는 직업인으로 추락되고 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타인(他人)으로부터의 인정 정도와 위상이 최악으로 전락되어 감에 따라 우리 자신의 자아 판단에도 자학의 길로 들어가 모든 자존심과 권위를 다 버리고 클라이언트(Client)와의 관계도 더 지속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들끼리도 일의 수주를 두고 마치 조그만 고기 덩이를 두고 서로 물고 뜯는 짐승과 같기도 하다.

이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은 원인해결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너와 내가 「건축을 이해」하게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며, 그 다음으로는 건축인들이 건축의 목적에 맞게 건축사의 소명을 절실히 느끼고 실천해야만 어렵고 고통스러운 우리의 위상이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건축을 가장 짧은 언어로 그 의미를 규정한다면, 건축이란 「신이 태초에 인간에게 부여한 이 땅과 환경 위에 인간에 맞게, 인간을 위한 환경을 갖게 하며, 먼 훗날까지의 지속 가능한 자연 환경을 유지하며, 보존하여 먼 후손에게 태초의 자연환경」을 이용케 하는 것이다.

어느 대지(垈地) 위에 하나의 집을 지을 때도, 그 집으로 인한 자연의 훼손과 낭비가 일어나지 않게 하며, 자연에서 하나의 패턴(pattern)으로 어울릴 수 있게 하는 것이 「건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되게끔 설계를 하는 것이 건축사이기도 하다.

자연의 아름다움, 자연 순리에 조화되는 기능성과 자연을 그대로 이용하는 지속 가능한 친 환경적 건축물을 설계하는 목적과 방법과 결과로 가능케 하게하는 소명을 건축사는 갖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건축사는 그들의 손에 의해서 설계되는 것 마다 자연을 파괴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망각하고 있음이 참으로 슬픈 일이다. 신이 인간에 주신 소명에서 「자연을 다스리고 유지하라」는 것은 특히, 건축사들에게 그 많은 부분과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건축이 이러한 엄청난 신(神)의 소명을 감당하고 이를 실천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사회가 알진데 얼마나 그 위상과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대우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우리도 건축을 너무나 피상적으로 비와 바람과 추위와 더위를 막을 수 있게 하는 갖은 물리적 조건을 고려하여 경제적이고 이익적인 수단으로 건축을 완성시켜 나가는데 급급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과 결과가 성공적으로 성취될수록 그것에 비례해서 얼마나 주변의 자연과 에너지를 낭비시켜가고 있는지 뒤돌아보며 분석,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건축인의 소명에 부합되지 않는 결과가 도출되리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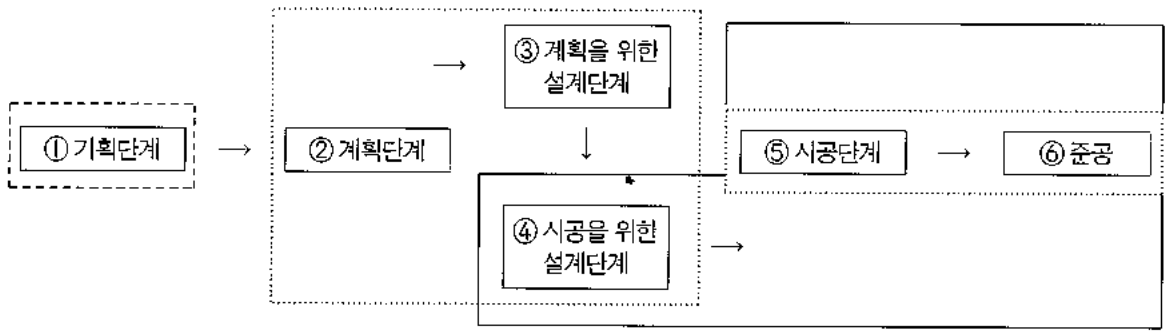
우리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 인간과 자연 섭리와 생태와 아름다움과 과학을 더 배우고, 생각하고, 실험하고, 실천하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시행하므로 우리 건축의 참다운 일과 영역과 소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과 같이 세상사람 누구도 건축인이 될 수 있는 얕은 영역과 전문성에서 벗어나 정말 깊고 고도의 지식과 실천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어 우리의 위상을 높게 올려놓을 수 있을 것이다.

건축설계는 이러한 우리의 소명을 다하기 위한 작업 과정과 결과물인 것이다. 이를 진행함에 있어 너무나 넓은 과정과 결과물에서 건축사들의 업무 한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건축사들이 작업의 확보성과 정확성과 경제성을 찾을 수 있도록 되는 것이 중요하고 본다.

위의 건축사의 원칙적인 소명을 내포한 아이디어를 성취하여야 되는 것은 물론이다.

현재의 업무한계가 건축사와 시공자 사이의 뚜렷한 선이 그어져 있지 않고 오히려 건축사의 업무가 시공자의 업무까지 넘어가 일을 진행하고 있다.



① 부분은 건축주 측에서 기획하여 그 결과를 건축사에게 분장하여 ②, ③을 실시하게 하며, 이를 시공자에게 ④, ⑤, ⑥의 책임을 지게 하는 과정이 옳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현실로 본다면 건축사의 업무가 ①, ②, ③, ④, ⑥을 책임져야만 하는 것이 현재 처하여 있는 어려움이다. 그렇다면 엄청난 작업과정과 책임이 많은 인력과 시간과 의무가 따라야 하는 막중한 업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건축사의 소명의 이행과 확실성, 정확성, 경제성, 책임성을 가능하게 하는 건축사의 업무 분장이 확실히 구획되어야 할 것이다.

즉 ②, ③에 한하여 수행될 수 있도록 모든 건축인들이 합심하여 기준과 법과 책임소재를 갖게 하는 명확한 기준과 실천이 필요하다.

여기서 ②의 업무한계는 아이디어 스케치(Idea Sketch)가 될 것이며, ③의 업무한계는 ②를 시공도를 위한 가이드라인 정도의 도면으로 설계되어짐을 의미한다.

즉, 정확한 평면, 입면(주단면도(내,외)), 실내외의 마감도, 창호 입면도, 구조 평면도, 단면도(라멘도), 전기 설비의 계통도와 평면도 등의 시공도 작성을 위한 지침을 부여하는 정도에서 그 업무를 가질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건축사의 도서의 양도 지금의 1/10 정도로 간추려질 것이다.

지금과 같이 각종 시공 상세를 다 포함시킴으로써 (④까지) 시공성과 현장성에 맞지 않는 책임과 불확실성의 시공 상세도 작성은 낭비와 불신을 초래하여 결국은 책임 소관과 건축주의 경제적 손실과 불화가 도출되어 문제를 야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작성하는 평면도와 단면도 보다는 더 확실한 치수와 마감, 아이디어 표현의 시방 등이 그 속에 자세히 명시되고, 필요하면 부분 확대 평면도를 그리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대규모의 건축물이라도 많은 도면이 필요 없을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②의 단계를 건축사의 소명에 따른 질 높은 과정을 다 할 수 있게 하는데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이다.

④의 진행과 결과를 반드시 설계자의 인증을 받는 과정을 두어 ③의 아이디어가 충분히 나타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시공사가 작성한 ④의 도면은 건축사보다 확실성과 책임성과 가능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건축사의 업무 분장은 건축사만의 고유한 전문 업무만을 가지므로 명확하고 경제성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 모든 건축사가 이행하기 위한 기준과 법을 만들어 건축사들이 모두 실시할 수 있는 장치를 해야 할 것이다.

IMF 이후 어려운 건축계의 진통과 고민과 어려움이 가시는가 했더니 그때보다 더 큰 파도가 닥쳐오고 있는 이 때에 우리의 소명과 건축사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므로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으며, 나아가서 우리의 위상과 권위와 보람과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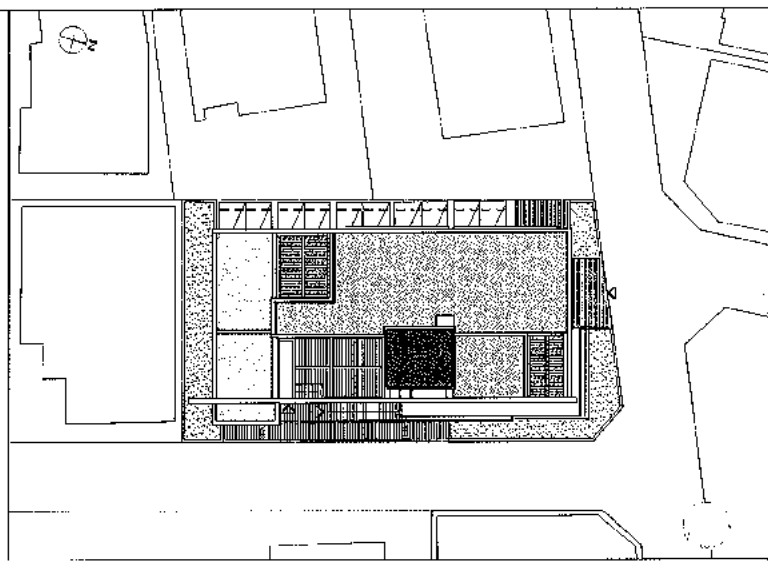
THE WALL - 건축과 도시의 경계 허물기

THE WALL

조민석 · 석순주 / 단아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Cho Min-Suk & Suk Soon-Ju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83-25외1필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주요용도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783.60㎡
건축면적	462.44㎡
연 면 적	1,576.08㎡
건 폐 율	59.01㎡
용 적 률	149.87㎡
규 모	지하1층, 지상4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베이스패널, 목재사이딩, 드라이비트
설계담당	한대희, 서영훈
건 축 주	옐로우 프로덕션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촬영 : 박재영/아키포토)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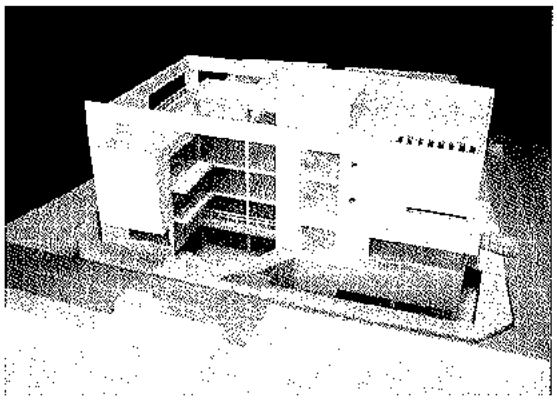
비움(VOID)에 의한 구성

" 형체가 있는 것은 이로움을 지니지만 형체를 쓸모있게 만드는 것은 무형(無形)의 것이다 " - 노자, 도덕경

비워짐은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채워짐에 의해 돋보인다.
반대로 채워짐 또한 비워짐에 의해 그 가치가 더욱 커진다.
이러한 비워짐과 채워짐의 역설적인 관계는 과밀화된 현대 도시 공간을 조율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의 전통건축을 보면 비워진 공간은 채워진 공간을 풍요롭게 하며 자연과 건물을 융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비움의 의미를 해석하고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주제이며 목표였다.

대지읽기 와 프로그램

대지에 면하여 북측과 동측에 6미터 도로가 있으며 법적 건폐율은 60%로 한정된 일반주거지역이다. 다행히도 북측에 도로가 있어 일조권사선제한 적용으로부터 어느정도 자유로울 수 있었고 건폐율이 높지 않은 관계로 여유공지를 확보하는데 걸림돌이 없었다. 건축주의 요구는 지하1층에 지상4층 규모의 건물이었고 1층은 피로티 주차장, 3층은 건축주인 옐로우프로덕션 사무실, 나머지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임대하는 프로그램이었다. 특히



2층의 일부는 카페로 임대하겠다는 건축주의 요구에 따라 도로측에서의 인지성이 좋도록 도로의 교차부분에 카페를 배치하고 별도의 옥외계단을 설치하여 도로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토록 계획하였다.

기억의 편린

도시의 경제논리에 의해 생겨난 우리들 주변의 근린생활시설은 도시의 표정을 규정짓고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대부분의 근린생활시설은 그 용도 성격상 동네의 중요한 가로에 면하여 배치되므로 가로의 모습은 근린생활시설의 디자인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우리 주변의 가로의 모습은 어떠한가? 건물은 획일적이며 답답하게 가로와는 배타적으로 서있다.

가본지가 오래돼서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홍대앞길에 면한 김기석씨의 근린생활시설 연작시리즈와 후미이코 마키의 힐사이드 테라스는 학창시절 인상적인 가르침이었다. 각각의 건물이 가지는 개성과 일관성 있는 디자인, 그리고 가로에 제공하는 보이드, 반외부공간의 성격있는 디자인으로 도시와의 경계를 부수는 섬세함까지 이러한 기억의 편린들이 근린생활시설 설계의 기본 개념을 갖게 하는데 일조한 것 같다.

전이공간으로 도시와의 경계 허물기

경계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벽만큼 강한 것이 없다. 벽은 안과 밖의 영역을 경계 짓고 벽의 달힘과 열림에 따라 장소의 성격이 규정된다. 벽은 주위와의 단절을 시도하기도 하며 여백을 만들며 주위를 흡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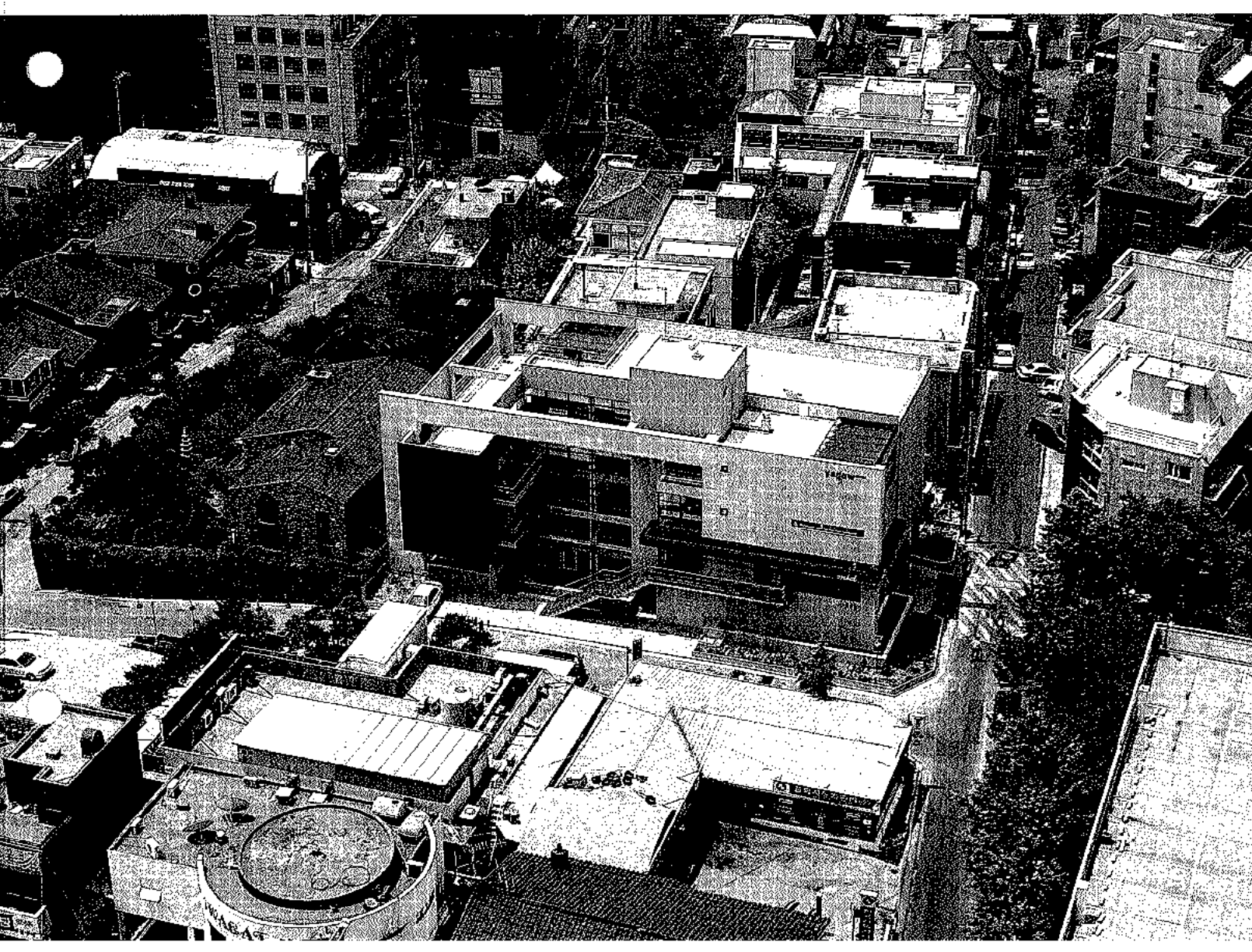
우리는 도시와의 경계를 극적으로 허물기 위하여 먼저 가로에 면하여 큰 벽을 만들었고 그 벽에 큰 개구부을 만들어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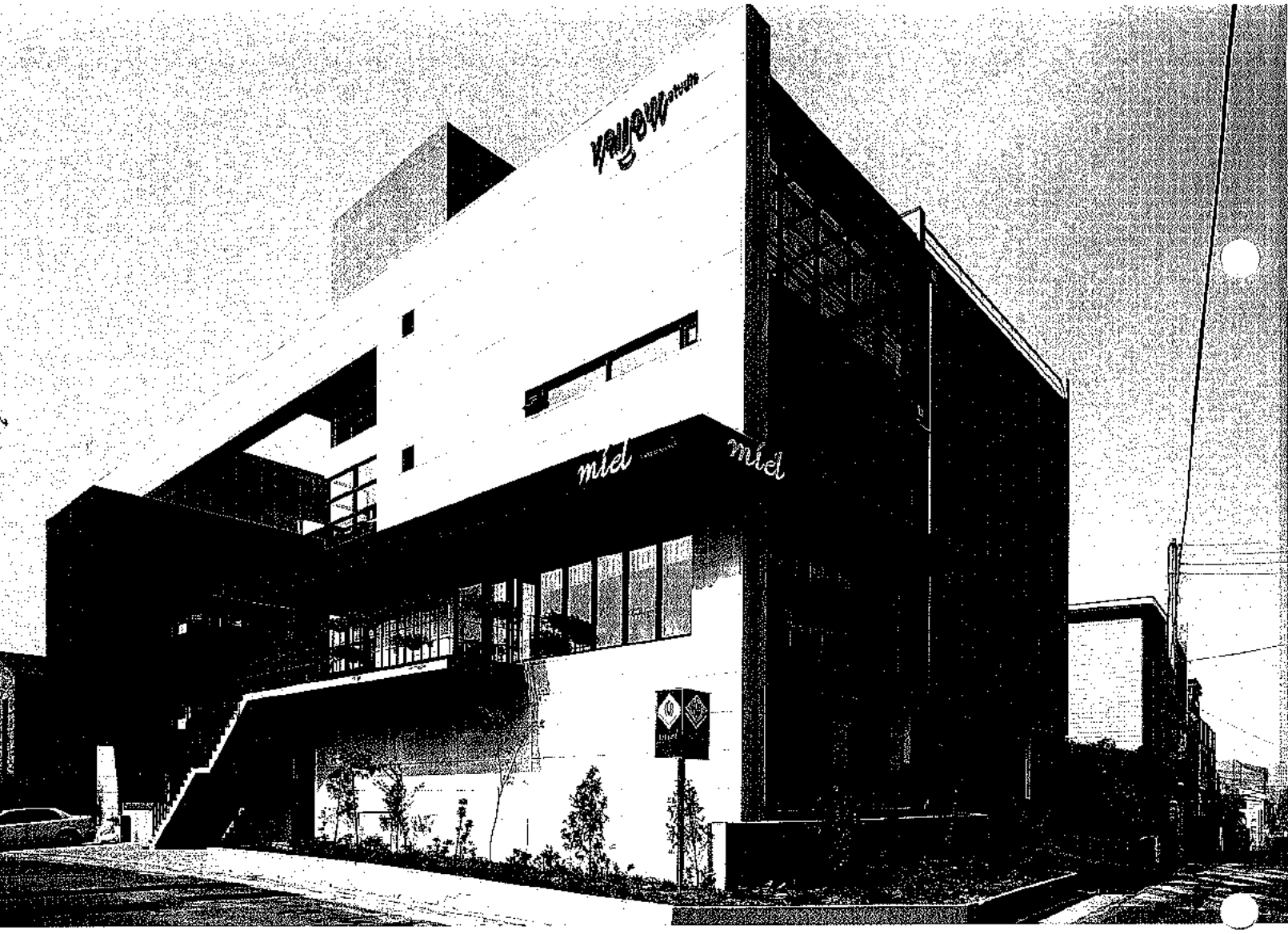
그 개구부 안의 공간은 전이공간(transition space)의 성격을 갖고 지하에서부터 전층을 관통하며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을 관계 맺게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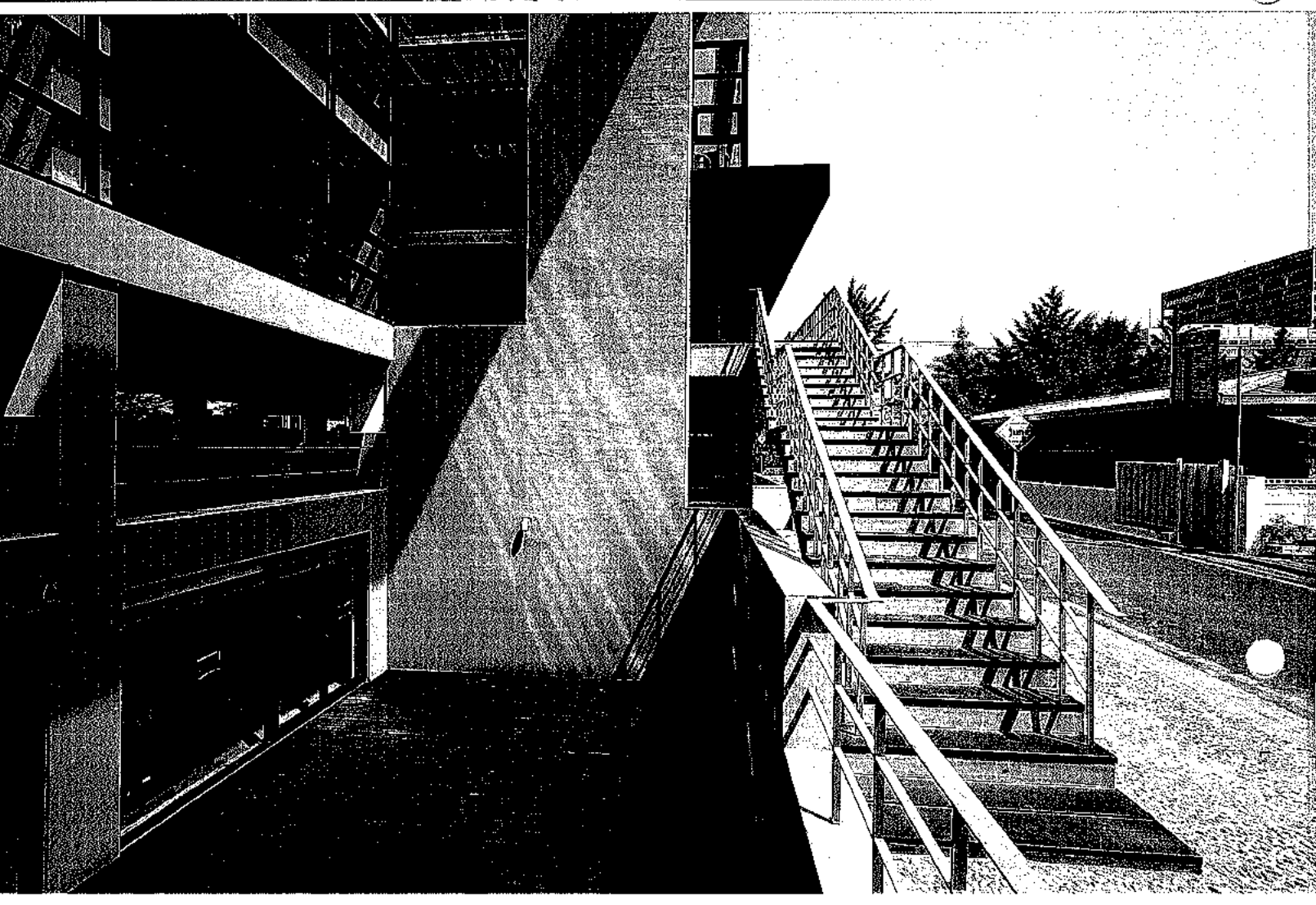
또한 전이공간(transition space)과 내부공간이 면하는 표피는 맑은 유리의 커튼월로 서로를 시각적으로 통합시켜 주며 내부공간을 외부공간으로 확장시킨다.

건축적 산책(ARCHITECTURAL PROMENADE)

건축은 영화의 플롯(PLOT)처럼 다양한 장면을 전개하며 극적인 흥미를 주어야 한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에서 도시의 일상적인 생활속




miel
mi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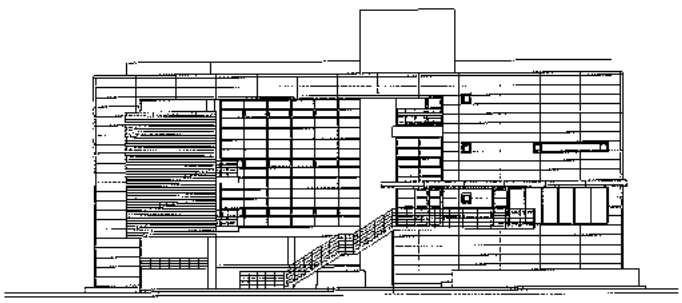
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공간을 이용자들의 움직임에 따라 다양하게 펼쳐지도록 하였다.

- 선큰가든: 가로에서 선큰가든으로 직접 다닐 수 있는 계단을 설치하여 지하공간의 활용도를 높였고 지하라는 느낌을 덜 갖도록 계획
- 피로티 주차공간 : 개방적이며 쾌적한 주차공간
- 옥외계단 : 가로에서 연장되어 건물과의 적극적인 연결, 선큰가든과 가로를 옆에 끼고 오르내리는 즐거움을 제공한다.
- 실내계단 : 중정을 바라보며 수직이동을 함으로써 흥미로움을 유발
- 발코니: 오페라 극장의 객석과 같이 무대인 선큰정원을 바라본다.
- 옥상정원 : 대지가 주변에 비해 높아 파노라마적 전경을 제공하며 다용도로 활용되는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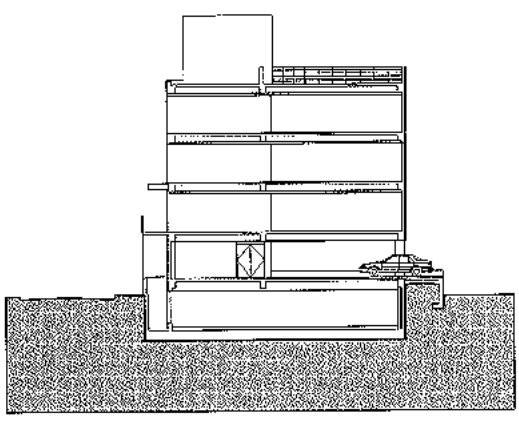
항상 아쉬움은 남는다.

처음 프리젠테이션한 계획이 원안대로 지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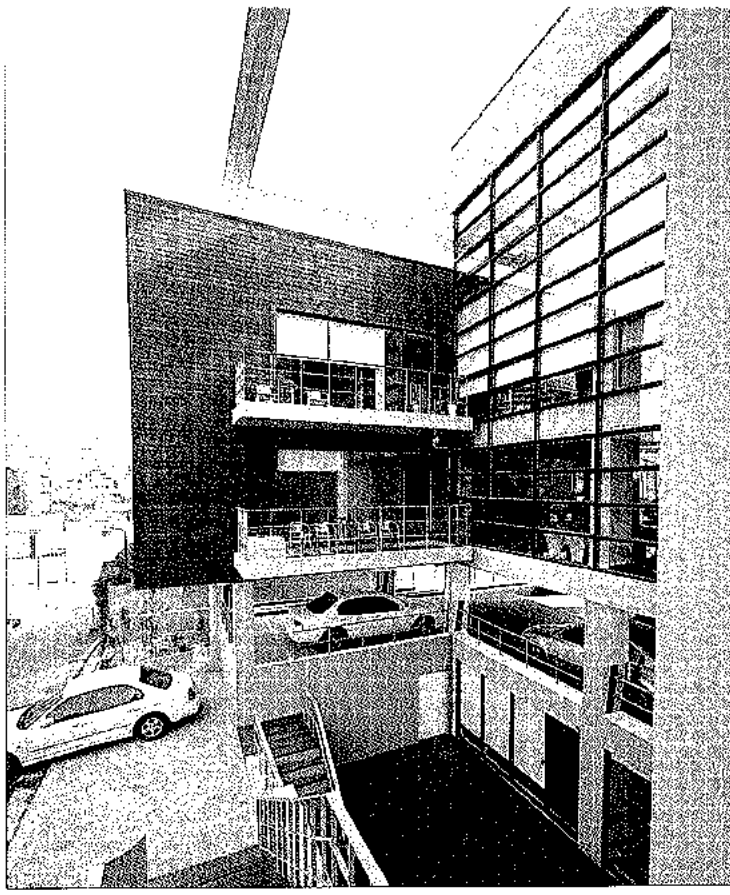
왜냐하면 건축주가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이미지가 있으며 건축주와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이므로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행이도 이번 프로젝트는 처음 프리젠테이션에서 제시한 계획안이 원안대로 수용되었다. 아마도 건축주의 생각과 우리의 제안이 일치한 듯 싶다. 이렇듯 출발은 좋았지만 시공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고 공사비가 낮게 책정된 관계로 마감이 변경되고 마무리가 미흡한 점이 많아 만족감보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하지만 평소에 생각해 오던 개념을 적용하면서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었던 점은 작은 수확이며 보람이었다.(글: 조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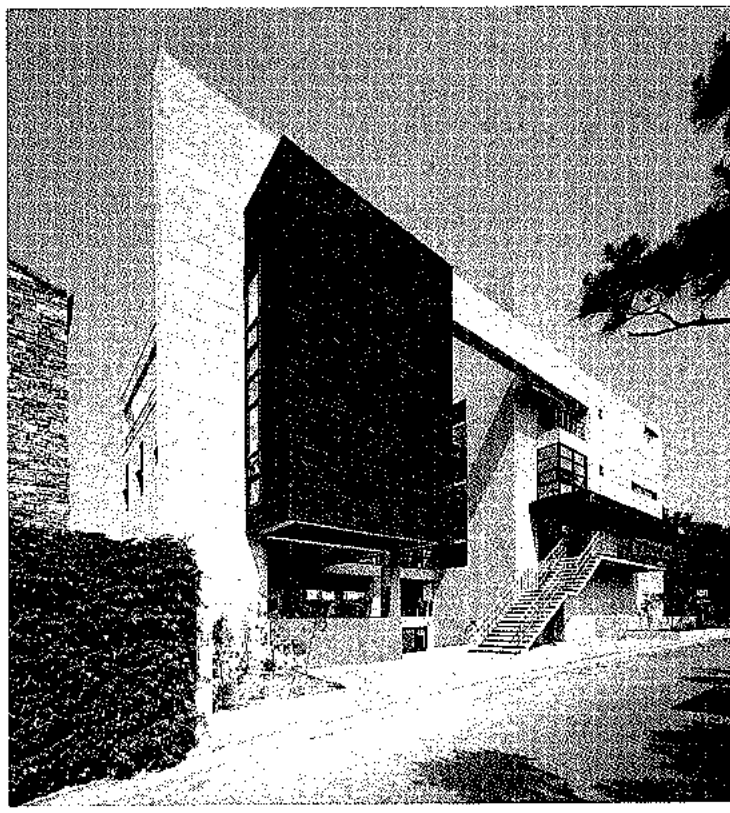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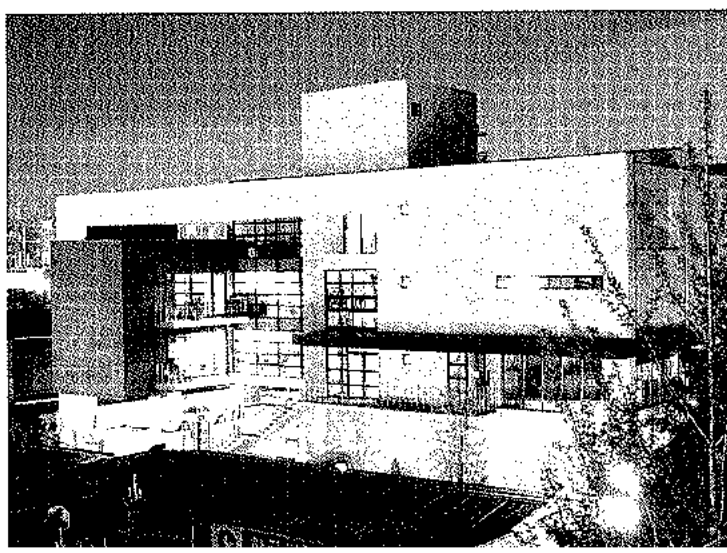
동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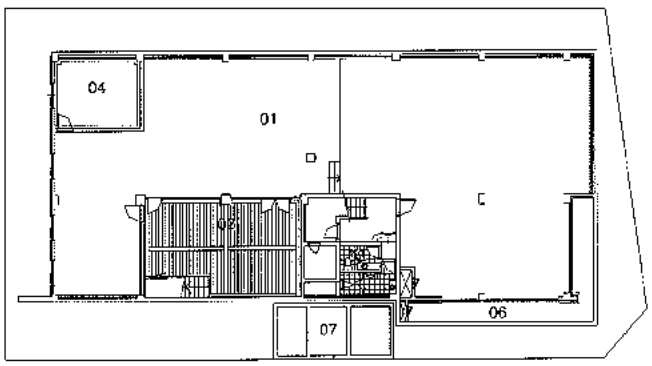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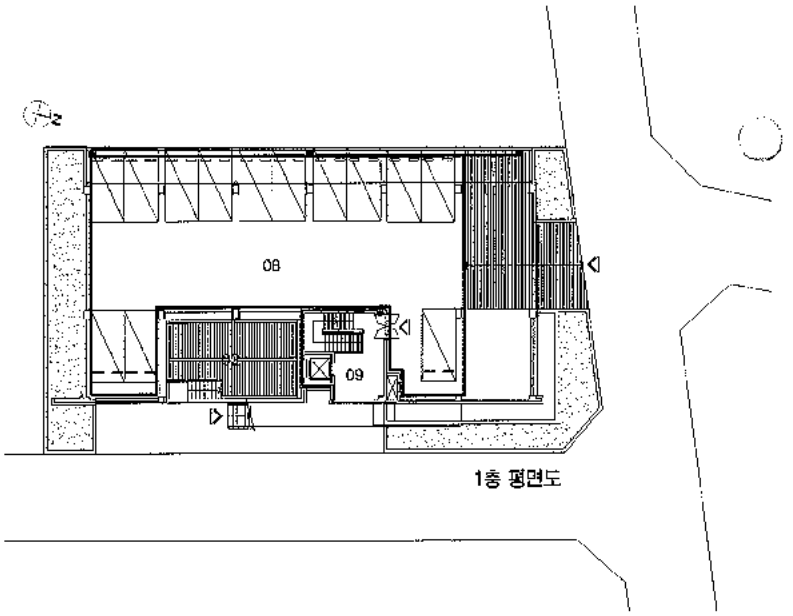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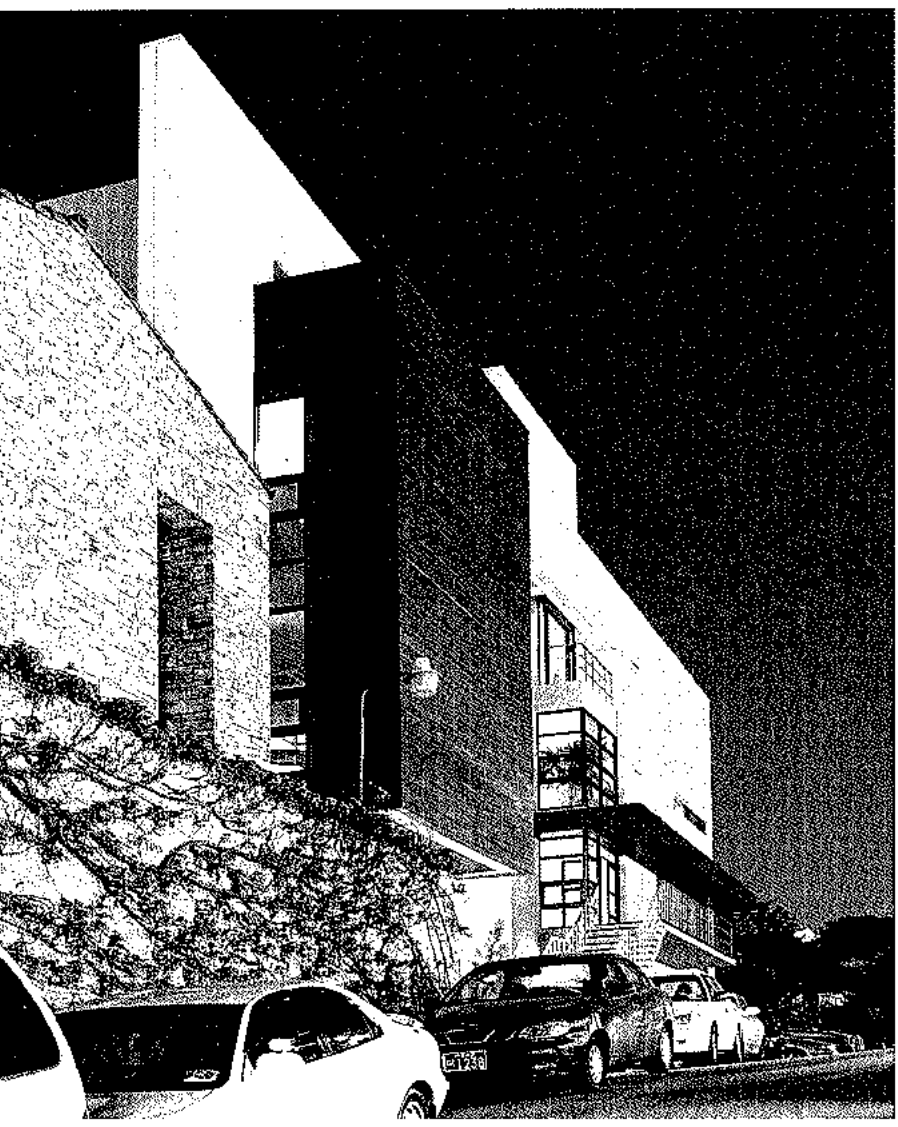
mi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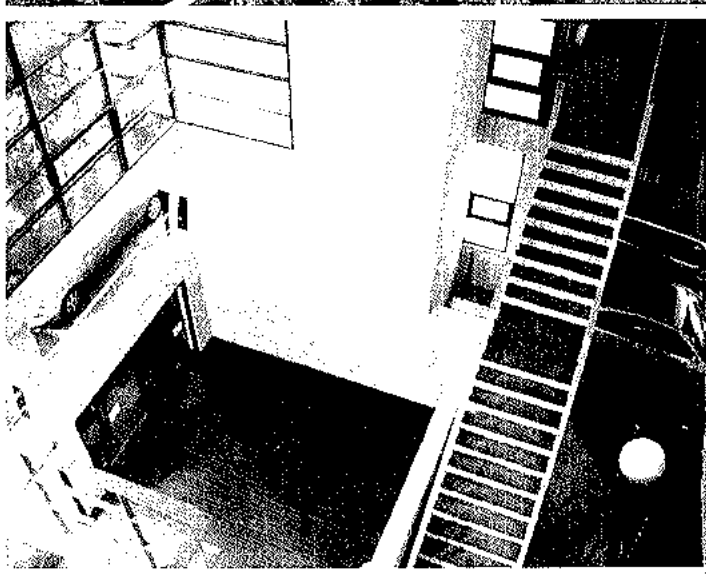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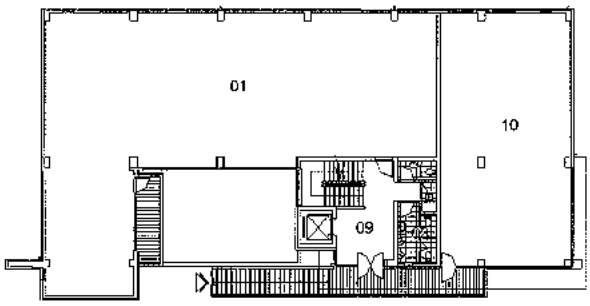
지하 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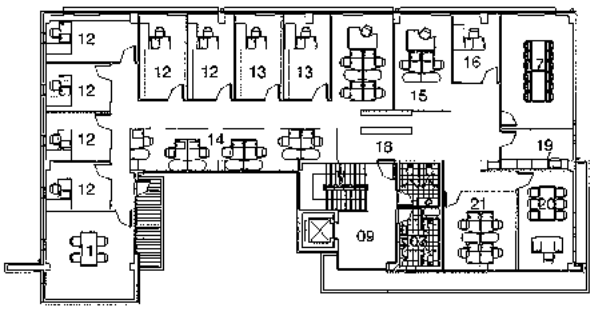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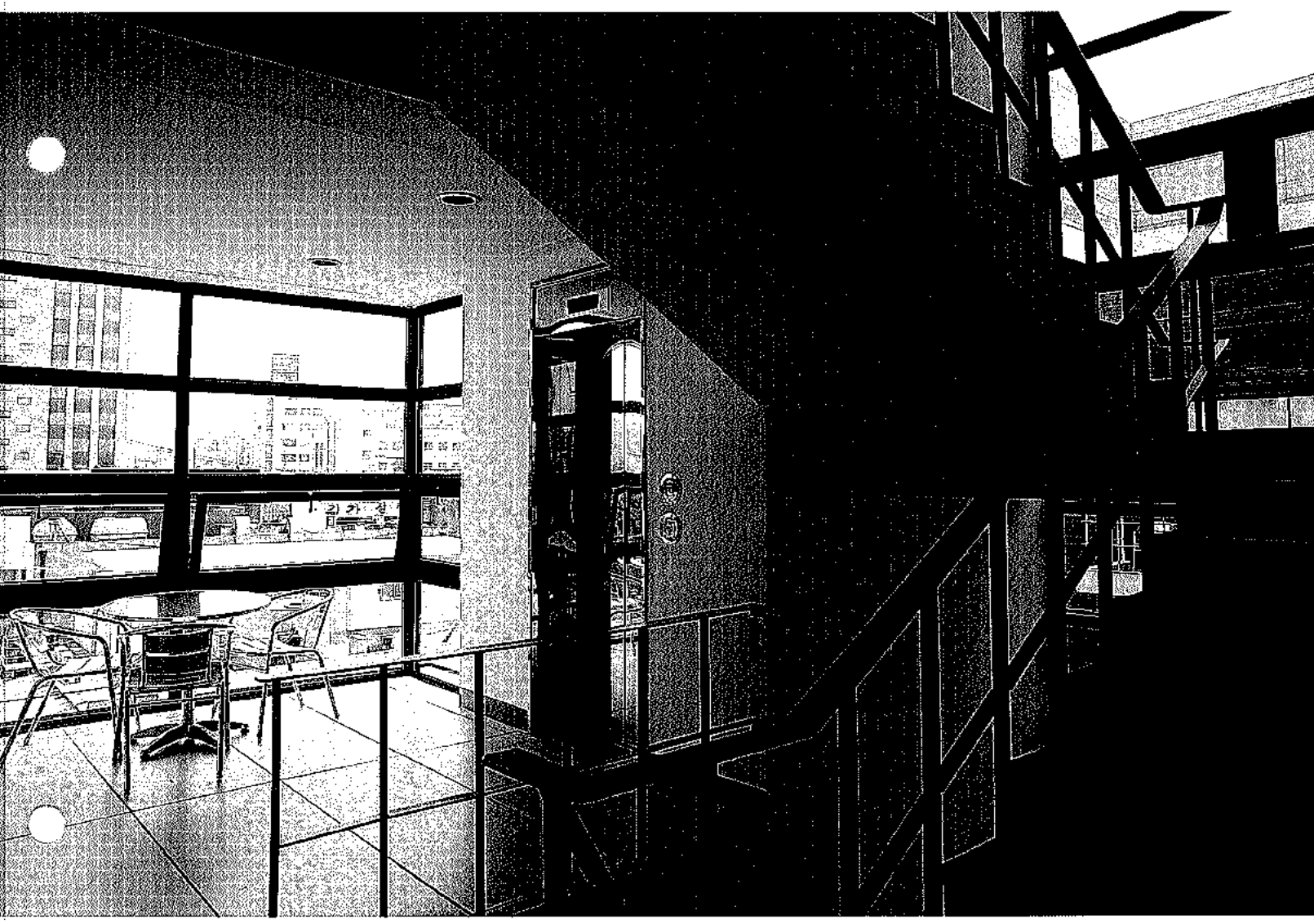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01_ 근린생활
02_ 썬큰가든
03_ 화장실
04_ 저수조
05 창고
06_ Dry Area
07_ 전화조
08_ 주차장
09_ 계단실
10_ 카페
11_ 편집, 자료실
12_ 감독실
13_ 기획프로듀서실
14_ 조연출+프로듀서
15_ 관리팀
16_ 관리이사실
17_ 회의실
18_ 인포메이션
19_ 탕비실
20_ 대표이사실
21_ 경영기획/재무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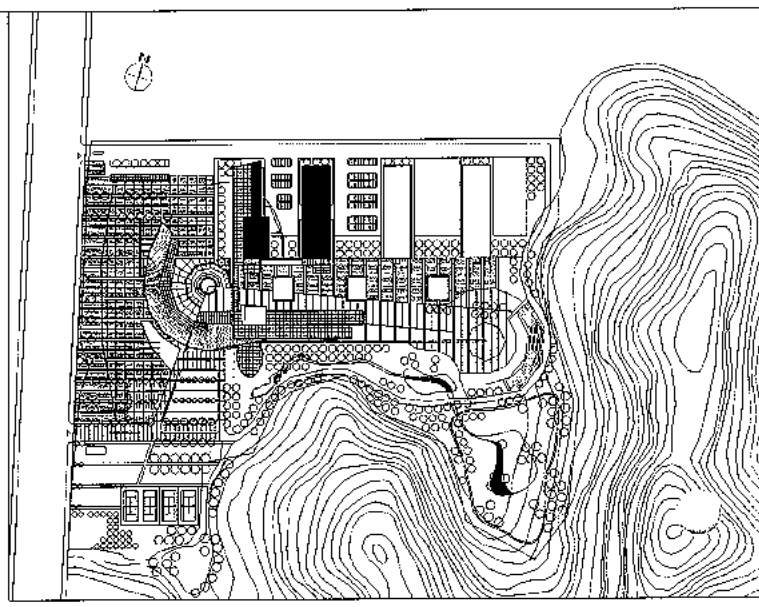


경기테크노파크
Gyeonggi Technopark

이영희 · 정영균/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Young-Hee & Jeong Young-Kyoon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안산시 사동 1271, 1271-6, 7번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	99,176㎡
도로현황	서측 - 40m 도로
연 면 적	40,660.47㎡
건축면적	8,795.15㎡
건 폐 율	8.87%(법정 : 20%)
용 적 률	41.00%(법정 : 60%)
구 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층 수	지하 1층, 지상 12층
최고높이	59.6m
외부마감	외벽 : 메탈 패널 창호 : THK24 컬러 복층유리
주 차	총 162대 (장애자 4대 포함)
조경개요	47.91%(47,520㎡)(법정 : 40%)
설 계 팀	정재호, 심재춘, 윤정두, 배혜경, 최지인, 함은광, 백봉주, 장은성
사 진	건축사사사무소 제공



배치도

계획의 배경

21세기 서해안시대를 대비하여, 인근의 반월, 시화산업단지에 입주해있는 영세하고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창업보육, 교육훈련, 기술지원, 정보교류, 산업생산의 효율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심점으로서의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한다.

기술개발투자의 미흡, 고급기술인력 확보의 어려움, 고가저빈도 기자재 미비, 산업정보 획득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계획이므로 벤처기업의 동향분석을 철저히 하여 입주기업들에 불편이 없는 단지계획이 되도록 계획한다.

연구시험 생산공간 제공, 산업기술정보지원 인프라 구축, 시제품 생산 및 시험, 분석 서비스를 통한 기술개발 기반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고도화 및 기술창업을 촉진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한다.

현장여건, 주변의 제반사항, 향후 발전방향, 과학기술단지로서의 성장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상기한 각 기능이 최대한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각 시설간의 기능적 연계성을 부여하는 한편, 단계별 개발계획에 부합하는 연차적 개발이 용이하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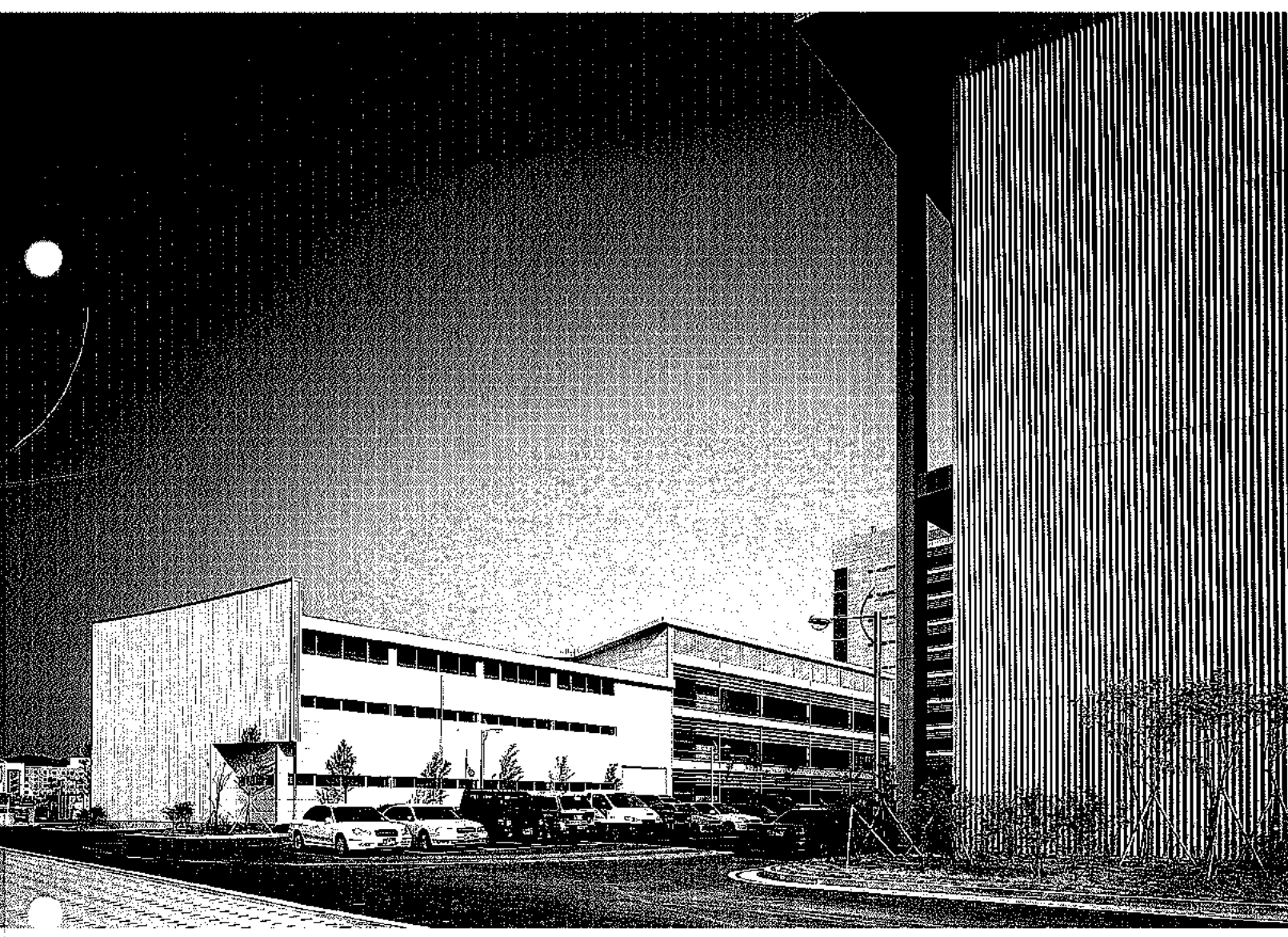
경기테크노파크의 건립지는 한양대 부지 서측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측으로 낮은 구릉지를, 서측으로는 남북방향의 해안로를 접하고 있고, 지질 특성상 매립지로 취약한 지반을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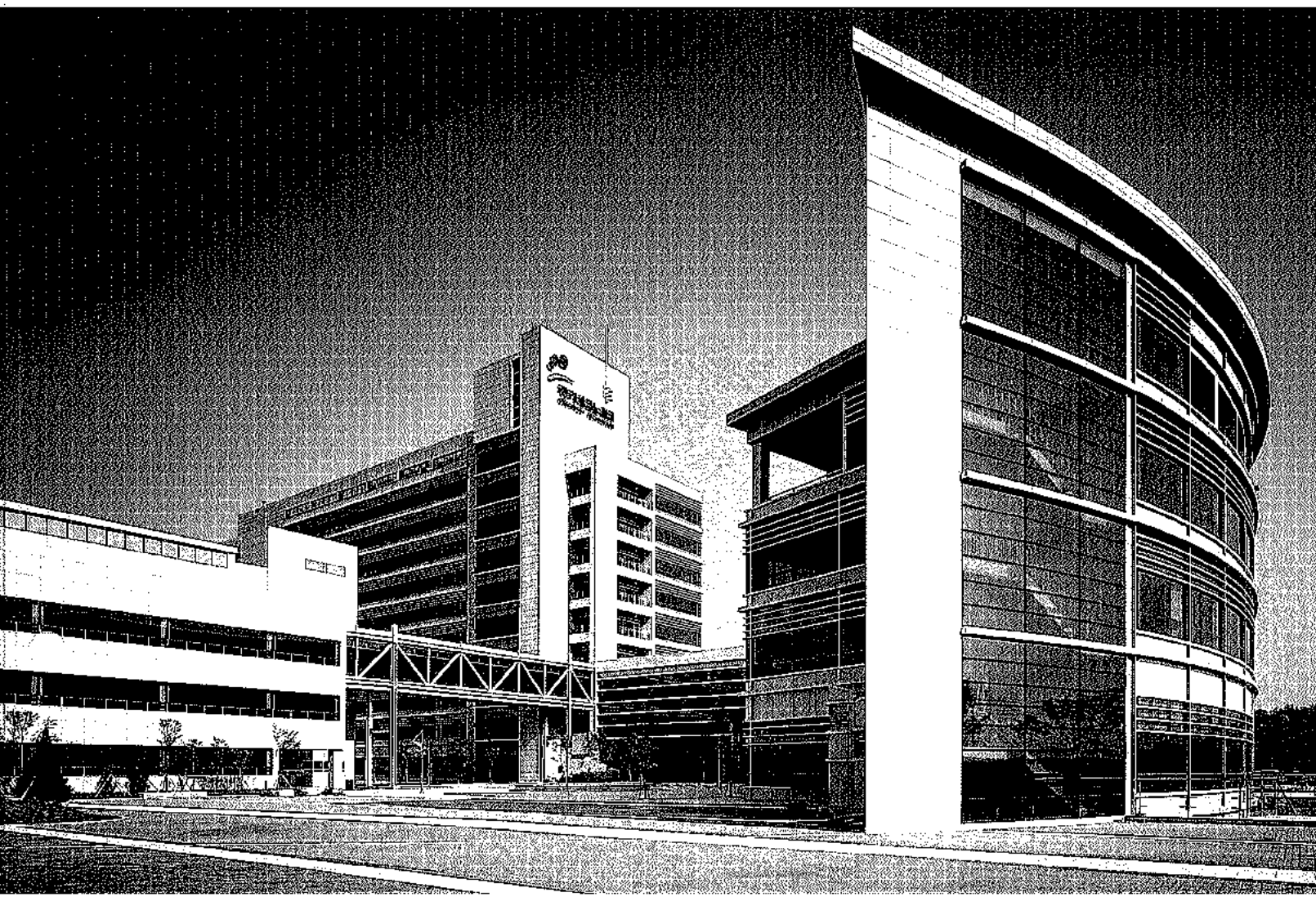
갖추어야 할 주요기능으로서 본관동 역할을 하는 지원편의시설과 창업보육시설, 기술고도화센터, 임대공장동 및 파일롯 플랜트를 대지축에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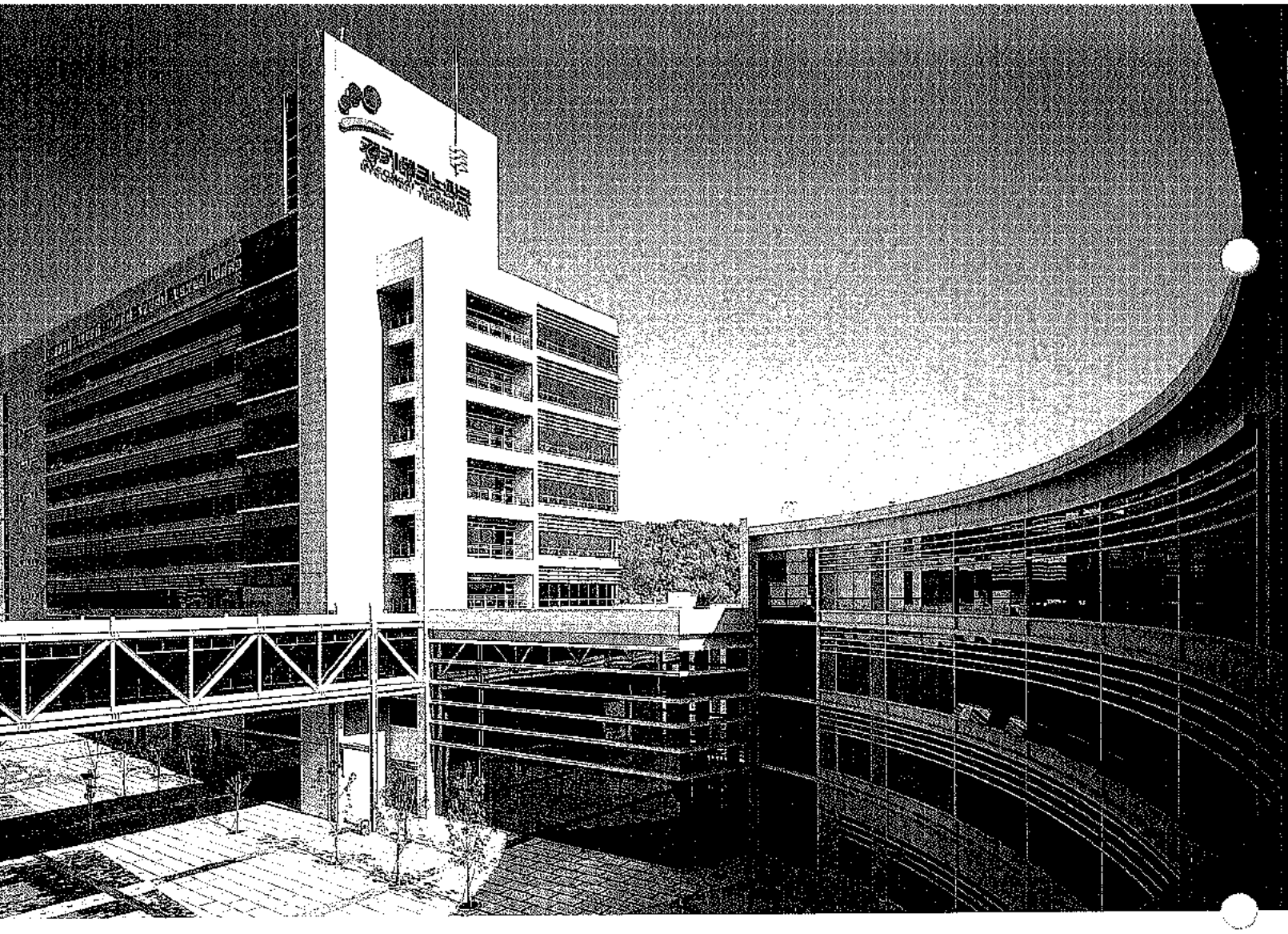
지원편의시설은 진입광장 및 테크노플라자와 연계하여 주요기능들이 상호유기적 내 · 외부공간의 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적 환경특성과 지질특성, 각 기능의 공간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기능별 정체성의 부여

임대연구소동 : 유사 시설(신기술창업센터, 기술고도화센터)의 집적에 의한 효율의 극대화를 수직적 매스로 표현함과 함께 취







악한 매립지의 지반에 대응하여 시공 면적을 최소화

지원편의시설동 : 진입동선의 유입과 연구시설에 대한 지원의 기능을 수평적이며 부드러운 곡선 형태의 매스로 표현

임대공장 및 파이롯 플랜트동 : 중량의 설비가 도입되는 공장의 특성을 저층의 수평적이며 규칙적 모듈을 지닌 매스로 표현

랜드마크적 요소의 도입

근경에서는 해안로를 따라 지원편의시설의 매스가 제공하는 부드러운 곡면이 수평적 랜드마크가 되며, 원경에서는 임대연구소동의 수직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매스가 랜드마크로서 인지된다.

해안로에 대한 대응

차량의 주진입이 예상되는 해안로에 대해서는 해안로의 방향을 따라 길게 늘어선 곡면이 진입광장으로의 자연스러운 유입을 유도하며 임대연구소동 서측면의 세장한 입면이 흐름의 구심점으로 작용한다.

장래의 증축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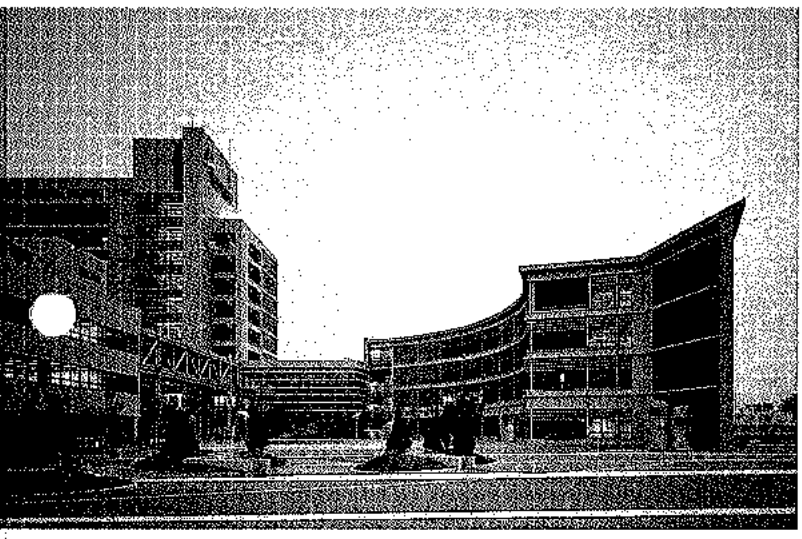
동선의 유입과 단지 전체의 중심성 확보는 부지의 서측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서측에서 동측의 한양대 캠퍼스를 향하는 방향으로 증축의 규칙적 모듈이 형성된다. 이에 의해 주출입구인 해안로에서는 형태적, 공간적, 기능적 질서가 유지되면서 부지 내부에서 기능적 확장을 꾀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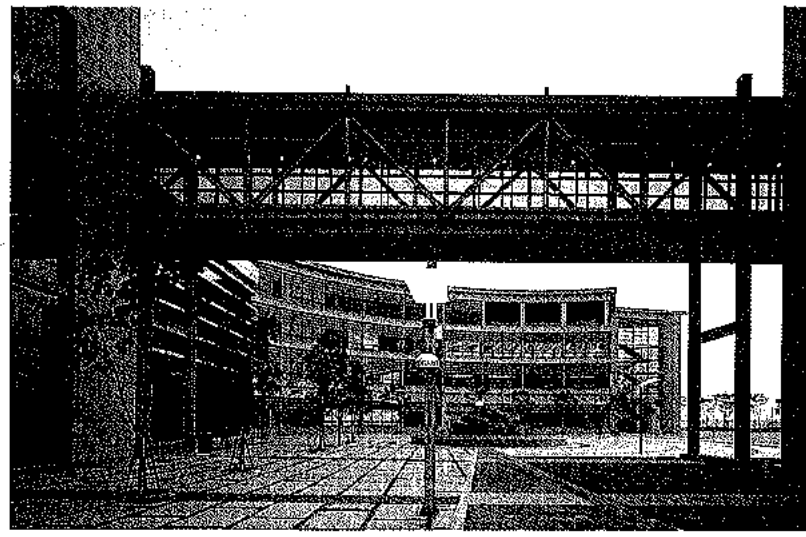
단지 내부의 커뮤니티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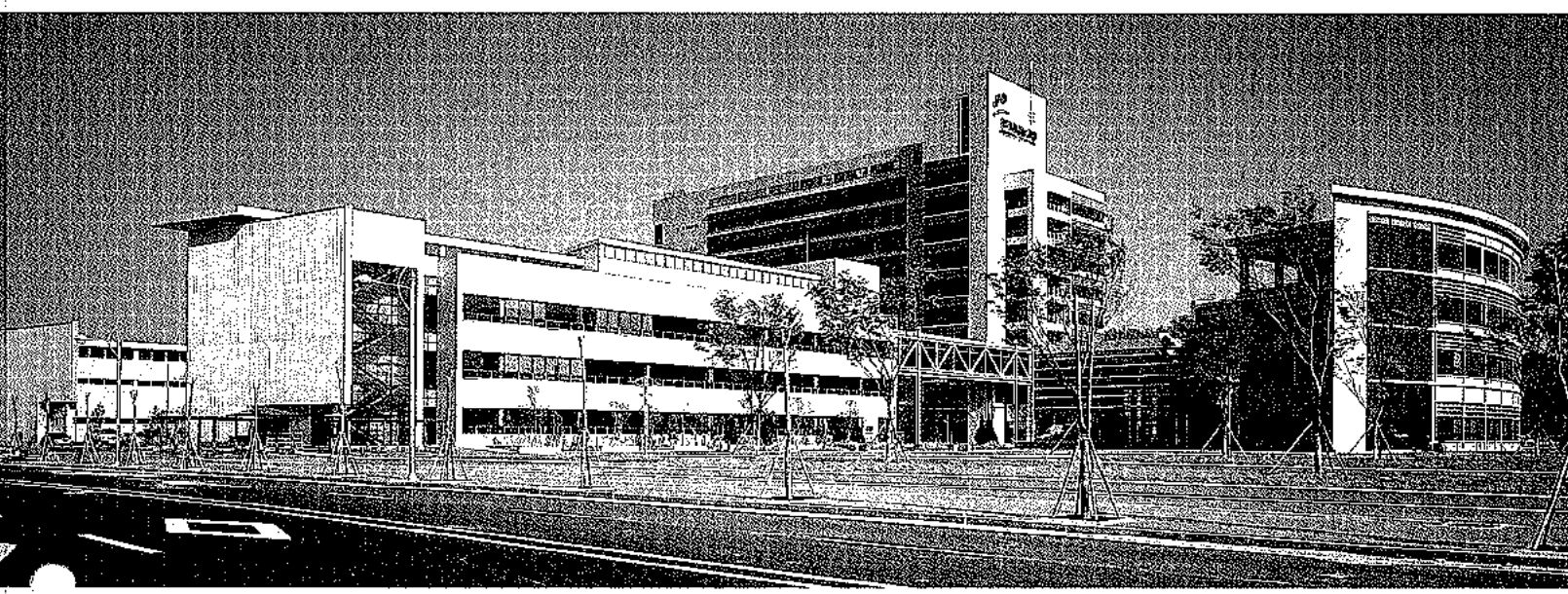
단지내의 커뮤니티는 테크노플라자와 이벤트광장을 중심으로 하는 외부공간과 아트리움을 중심으로 하는 내부공간을 통해 이루어지며 상호간의 시각적 연계를 통해 단계적으로 연계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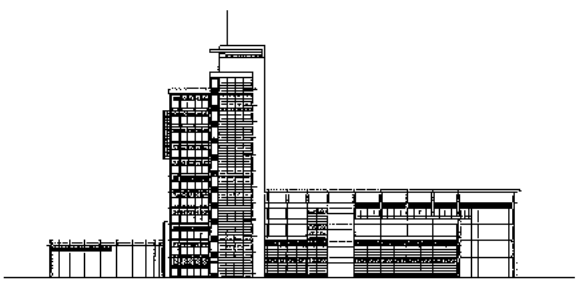
외부에 대한 개방성

남측의 녹지공간과 진입광장, 진입광장과 아트리움이 단계적으로 시각을 흐르게 하여 내부로의 자연스러운 유입을 유도하며, 투명성을 지니는 아트리움 공간에 동선을 집중시킴으로써 내부의 행위가 외부에 노출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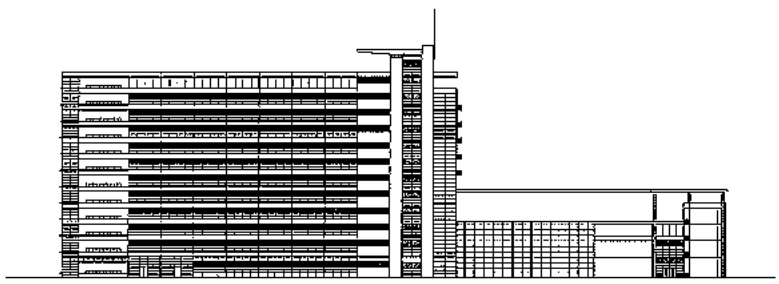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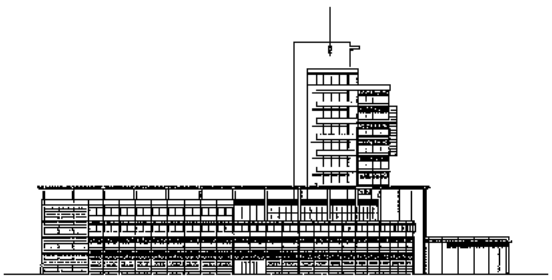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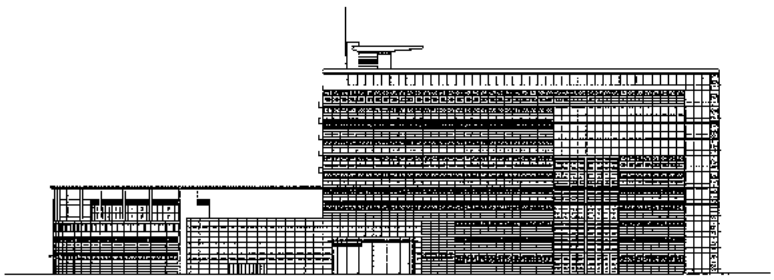
동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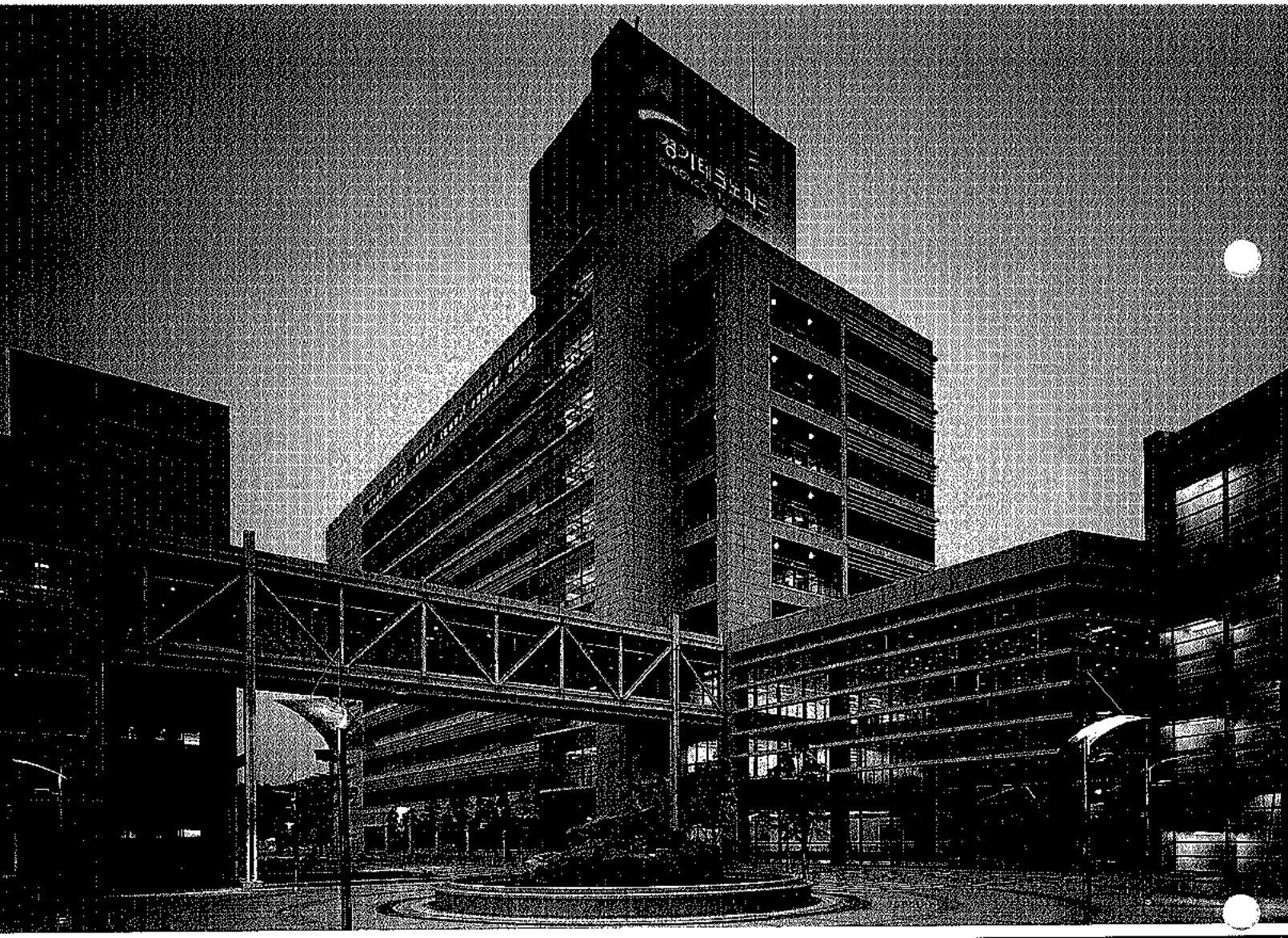
북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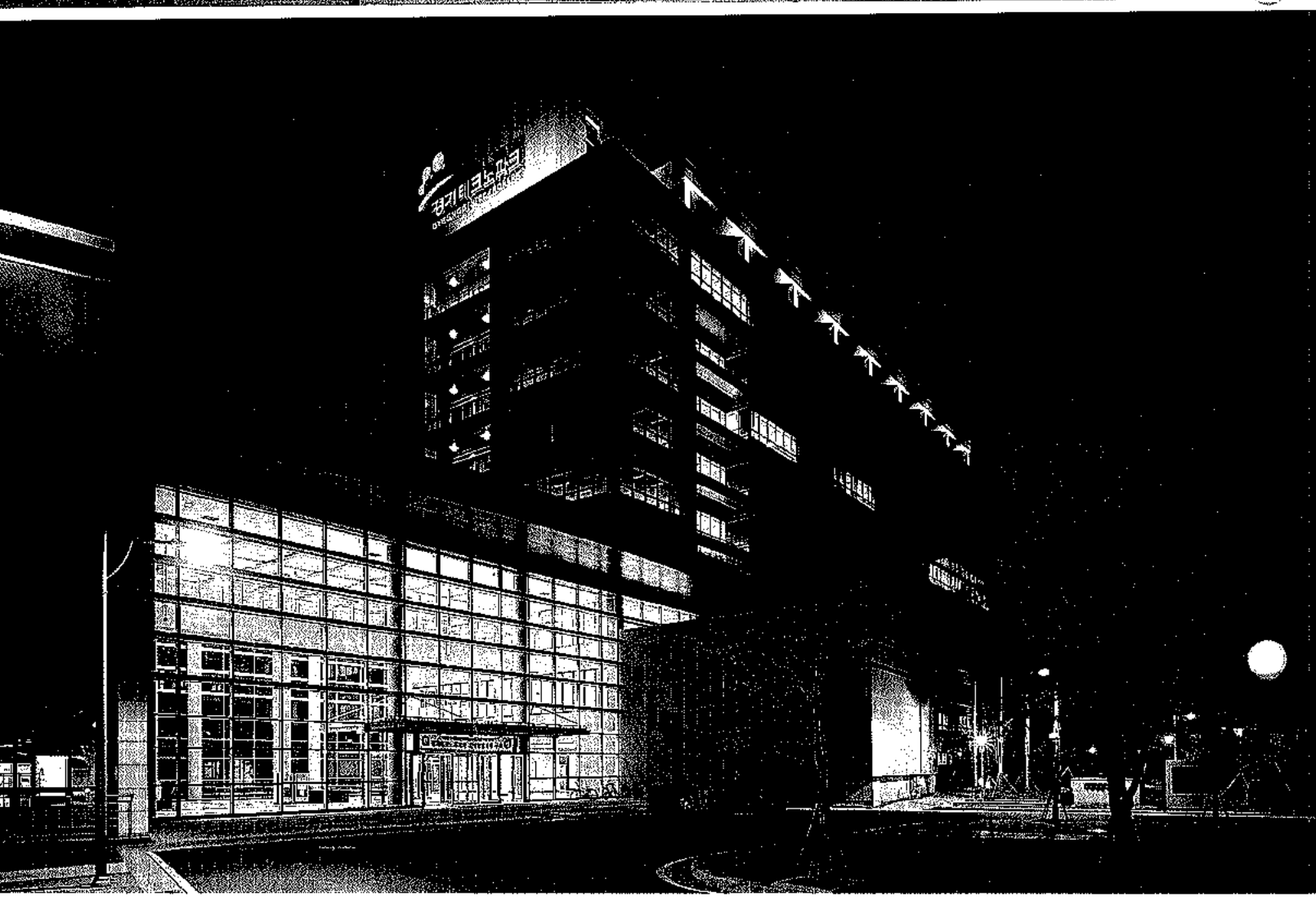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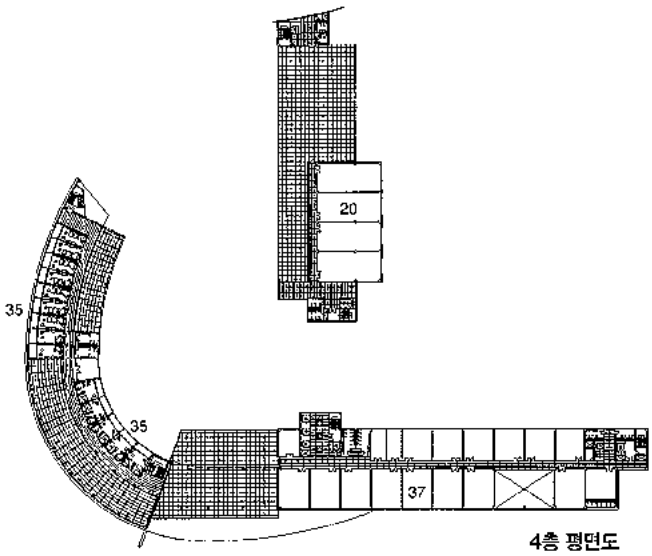
서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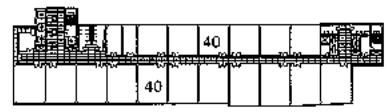
남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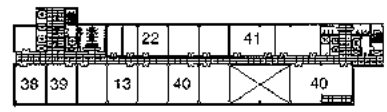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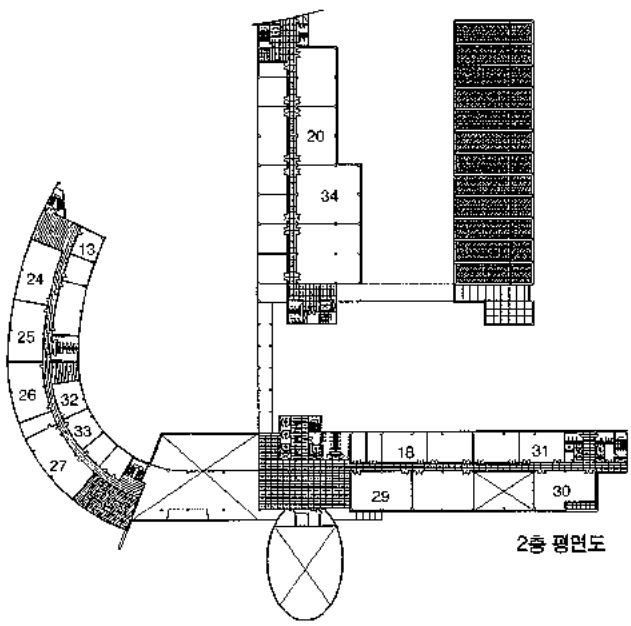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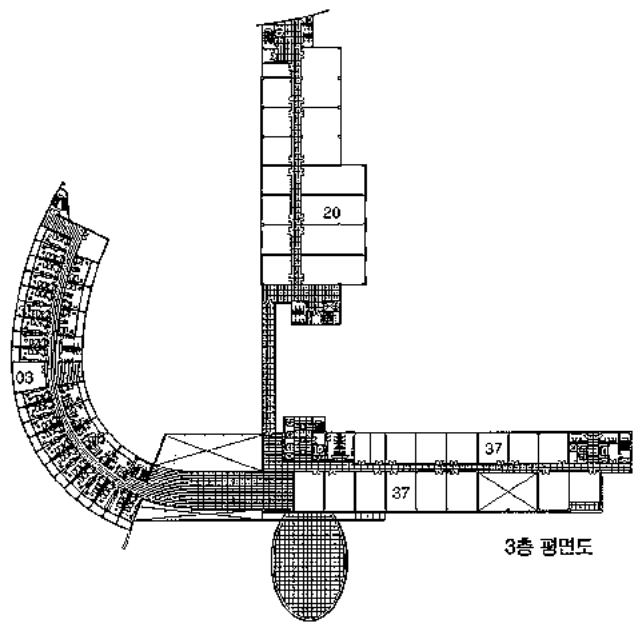
8~10층 평면도



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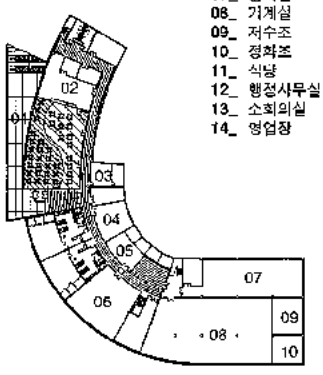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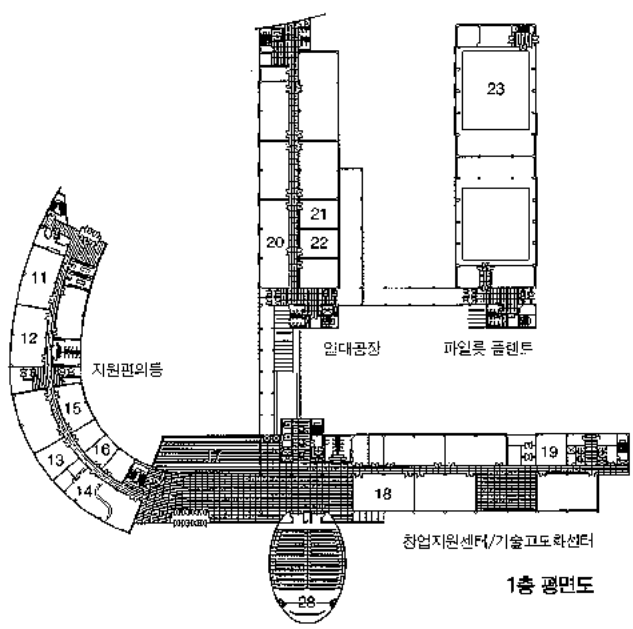


3층 평면도

01_ 선큰
02_ 주방
03_ 휴게실
04_ 매점
05_ 우체국
06_ 체력단련실
07_ 전기실
08_ 기계실
09_ 저수조
10_ 정화조
11_ 식당
12_ 행정사무실
13_ 소회의실
14_ 영업장
15_ 전산실
16_ 상담실
17_ 홍보전시실
18_ 특성화기기실
19_ 사무실
20_ 일대공장
21_ 공동창고
22_ 관리창고
23_ 파일롯 플랜트
24_ 이사장실
25_ 원장실
26_ 교육실
27_ 다목적실
28_ 국제회의장
29_ 정밀계측실
30_ 공동기기분석실
31_ 일반실험실
32_ 여학교육실
33_ 전산교육실
34_ 공작기계실
35_ 일반기숙사
36_ 외부인숙소
37_ 입대연구소
38_ 소매점
39_ 도서자료실
40_ 창업보육실
41_ 중회의실



지하층 평면도



1층 평면도

교원비전센터
Kyowon Vision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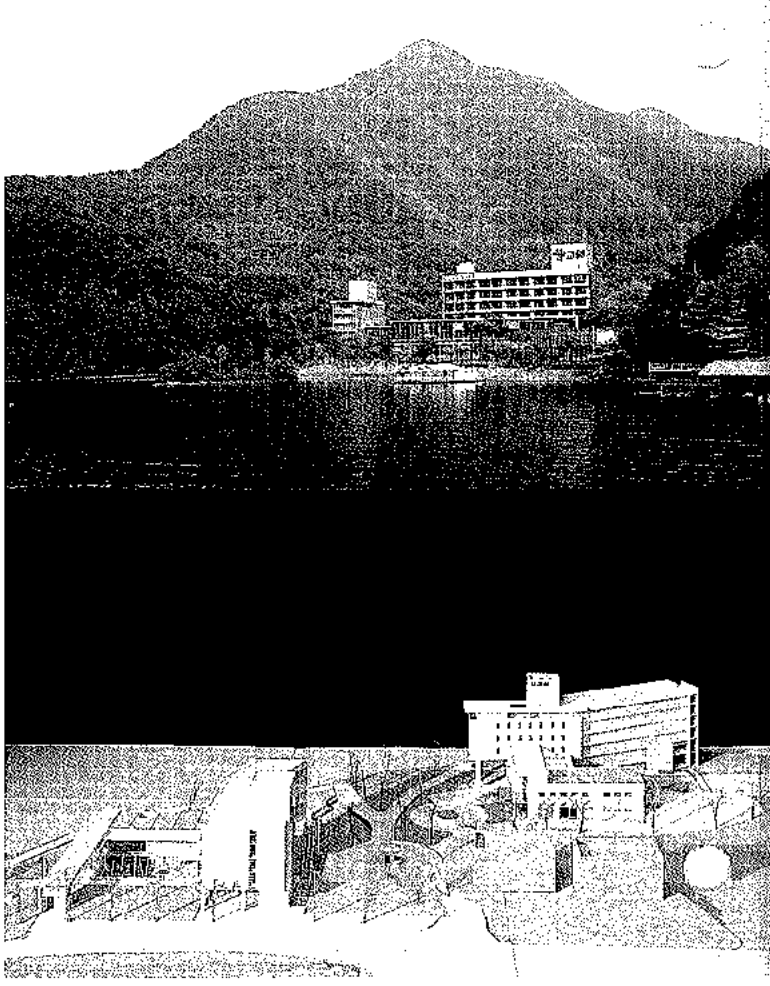
조남호 · 박종수 · 양원모 / (주)솔토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Cho Nam-Ho, Park Jong-Soo & Yang Won-Mo

자연은 산의 형상이나 크기, 물의 흐름과 바람 등의 요소들 간에는 보다 정밀한 조정과 관계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간다. 토목, 건축 등의 인위적인 작업들은 질서에 영향을 미치되 파괴적인 속성을 갖게 되기 쉽다. 건축이 자연의 질서 속에 편입될 때 그 흐름에 순응하거나 증폭된다. 보다 주의 깊은 구축방식에 의해 파괴에 의한 상처도 회복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 지역에서 두개의 건축은 개발면적의 단위나 건폐율 등과 같은 행정 절차나 법적인 제약에 순응하면서 만들어졌다. 교원비전센터는 연구동과 교육동으로 분리되어 인위적 환경과 자연환경과의 관계를 조정하면서 각각의 다른 장소성을 구축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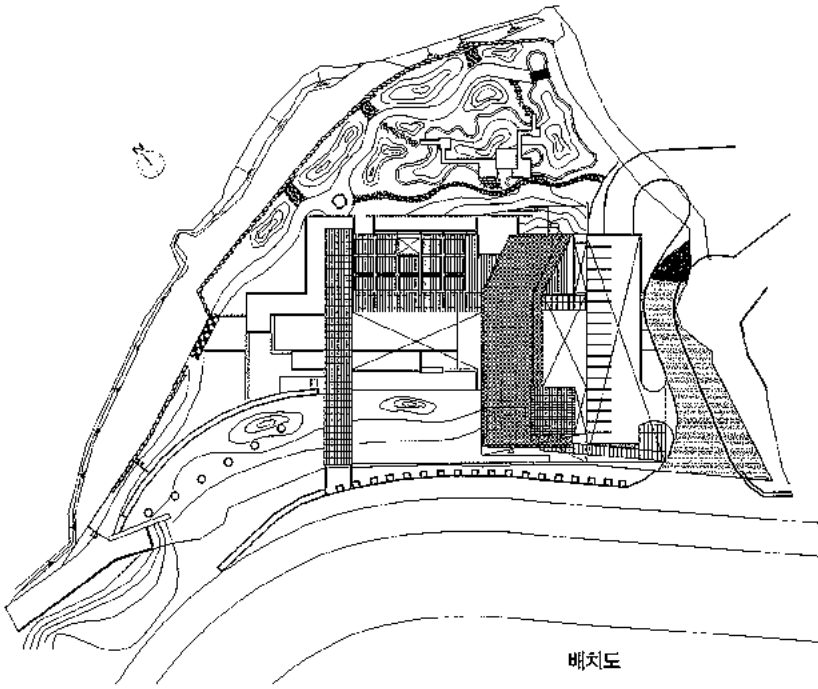
연구동의 부지는 호수의 계곡 사이의 우회하는 도로면에 접한 보다 드러난 입지를 갖는다. 연구동은 3단계의 구축방법에 의해 도로, 절개지와 부지, 건축과 관계 맺기를 시도한다.
1단계는 중정건축이다. 짧은 진입 공간, 도로에서의 소음에서 보다 정적이고 내밀한 공간을 구축해 낸다. 크고 작은 두개의 중정은 호수와 중정 상징적인 홀 작은 중정, 주차 공간 간의 관계를 조율한다.
2단계는 도로레벨 아래의 지하공간으로 달혀진 용도들이 도로와 평행하게 배치되고 각각요소들은 투명한 유리로 구성되어 중정에 방향성을 주어 호수를 향한 시선을 제공한다.
3단계는 도로레벨 이상의 부분으로 도로 그리고 지하층 달혀진 용도들과 직교하는 구성을 갖는다. 이것은 연속적으로 회유하는 동선의 구성을 가능하게 하고, 동시에 도로에서의 개방감과 숙소에서 호수를 바라볼 수 있게 한다.

교육동의 부지는 호수의 폭이 급격히 좁아지면서 만드는 만곡된 평지로 되어 있다. 연구동이 도로와 절개지로 인해 불안정한 조건을 가진 곳이라면 교육동은 산세와 물 공간의 크기 등이 자연적으로 잘 구축된 기분 좋은 장소이다. 이곳에서의 구축전략은 질서에 순응하는 방식이 된다. 계곡의 방향, 물의 방향, 바람의 방향에 평행한 두개의 윙을 배치하고, 그것을 연결하는 투명한 유리커튼월로 계획이 종결된다. 중심의 홀은 전면으로는 호수와 후면으로는 산을 끌어 들인다. 단순해 보이지만 풍부한 공간감을 갖게 하는 것은 외부를 감싸는 자연의 커가 하나 더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곳에서의 구축은 비켜서는 방법이다. (글 : 조남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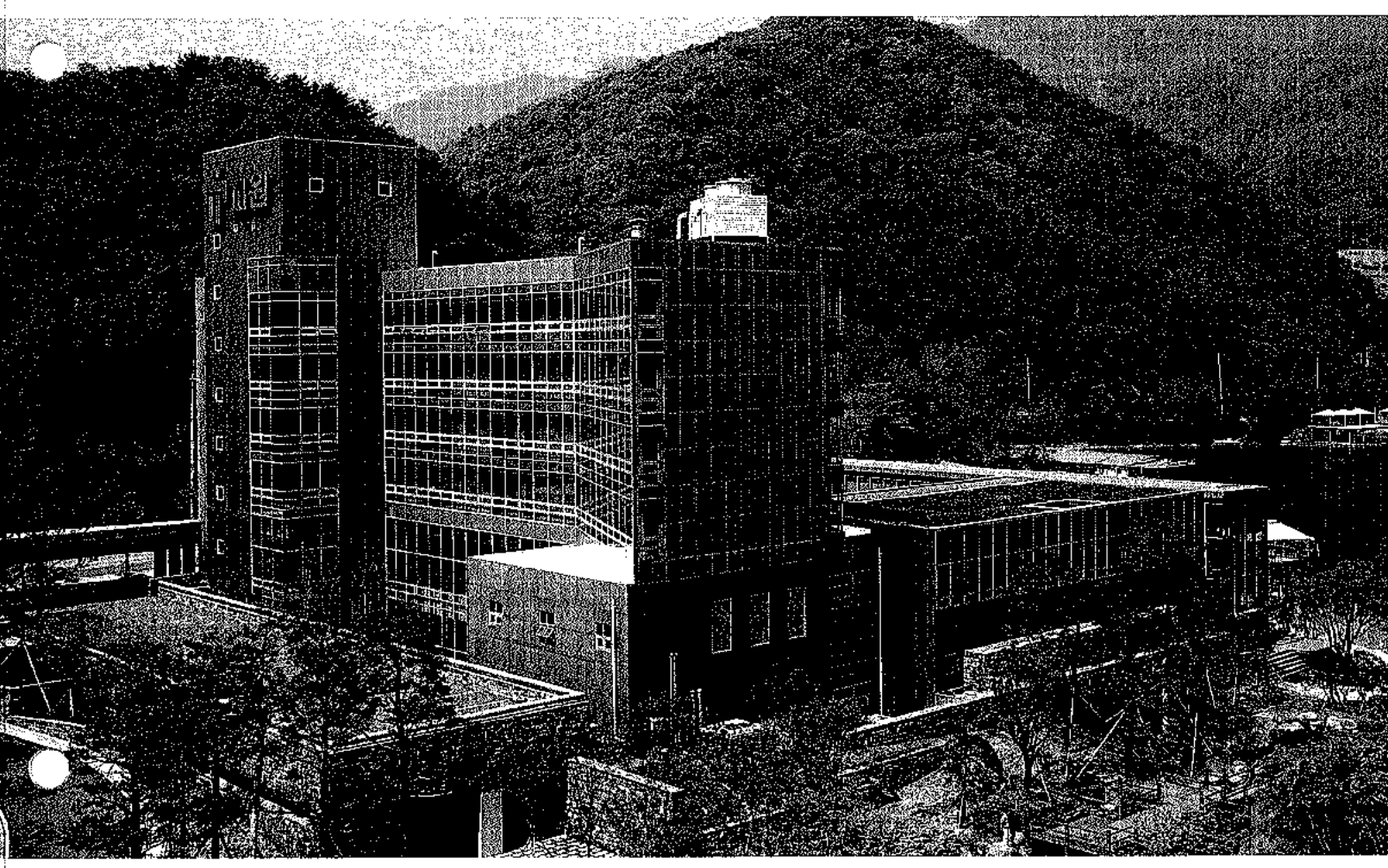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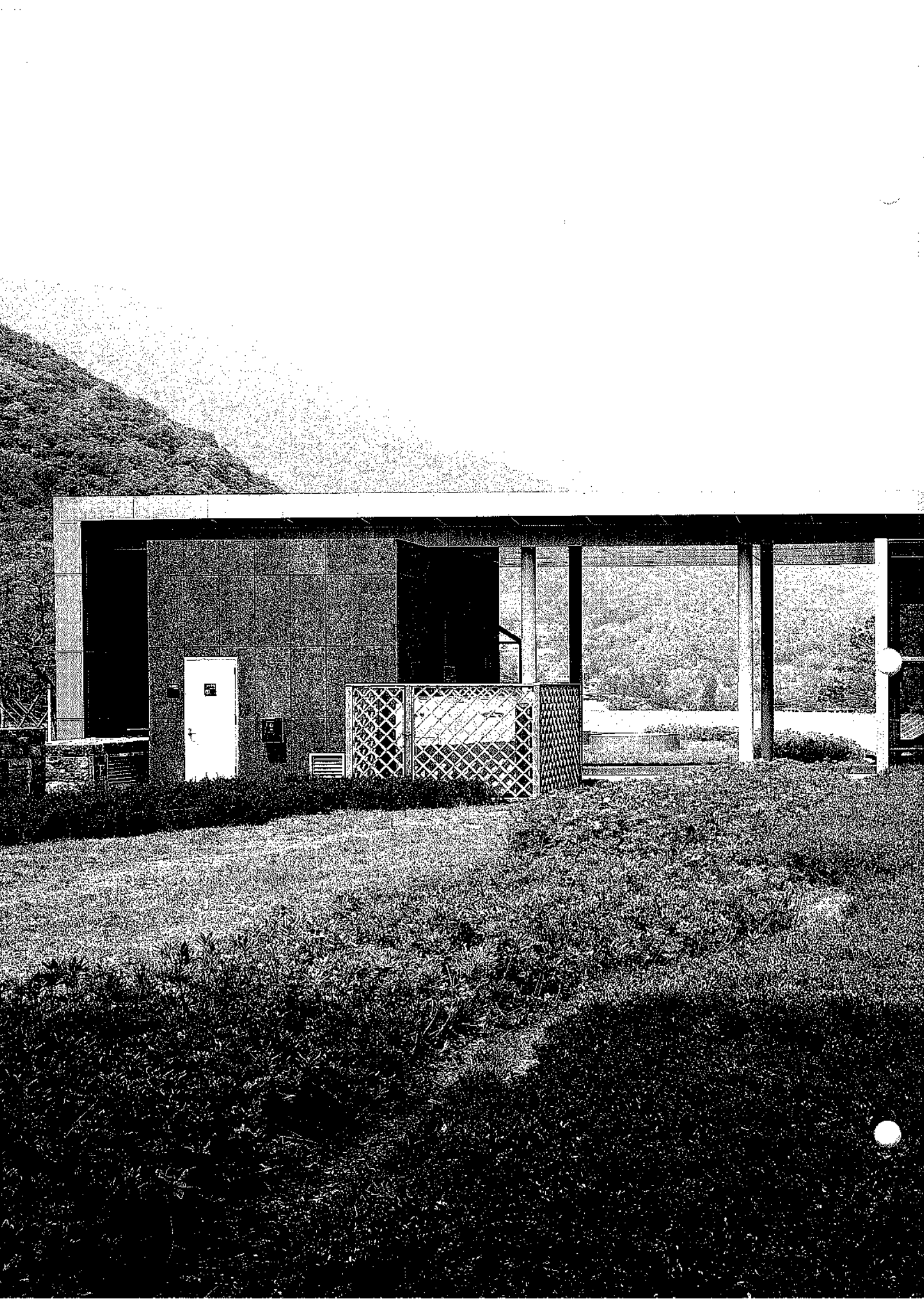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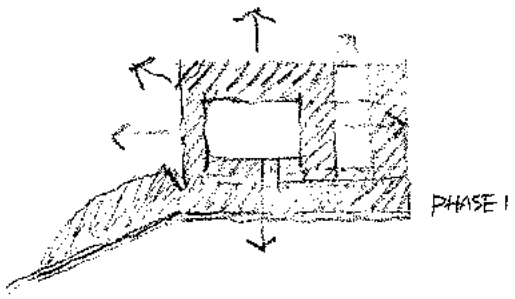
건축물명	교원비전센터(연구동)
대지위치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주요용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연 면 적	7,612.64㎡
용 적 률	43.42%
규 모	지하2층~지상5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최고높이	29.20m
외부마감	외산 화강석물갈기
내부마감	석고보드 페인트
설계담당	이다현,김용화,서벌석,문형승,김환수,고영산
구 조	CROSS 구조연구소
설 비	나우설비기술 주식회사
전 기	(주)정우종합기술
조 경	삼성에버랜드
토 목	(주)시텍컨설턴트
감 리	(주)솔토건축
건 축 주	공문교육연구원(주) 대표 장평순
설계기간	1999년 11월 5일~2001년 6월 30일
공사기간	2001년 7월 1일~2003년 3월 4일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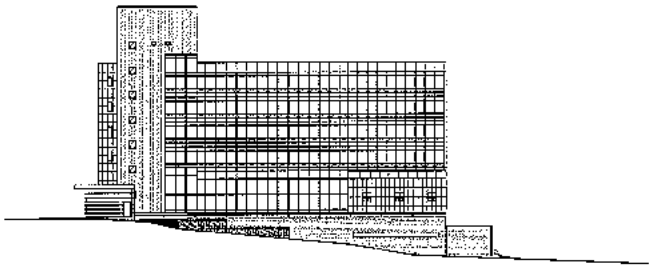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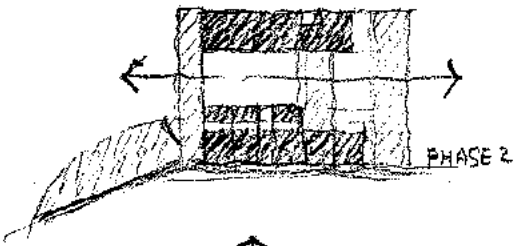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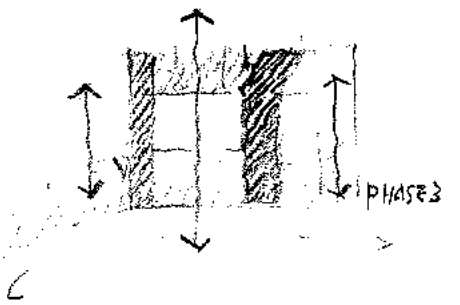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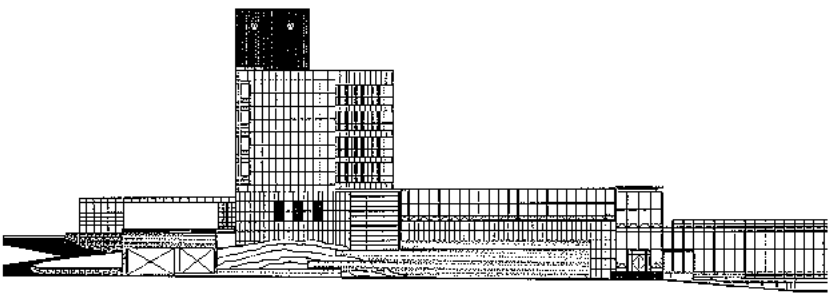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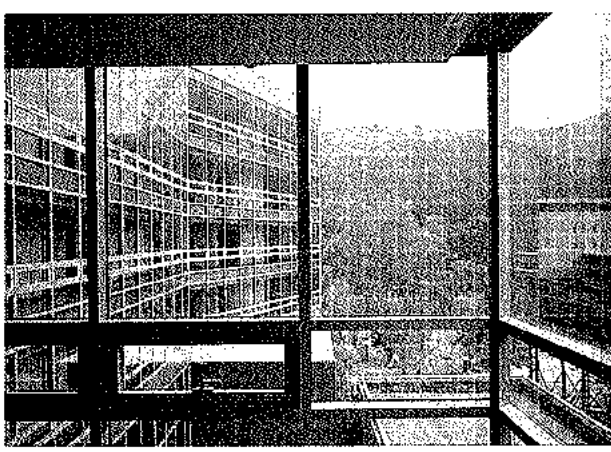
연구동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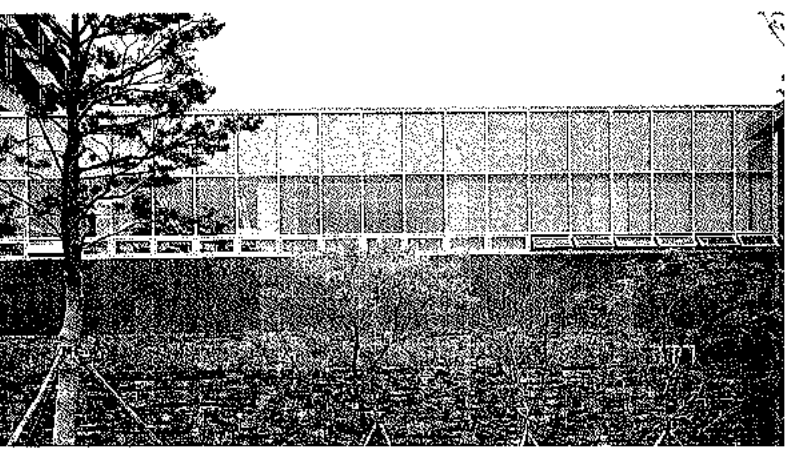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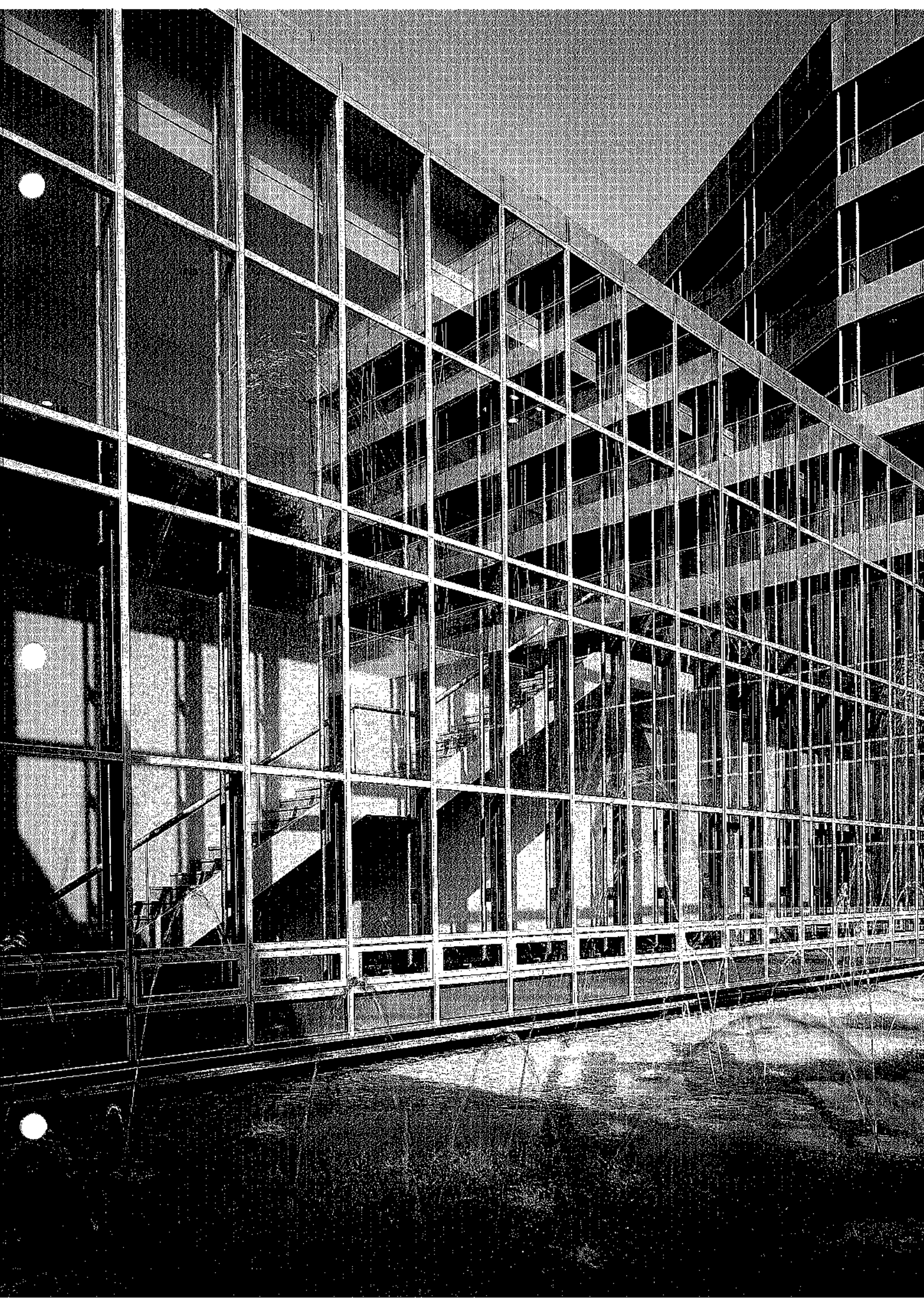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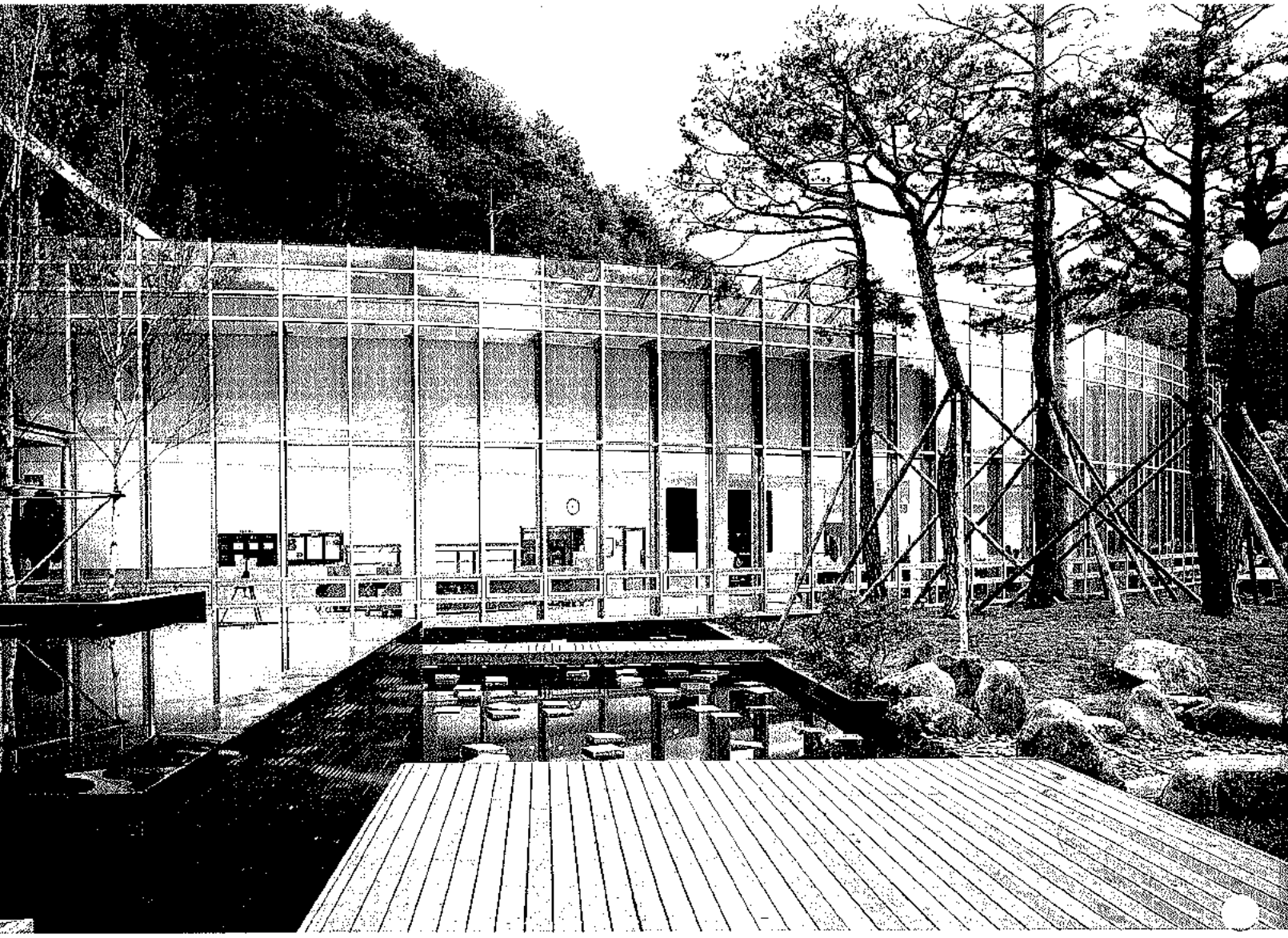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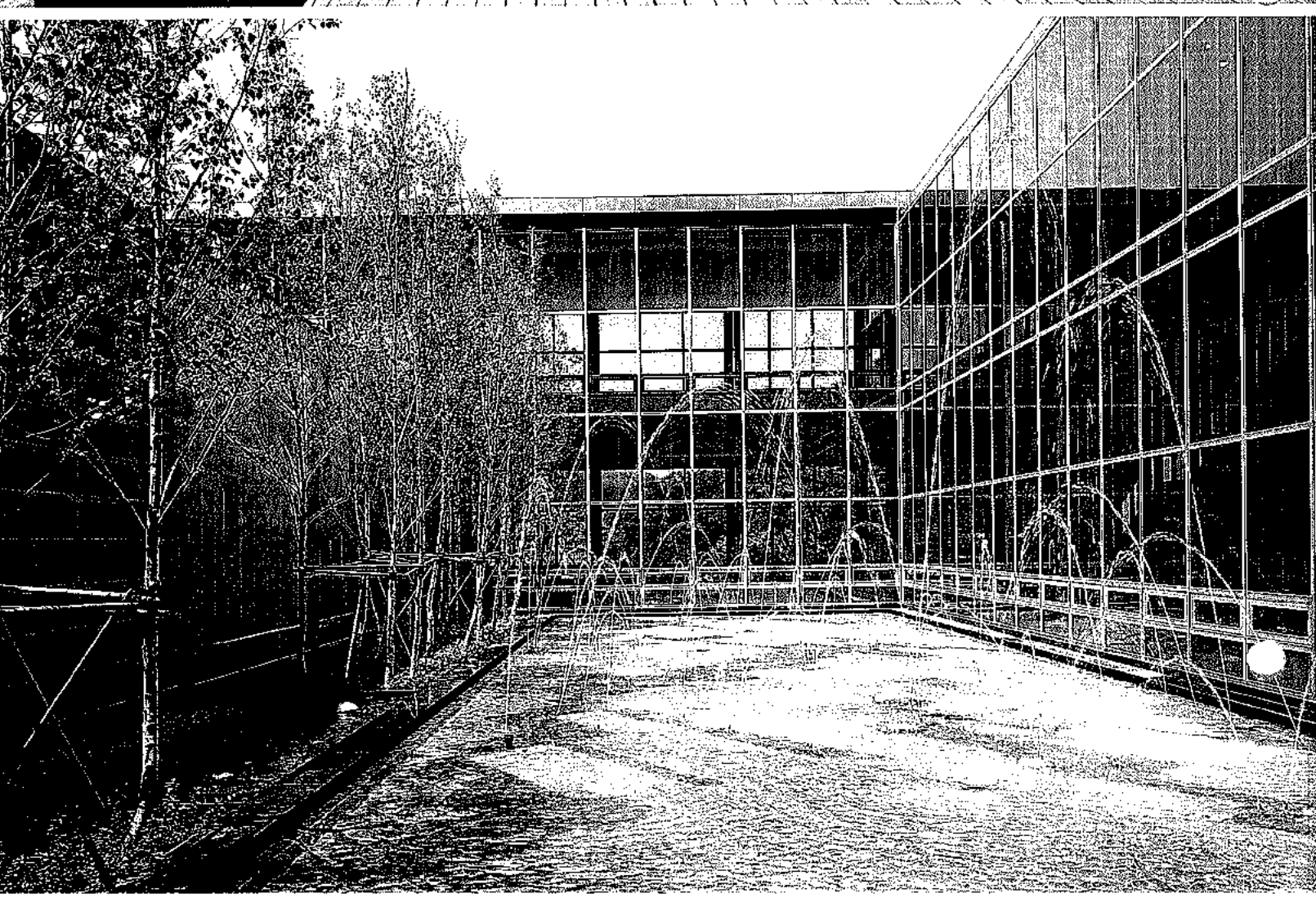
연구동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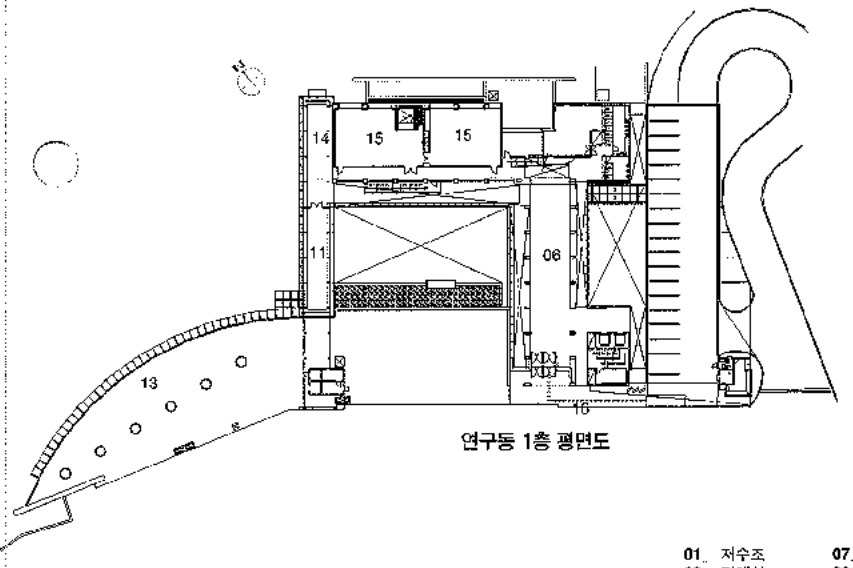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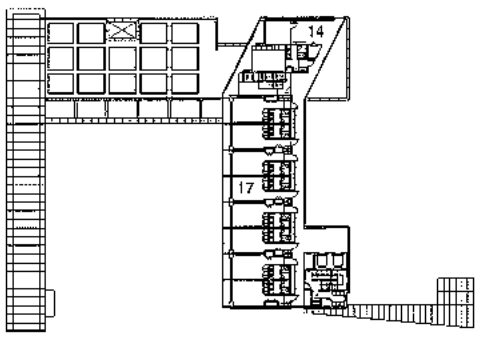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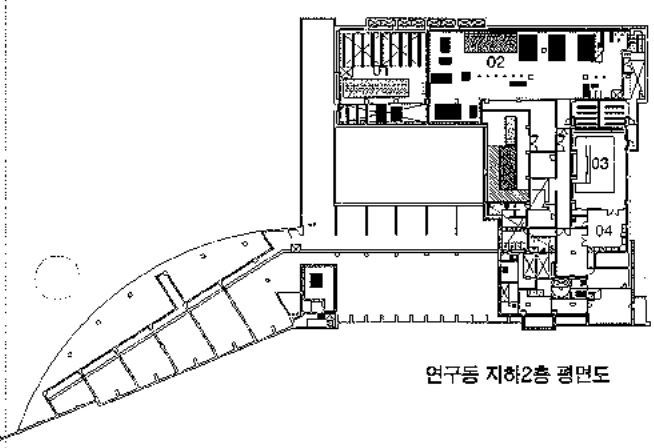


연구동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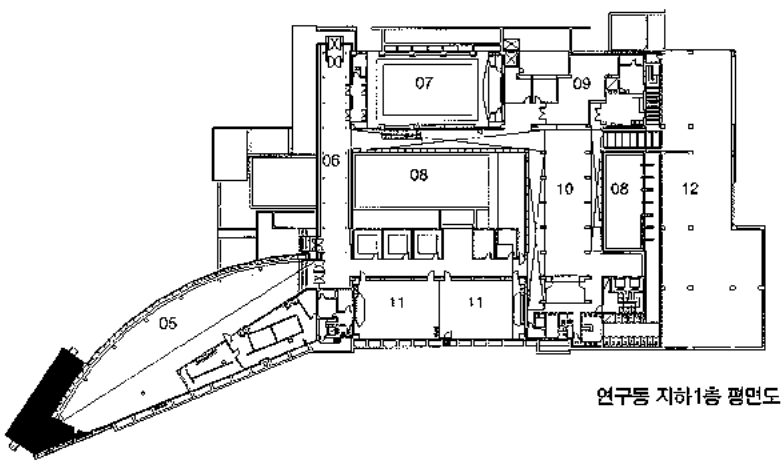


연구동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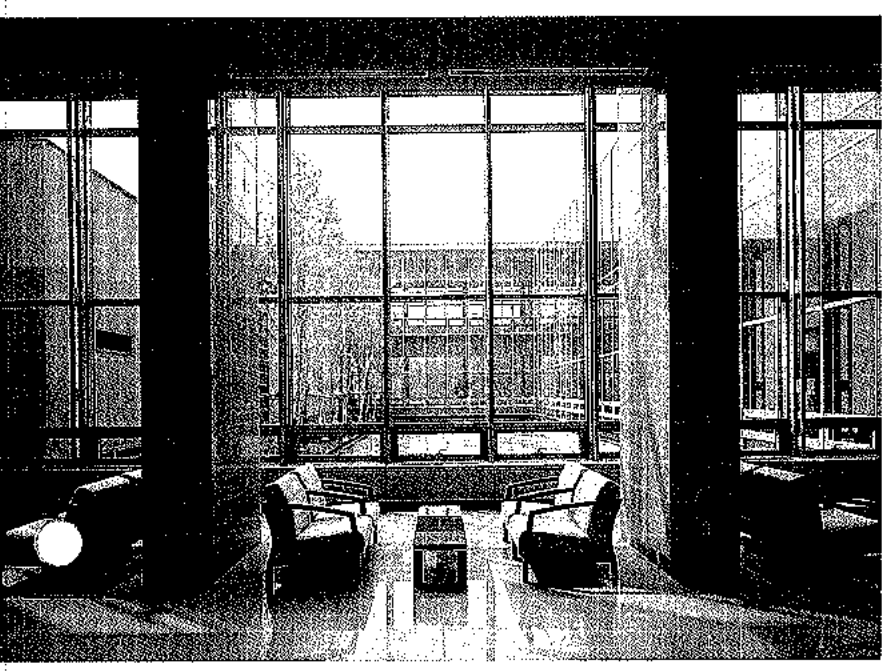
01_ 저수조
02_ 기계실
03_ 노래방
04_ 전실
05_ 식당
06_ 라운지
07_ 대회의실
08_ 선큰
09_ 전가실
10_ 로비
11_ 세미나실
12 주차장
13_ 화단
14_ 휴게실
15_ 회의장
16_ 출입구
17_ 업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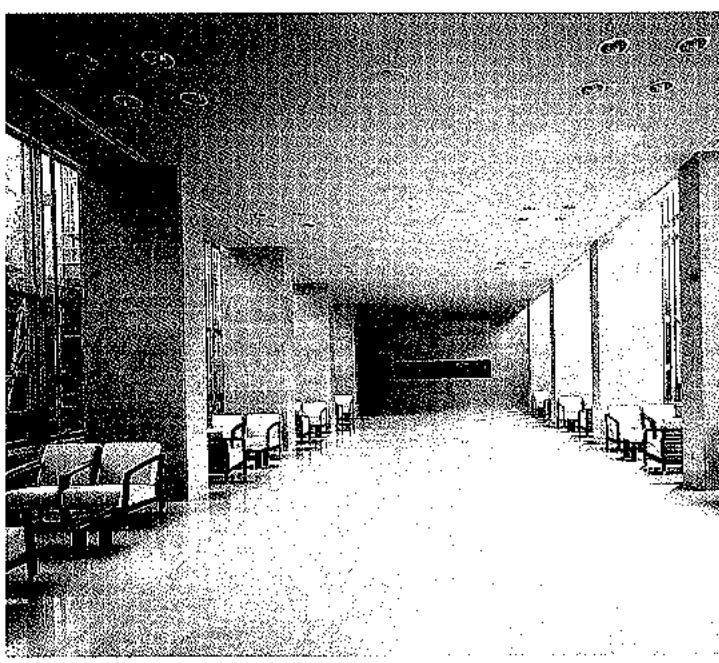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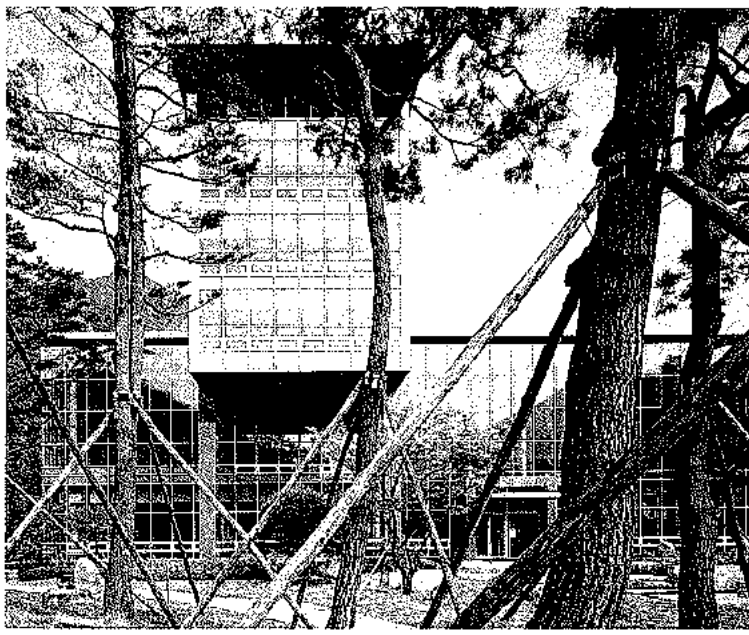
연구동 지하2층 평면도



연구동 지하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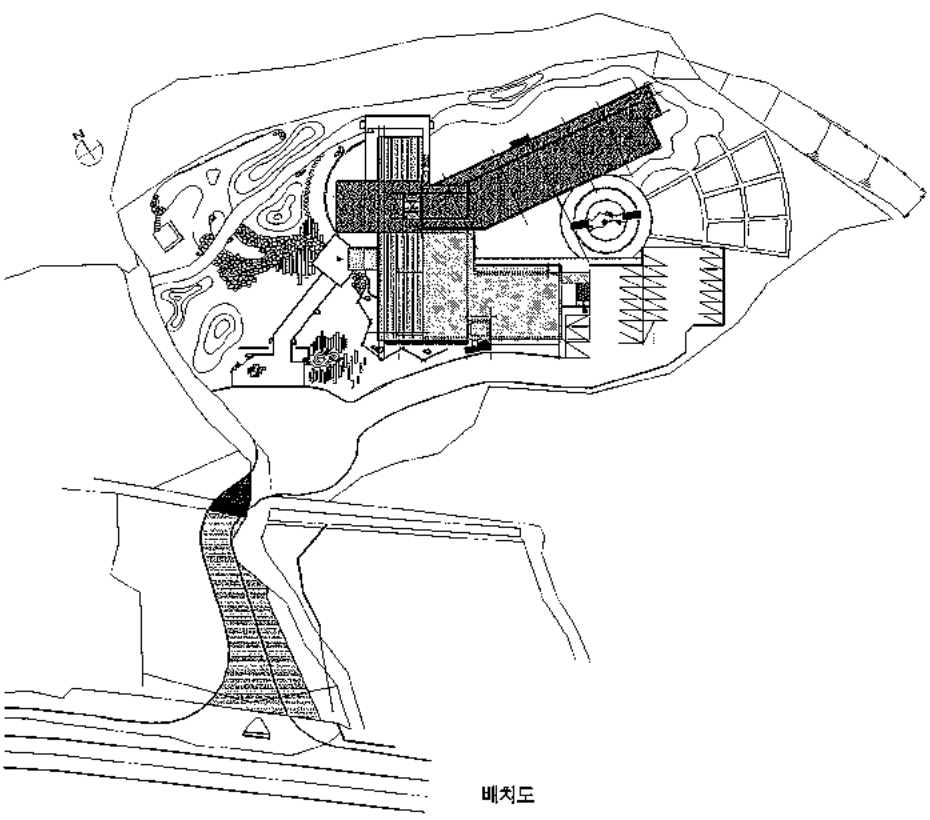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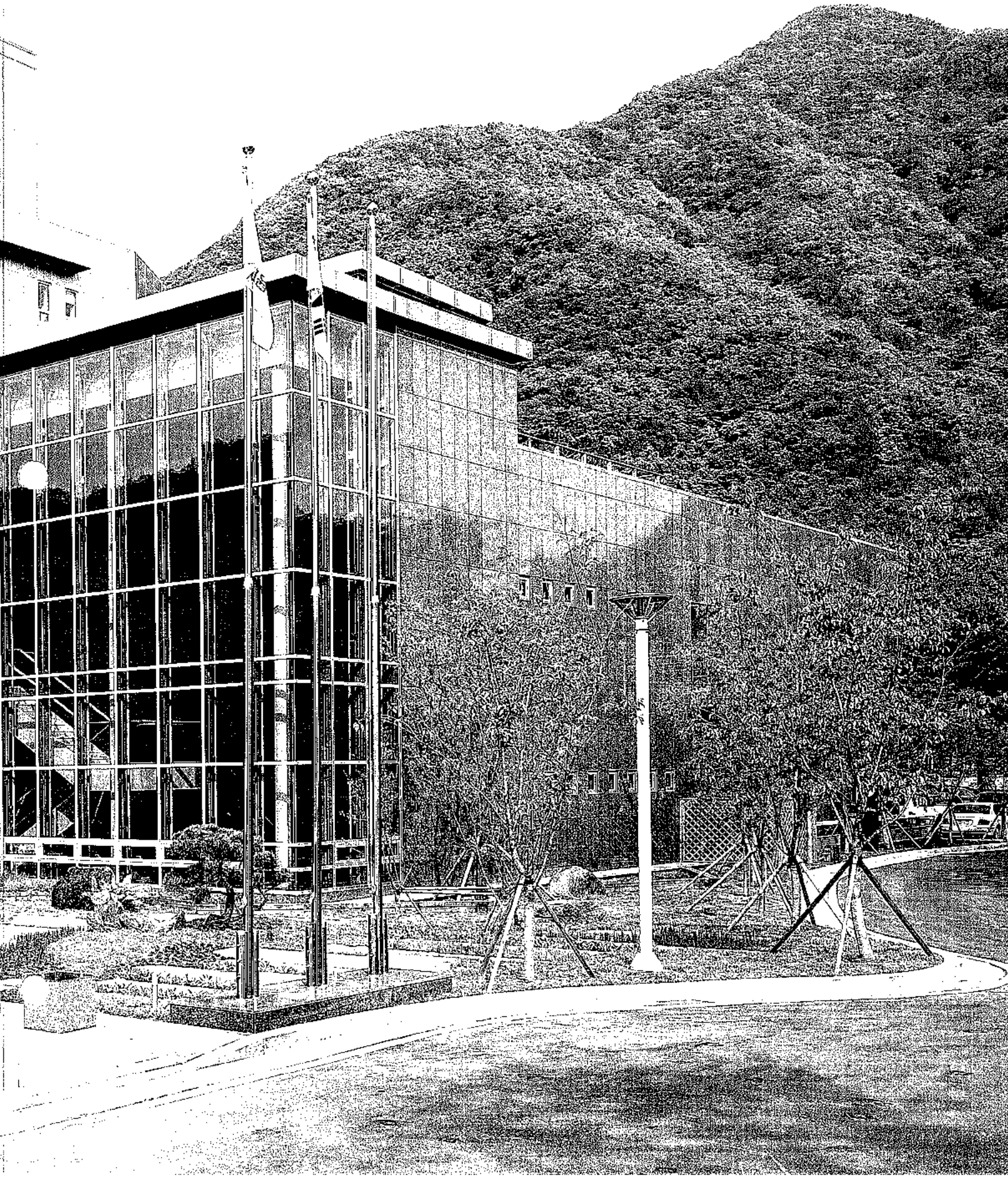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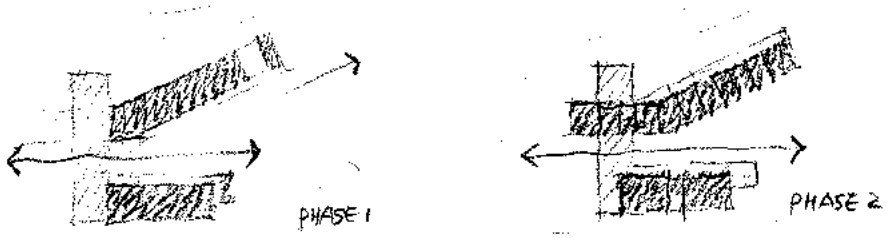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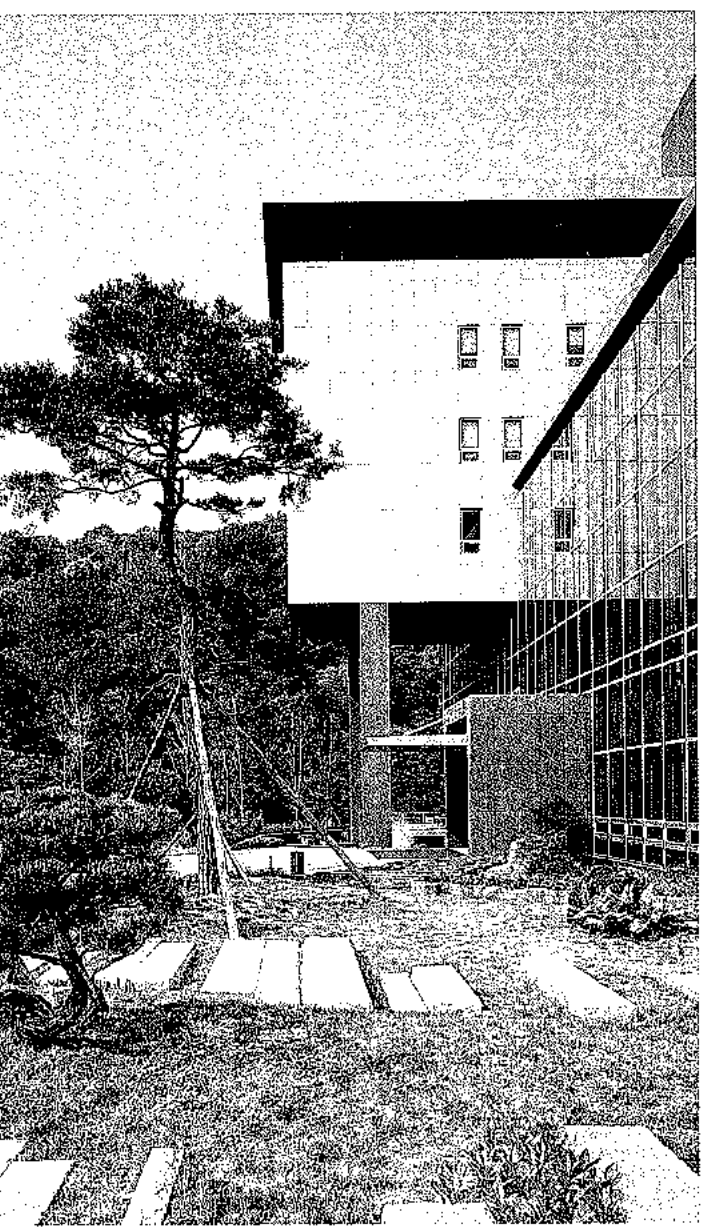
건축물명	교원비전센터(교육동)
대지위치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주요용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연 면 적	6,947.46㎡
용 적 률	66.72%
규 모	지하1층~지상6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최고높이	28.10m
외부마감	외산 화강석물갈기
내부마감	석고보드 페인트
설계담당	이다현,김용환,서범석,문형승,김환수,고영산
구 조	CROSS 구조연구소
설 비	나우설비기술 주식회사
전 기	(주)정우종합기술
조 경	삼성에버랜드
토 목	(주)시텍컨설턴트
감 리	(주)솔토건축
건 축 주	(주)교원아카데미 대표 이정자
설계기간	1999년 11월 5일~2001년 6월 30일
공사기간	2001년 7월 1일~2003년 3월 4일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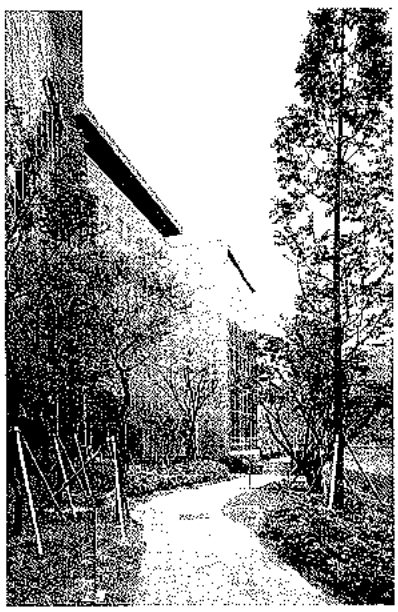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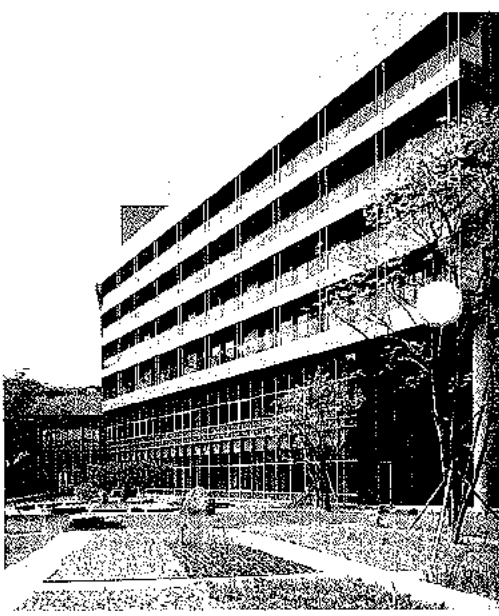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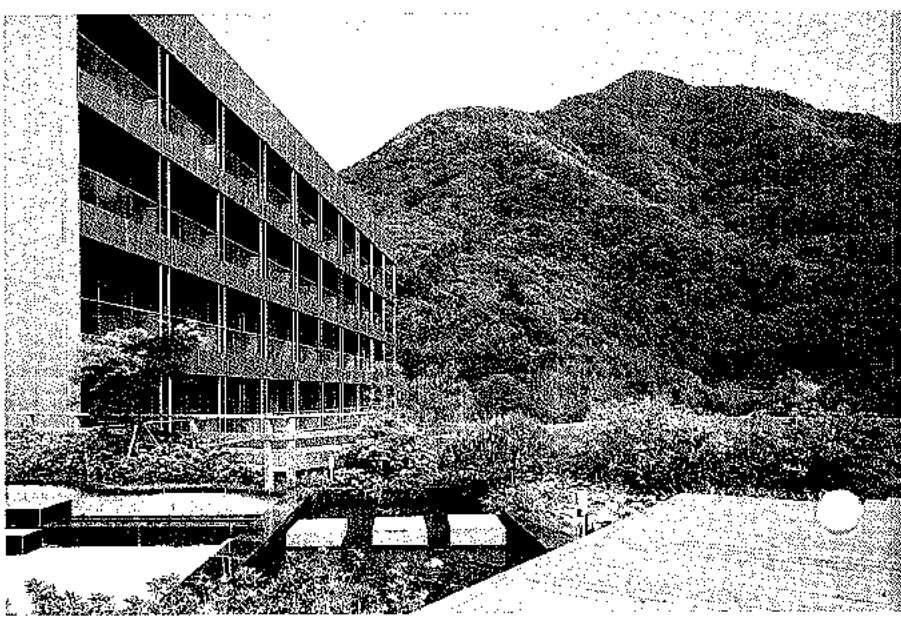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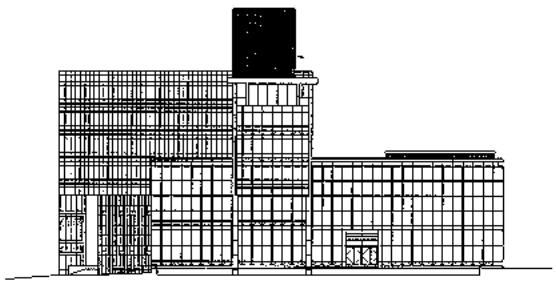

PHASE 1
PHAS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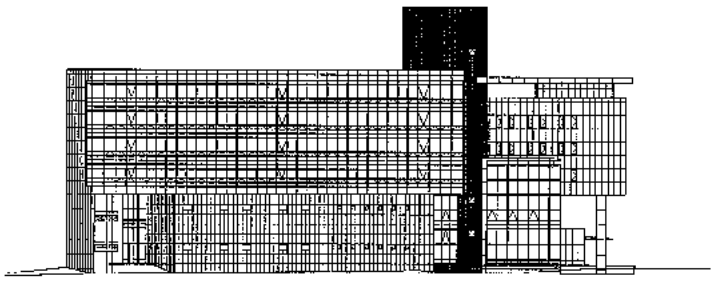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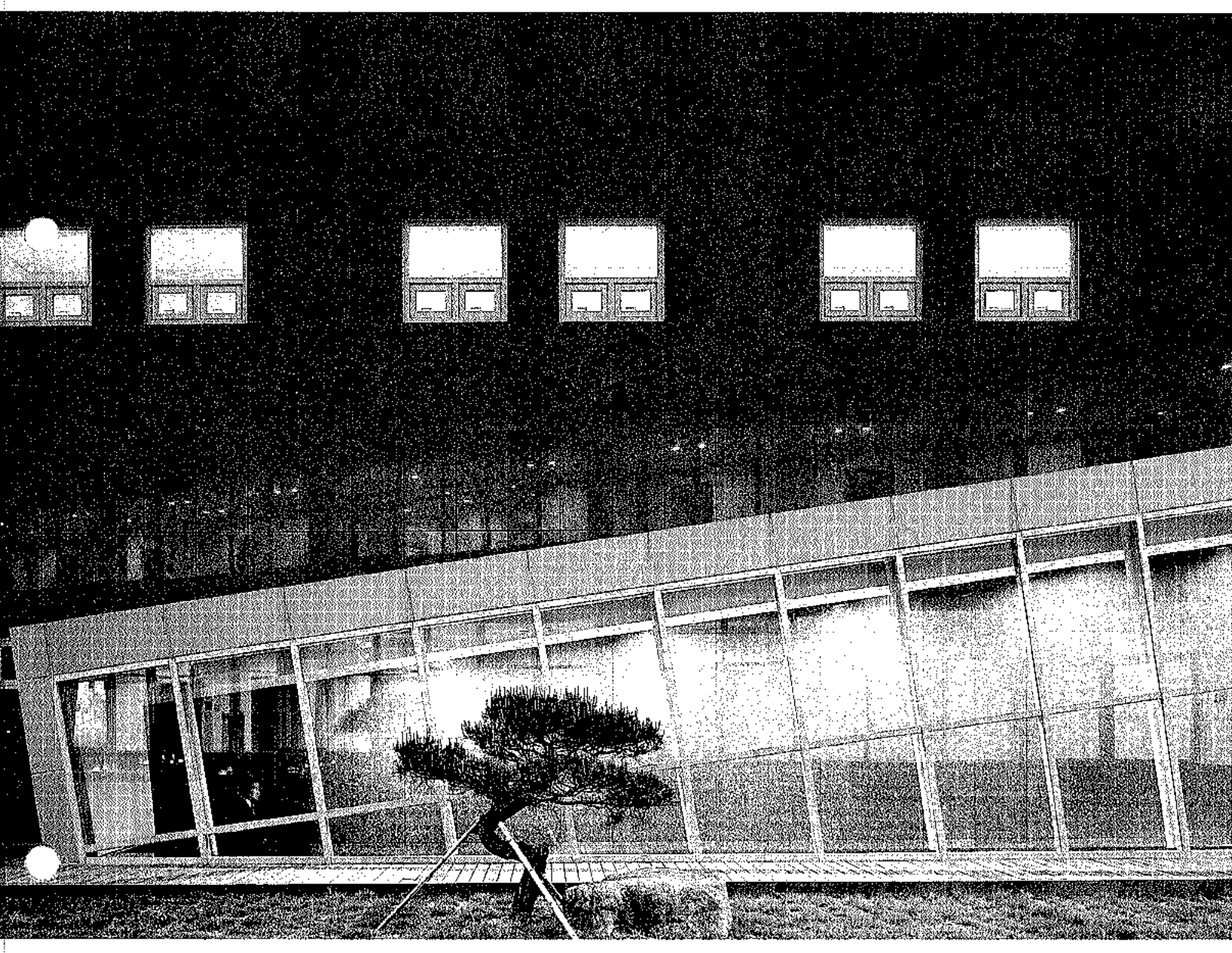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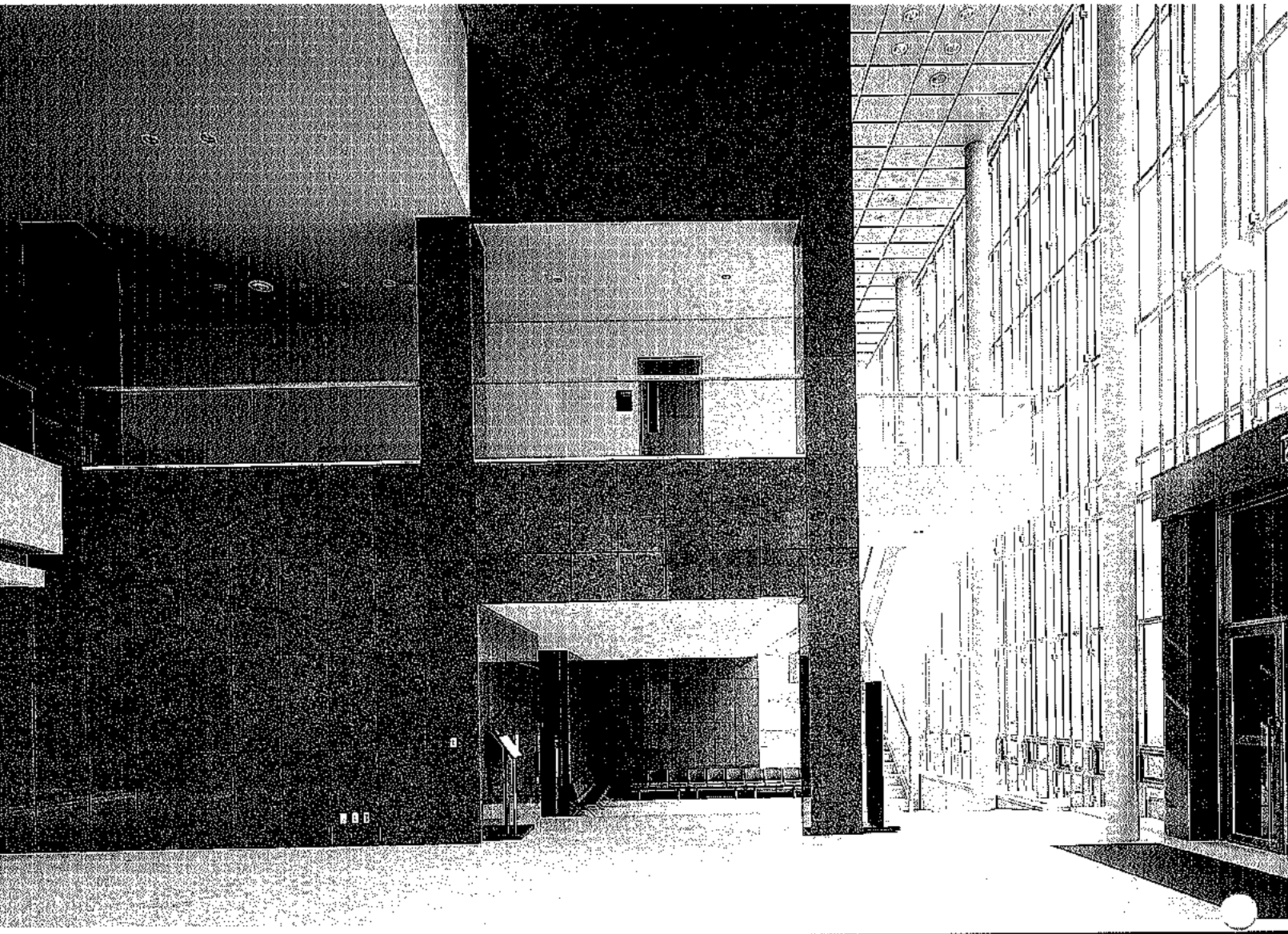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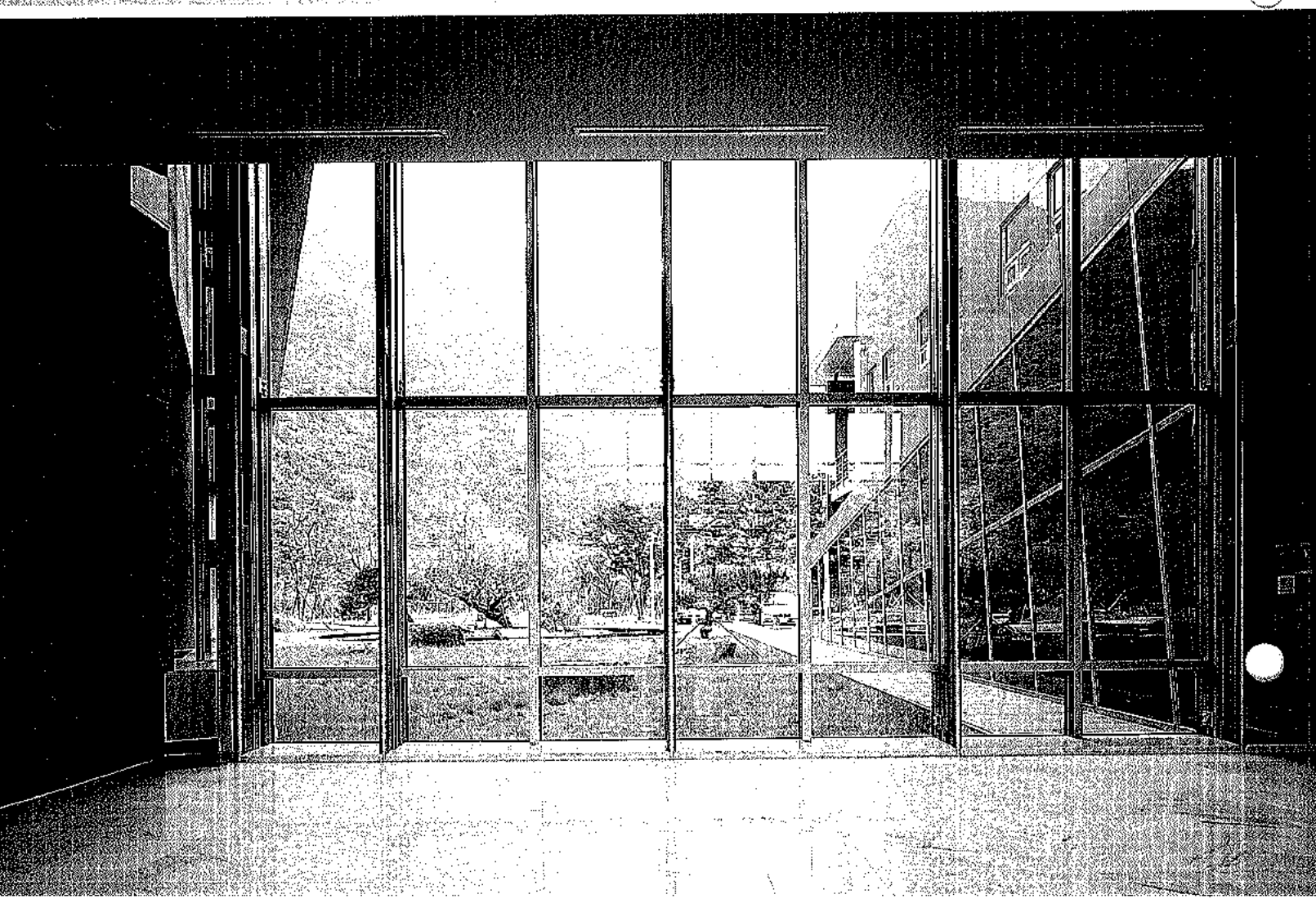
교육동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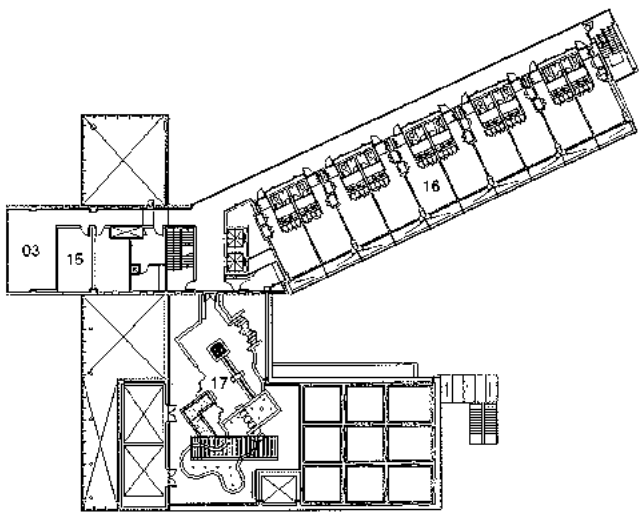
교육동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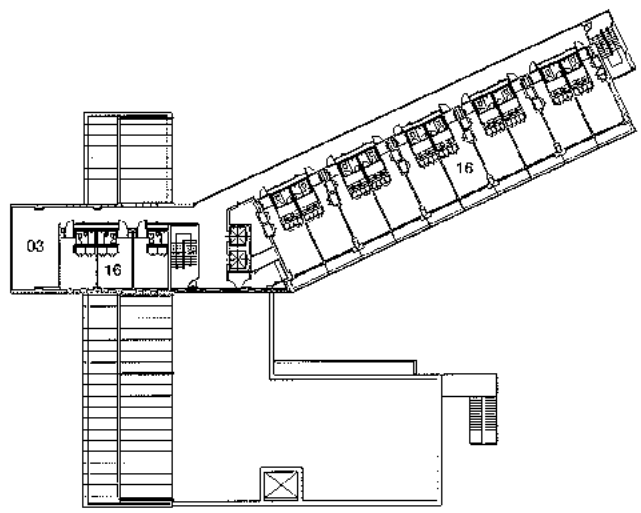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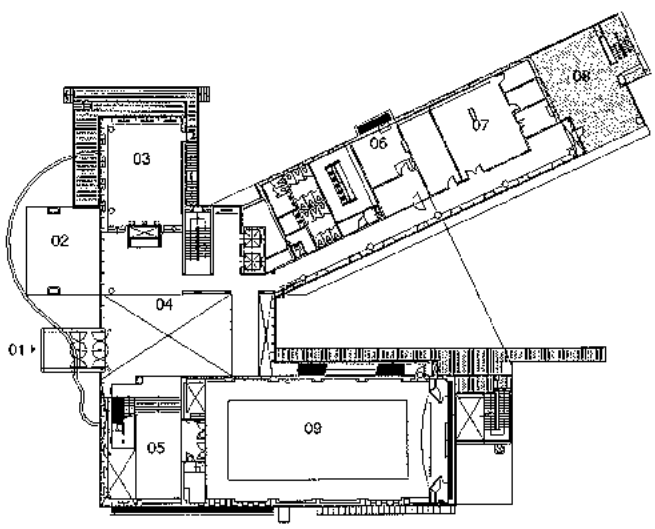
01_ 출입구
02_ 엔트
03_ 휴게실
04_ 로비
05_ 홀
06_ 중앙감시실
07_ 사무실
08_ 데크 및 옥외휴게공간
09_ 단체 활동실
10_ 사이버룸
11_ 특구장
12_ 헬스장
13_ 의무실
14_ 상담실
15_ 취미실
16_ 합숙소
17_ 옥상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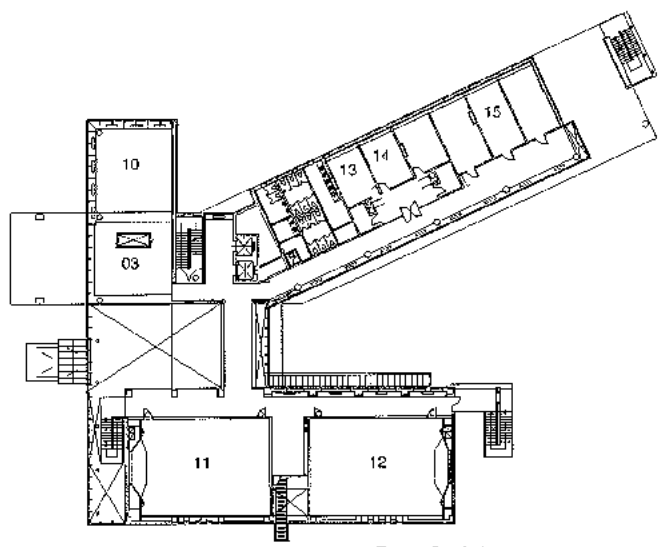
교육동 3층 평면도



교육동 4층 평면도



교육동 1층 평면도



교육동 2층 평면도

인계2호 공원내 공중화장실
Ingye Public Toil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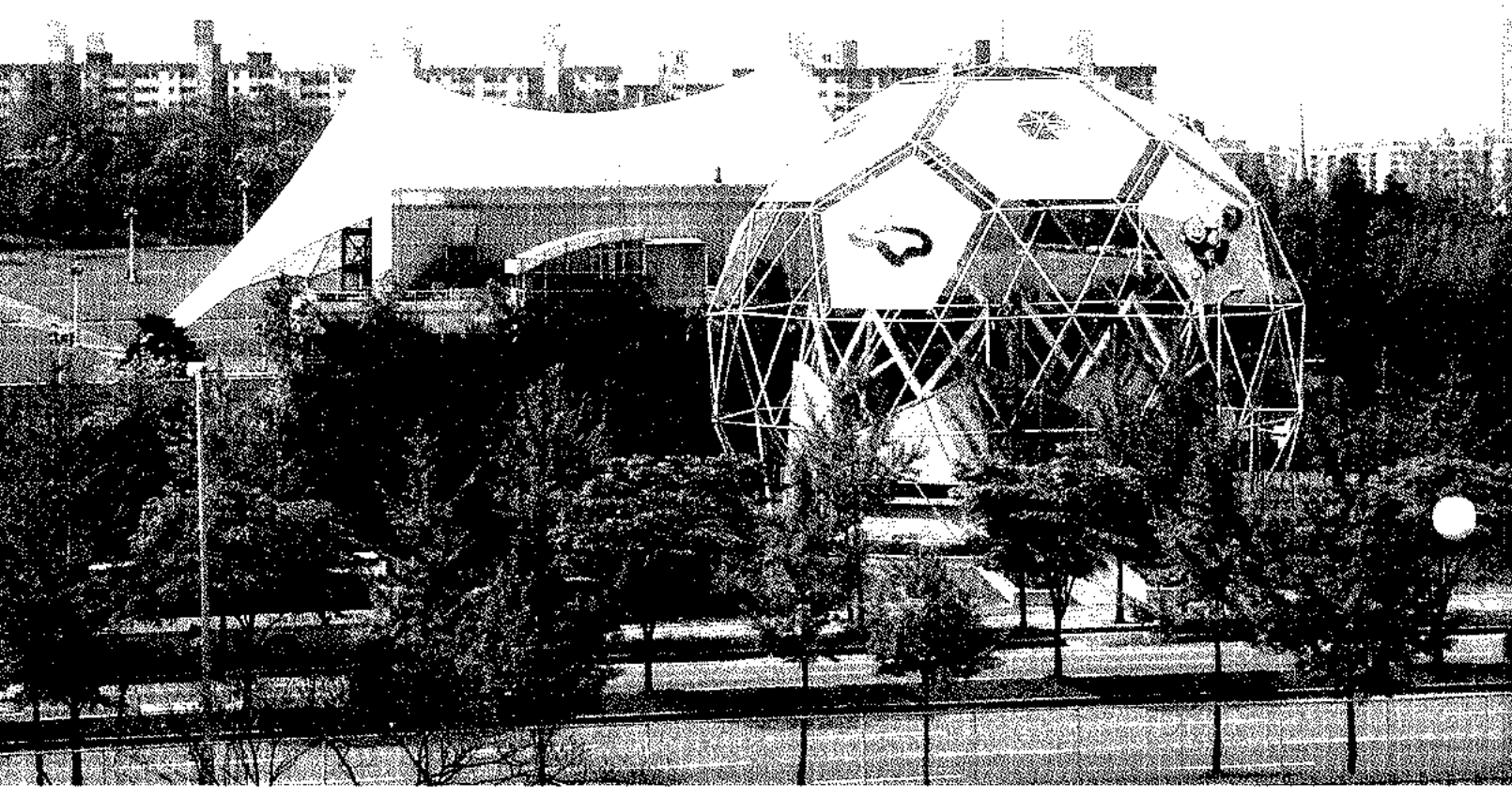
김동훈 / (주)진우종합건축사사무소
by Kim Dong-Hun

화장실 이야기

1998년은 나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해이다.

내가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청에서 공중화장실 건축계획공모(약 30~40평 규모)가 있다는 것이었다. 공중화장실 건축계획을 공모한다는 것에 흥미로워 한번 응모하기로 하였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지만 출품한 다른 작품들이 나를 도와준 것 같다.

여하튼 아주 작은 규모의 공모전으로는 내가 건축사 사무소를 창립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물론 설계비 또한 충분치 못했다. 더욱 난감했던 것은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려는 직원이 별로 없었던 것이다. 다행히 우리 회사에는 당시에 아주 야물딱지고 건축에 흥미를 가지고 임하는 장래 훌륭한 건축가가 될 것이 분명한 직원이 있어서 그 직원이 총대를 메고 이 설계를 담당하게 되었다. (결국 그는 이 설계가 종료된 후 얼마 되지 않아 대학원 공부를 사유로 사직서를 내고 말았다.) 발주청에서의 요구사항이 하도 많고 변경사항도 많아 아주 힘들었던 기억이 난다. 꼭 통나무를 재료로 써야 한다는 상부의 지시(?)에서부터 담당 공직자가 건축직이 아니다 보니 대화도 잘 안통하고 또한 화장실을 세우고자 하는 위치가 맘에 안 들어 위치를 옮기려고 노력한 생각을 하면 지금도 머리가 지끈거린다. 다행히 나중에 건축직 공직자가 참여하여 이것저것 잘 해결된 것 같다. 이 화장실이 그 유명한 반딧불이 화장실이다.



이 화장실이 제1회 아름다운 화장실에서 대상을 받은 것이다. 전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화장실로 대상을 받은 이후에 여러 매스컴에 소개도 되고 유명한 TV방송국 프로그램에도 방영되면서 서울시는 물론이고 대구, 제주 등에서 화장실에 대한 자료 요청이 쇄도했고, 그로 인하여 우리 회사는 화장실 잘 설계하는 회사로 알려졌다. (사실 화장실 설계용역이 회사경영에 큰 도움이 된다며는 나는 이책 저책에 홍보를 위한 게재 요청을 하였을 것이다.) 그로 얼마간 기간이 흐른 후 각 시도를 방문해 보며는 화장실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변한 것을 알 수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 또한 엄청난 변화가 있은 것을 여러분도 공감할 것이다.

생각만 해도 머리에 쥐가 날 지경이었던 반딧불이 화장실이 우리나라의 화장실 문화를 바꾸어 논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화장실에 관한한 더 이상 후진국이 아니다. 아니 선진국이 되었다. Wall Street Journal이나 BBC방송에서도 수원의 화장실 문화를 다룬 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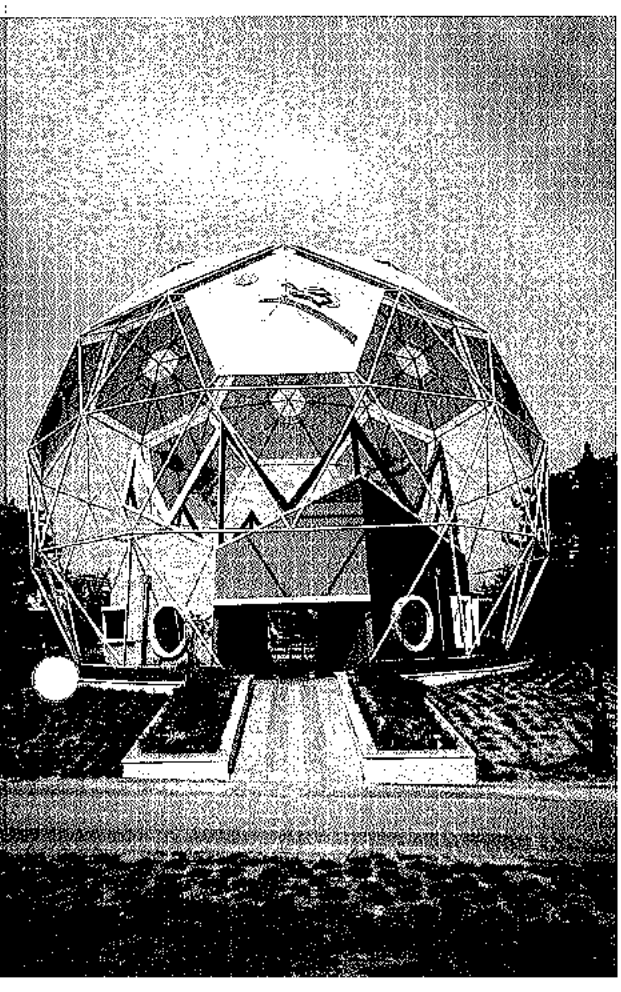
반딧불이 화장실이 한참 각광을 받고 있을 즈음 수원시에서 나에게 또 다른 지령(?)이 떨어졌다. 우리 수원시의 자랑인 야외 음악당과 경기문화예술회관 사이에 화장실을 계획하라는 것이다. 사실 그곳은 화장실이 세워지기에는 부적합한 곳이라 생각하였으나, 당시 우리 수원시 살림을 책임지고 계셨던 시장님 고집(?)이 보통이 아니셔서 장소를 변경하기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나는 고민에 빠졌다. 또다시 2년전 반딧불이 화장실 생각이 났고, 자칫 잘못하면 그때처럼 아주 유능한 직원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혼란스러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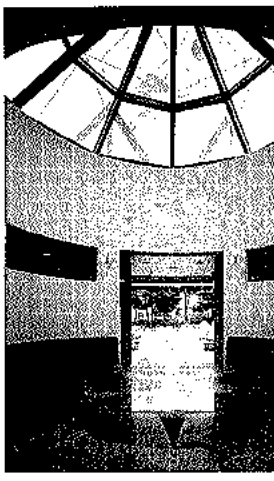
나는 두 가지의 기본 concept을 가지고 임하였다. 한 가지는 내가 생각한 2002월드컵을 상징하는 축구공이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회사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건축가 지영호씨의 야외 음악당과 연관해서 피아노 형태의 것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내가 보기에는 그 안도 아주 괜찮은 것이었다. 이 두가지 안을 가지고 시장님께 브리핑하여 결국은 축구공 모양의 안이 채택되었다.(사실 그때 나는 은근히 피아노형 안이 채택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야외음악당과 문화예술회관사이의 화장실은 화장실이 아니라 환경 조형물이어야 한다고 생각한 나는 그때부터 그 조형물(?)의 스케일 때문에 다시 고민을 하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가건물을 지어보고 싶은 생각도 해보았으나, 예산이 허락치를 않았다. 하는 수 없이 컴퓨터를 이용한 Simulation이 고작이었다. 사실 컴퓨터를 이용한 Simulation, 나는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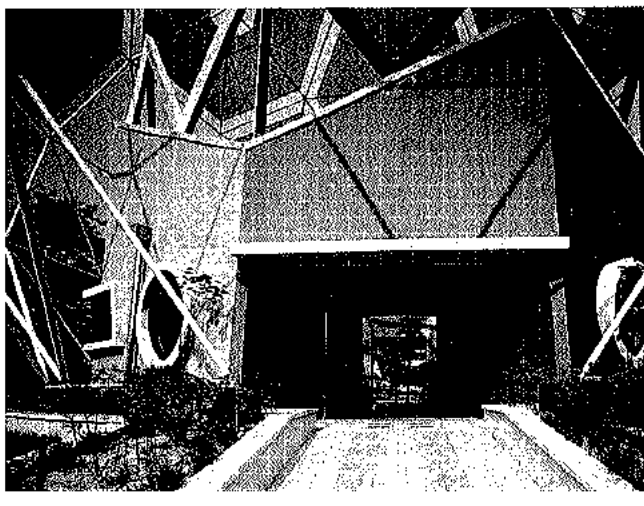
이제 이야기지만 나는 그동안 그 건립 예정지를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답사하였고 이곳 저곳에서 검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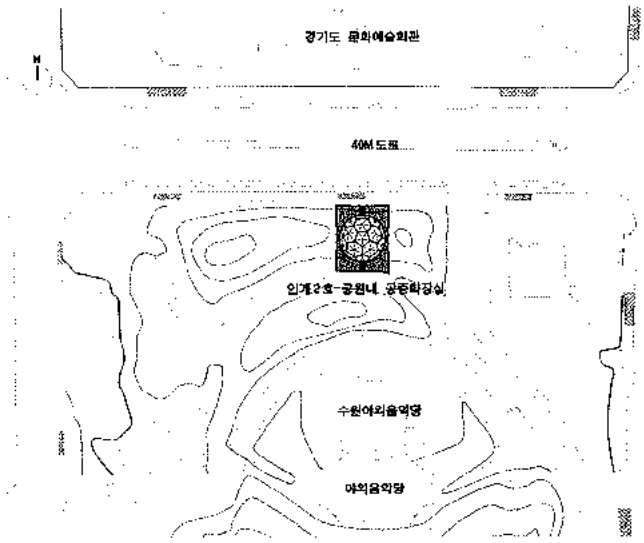
화장실만 걸리면 왜 이리 머리가 아픈지.....

어느 정도 확신이 선후에 설계에 임하게 되었다. 월드컵 전에 건립되어져야 한다는 담당자의 닥달에 또다시 피가 마를 것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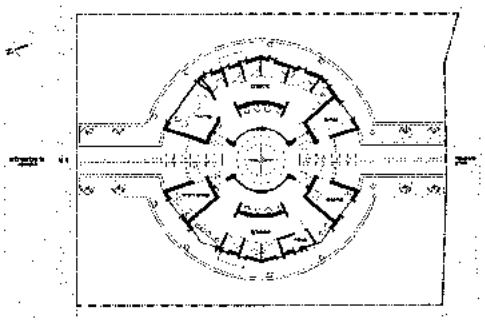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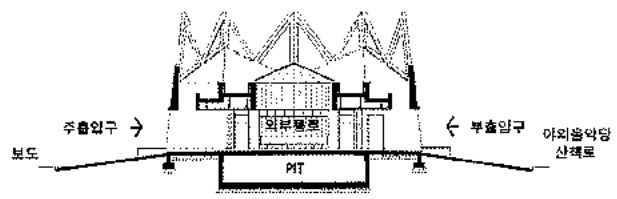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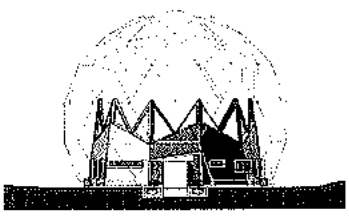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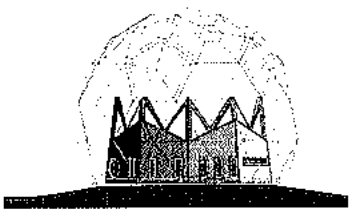
배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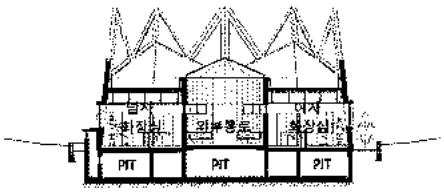




정면도



좌측면도



단면도

건 축 개 요

대지위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8번지
지역지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주요용도	관광휴게시설 (공중화장실)
대지면적	85,132.20㎡
건축면적	145.51㎡
연 면 적	119.66㎡
건 폐 율	4.37%
용 적 율	2.61%
규 모	지상 1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 스페이스 프레임
최고높이	16M
외부마감	외단열 토탈시스템
주요설비	난방 - 축열식 난방시스템
설계담당	김영삼, 김대현, 장석윤
설계기간	2000년 5월 ~ 2000년 7월
공사기간	2002년 4월 ~ 2002년 6월
사 진	채수옥

같았다. 사실 이왕에 지어질 것이라면 월드컵 전에 지어지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 나도 최선을 다하였지만 실패하였다.

얼마 전 국제 학술 세미나가 있어서 참여한 적이 있는데 국제회의장 홀에서 보이는 모습이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였다. 좋다. 정말 괜찮다. 그동안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힘들었던 기억이 이제는 상큼하게 느껴졌다. 이 화장실은 환경조형물이다. 어제는 아들 녀석이 야외음악당에서 활동하시는 음악가로부터 클라리넷을 배우는데, 내가 설계한 화장실 옆 벤치에서 만나서 아빠가 설계한 화장실 이야기를 하면서 장래 과학자가 되겠다는 아들 녀석에게 건축 과학자는 어떻겠느냐고 은근 슬쩍 떠 보았더니 반응이 괜찮아서 기분이 좋다. 참 이 화장실 이름은 공모를 하였는데 염원 화장실로 결정되었다. 월드컵이 끝난 다음에 준공이 되어서 몇 강 염원인지 모르겠다.

여하튼 염원 화장실은 지금 야외 음악당을 찾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그 화장실을 월드컵 개막전 전에 건립하기 위하여 주야로 힘들게 일하신 건설회사 현장소장님과 그외 기술자 여러분, 매일 같이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공직자 여러분, 감리를 맡아서 말없이 수행해 온 감리단장, 그리고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수원시에 감사한다.

공간 클럽 - 01

Space and Rooms

이재훈 /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by Lee Jae-Hoon

건축공간에 대해 막연히 동경하며, 좋은 건축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시간을 기억해본다. 그다지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 보인다. 어쩌면 건축주의 요구와 구조, 기능, 설비, 건축비의 문제에 매달려 좋은 건축공간이 가져야할 모습을 마지막까지 지키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건축가에게 꿈같은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해본 적이 없는 나만이 만들어낸 건축공간일 것이다. 그것은 영원한 건축가의 꿈이며,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건축인이 건축적 삶을 사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근래, 건축공간에 우선하여 형태적 유희나 재료의 표현, 프로덕션의 즐거움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경향이 보여지기도 하지만, 건축이 존재하는 고유한 영역은 결국 공간이라는 것에 모두 공감하리라고 생각된다.

젊은 시절 건축공간에 대한 향수를 달래며, 잊혀져가는 건축공간의 가치를 새롭게 일으키고자 공간클럽이라는 이름으로 건축공간에 대한 이런 저런 얘기를 던지려고 한다. 더러는 일반적인 이야기도 있겠지만, 소주제를 통해 건축공간을 전혀 새롭게 볼 수 있는 시각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필자 주〉

목 차

1회
a. 공간은 하나인가요?
b. 공간의 증거
c. 공간은 없다

2회
a. architectonic space
b. 노자의 공간개념
c. 5차원공간

3회
a. 누구의 공간인가?
b. 얼어붙은 공간
c. 서랍속의 공간

4회
a. 논리로서 공간을 이해한다.
b. 공간계놈지도
c. 공간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5회
a. 중성의 공간
b. 공간의 성격-공적공간
c. 공간의 성격-장소성

6회
a. 공간의 밀도
b. 공간의 위계
c. 공간의 전이

7회
a. 공간의 창조
b. 기억나는 공간
c. 쉬운 공간만들기
d. 공간실험

8회
a. served space & servant space
b. 공간의 종류
c. 공간의 극

9회
a. 공간의 경계
b. 공간의 관계
c. 공간의 모듈
d. 공간의 비례

10회
a. cyber space
b. space syntax
c. spatial behavior

11회
a. 공간속의 기둥
b. 씨나리오 있는 공간
c. 창으로 본 공간

12회
a. 공간계획
b. 공간디자인
c. 공간문법

공간은 하나인가요?
Space or Pl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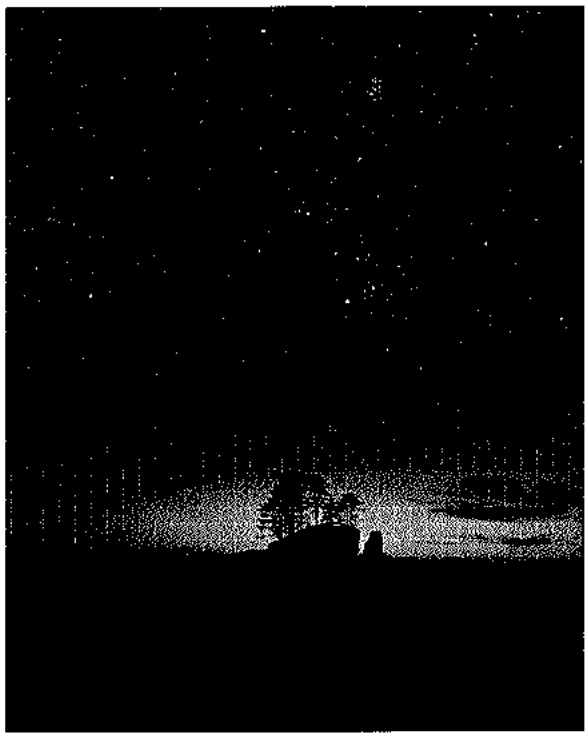


그림1 우주 공간 : Stephen Hawking's Universe

공간은 하나인가요? 아니면 공간은 하나, 둘, 셋, 그렇게 여러 개로 구분해서 셀 수 있나요?

우주와 우리가 사는 지구는 하나의 같은 공간인가요? 아니면 우주는 우주이고, 지구는 지구인 별개의 나뉘어진 공간인가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안방, 거실, 부엌, 건넌방, 이들 공간은 전체를 하나의 공간으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벽으로 나뉘어진 부분 부분이 각각 하나씩 구별된 공간이라고 보아야 하나요?

이러한 의문을 품는 것은 공간을 구성하는 입장에서 매우 다른 시작을 의미하게 된다.

공간이 하나인가요? 에 대한 답은 공간에 대해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플라톤은 공간을 무한의 절대공간으로 정의하였다. 우리가 서있는 이곳이나, 저 먼 하늘이나 별이 있는 우주나 모두 같은 하나의 공간으로 본다. 우리가 거주하는 공간이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간에, 우리가 다다를 수 있거나 없거나 간에 모든 공간을 하나로 본다.

공간을 하나로 읽을 때 공간을 구성한다는 뜻은 하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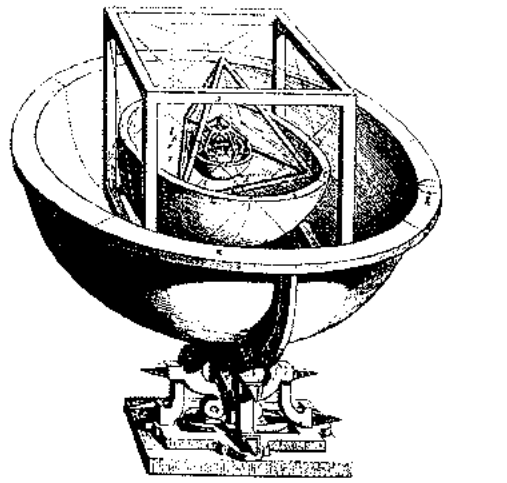


그림2 플라톤의 입체

어떻게 쪼개느냐(나누느냐)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수평선과 수직선이 시작점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림 3 몬드리안의 면분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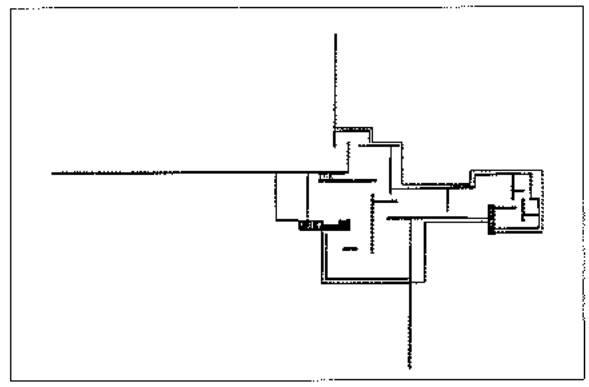


그림 4 기스의 공간 나누기

컴퓨터 속의 공간은 플라톤의 무한 공간 개념이다. 컴퓨터속의 무한 공간에 절대좌표를 집어넣고, 절대지점을 선정하고 그로부터 개별적인 조작에 의해 위치를 잡아간다. 그리드나 레이어와 같은 틀을 설정하는 것은 공간 나누기의 전형적인 방식이 된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공간을 유한한 경험속의 공간으로 정의한다. 우리가 서있는 곳과 다른 사람이 서 있는 곳을 서로 다른 공간으로 구별한다. 이 방과 저 방이 구별되며, 이곳, 저곳, 그곳 모두가 다른 공간으로 인정된다. 그의 뜻대로라면 공간이 무한한 것이 아니라 공간의 수가 무한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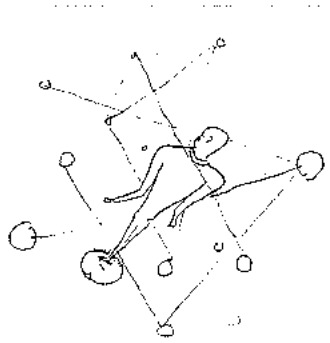


그림 5 공간에 대한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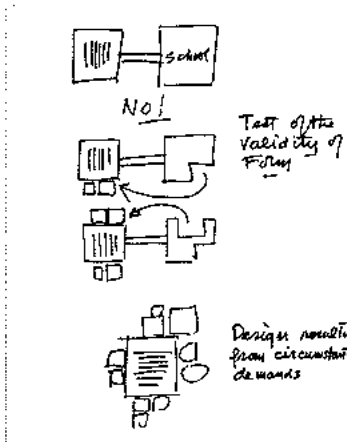


그림 6 루이스 칸의 방의 개념

그림 7 카메룬의 전형적인 추상집의 공간 구성

공간을 구별된 여러 개의 공간으로 읽는다면, 공간을 구성한다는 것은 공간과 공간의 관계를 어떻게 엮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된다. 하나하나의 공간은 의미있는 별개의 대상이며, 건축공간을 구성한다는 것은 이들 별개의 공간들을 어떠한 관계를 맺을 것이며, 어디에 놓을 것인가가 중요하다. 장소적 특성을 고민하는 것은 구별된 공간으로 보려는 시도이다. 방(Raum)의 개념으로 건축공간을 구성하였던 루이스 칸은 이와 같은 인식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공간을 하나로 보느냐? 여러 개로 보느냐? 하는 것은 정답을 추구하기 보다는 시각의 차이로 보아야 할 듯싶다. 이와 같은 생각은 건축물을 자연과 분리된 독립대상으로 볼 것인지? 자연의 일부로서 배경에 녹아드는 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정의되지 않는 자세와 상응한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러한 물음이 우리가 건축공간을 만들어 갈 때, 공간의 가치와 공간구성의 방법에 대해 보다 깊이 생각해 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공간존재의 증거
The Proof of Space Existence

공간은 만져지지 않는다. 공간은 쉽게 감지되지 않는다. 19세기 schmarsow 등 독일의 이론가들은 공간을 사물의 밀도가 굉장히 낮아진 상태라고 정의내렸던 적이 있다. 즉, 인간의 눈과 촉각으로 알 수 없는 공간을 이야기하기 전에 사물의 형태를 통해 형태의 밀도가 굉장히 낮아진 상태가 공간이라는 상대적 정의로서 설명하려고 한 흔적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그럴듯한 이론일 뿐 공간의 존재를 증명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눈에 보이지 않으며 만져지지도 않는 공간을 설명하기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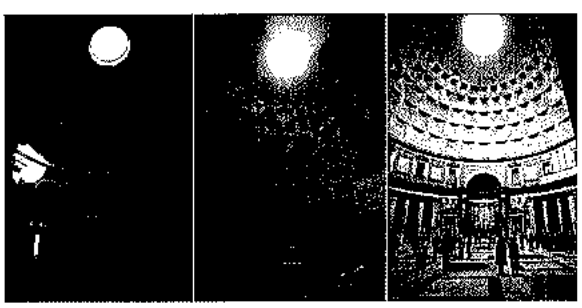


그림 8 Pantheon의 내부공간을 드러내주는 빛

그림 9 Oskar Schlemmer의 계단오르는 사람: 공간을 차지함으로서 공간의 존재를 인식

그렇다면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증거를 나타낼 수 있을까?

그 시작은 빛이라고 생각된다. 공간의 간은 한자로 間으로서 문(門)사이에 비추이는 빛(日)을 뜻한다. 어두운 장소에 틈사이로 비추이는 빛은 틈이라는 공간의 존재를 극명하게 드러내준다. 보이지 않던 공간이 빛이 비추임으로서 드러내져지며, 이로서 공간의 존재를 시각적으로 발견하게 된다.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빛의 활용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도 공간의 존재를 드러내고픈 근본적 입장을 보여준다. 근래 공간보다는 형태를 드러내기 위해 빛을 사용하는 건축가들을 보면 건축의 고유한 영역을 착각이라도 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공간의 증거를 보여주는 절대적인 것은 우리의 몸이 없다고 생각해보는 데서 올 수 있다. 우리의 몸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음으로서, 우리의 몸이 존재하듯 공간은 존재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문이 열려있을 때 그곳의 공간이 비워져있지만, 사람이 문에 서있으면 아무도 관통하지 못한다. 그 공간은 사람에 의해 점유되어 있는 것이다. 텅빈 계단을 상상하면서 계단 오르는 사람의 사진을 보면 사람이 있음으로서 공간이 점유되어짐을 알 수 있다. 즉, 사람이 차지한다는 것으로부터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상황이다. 너무도 간단한 진리

그림 10 거리가 느껴지는 앉아있는 두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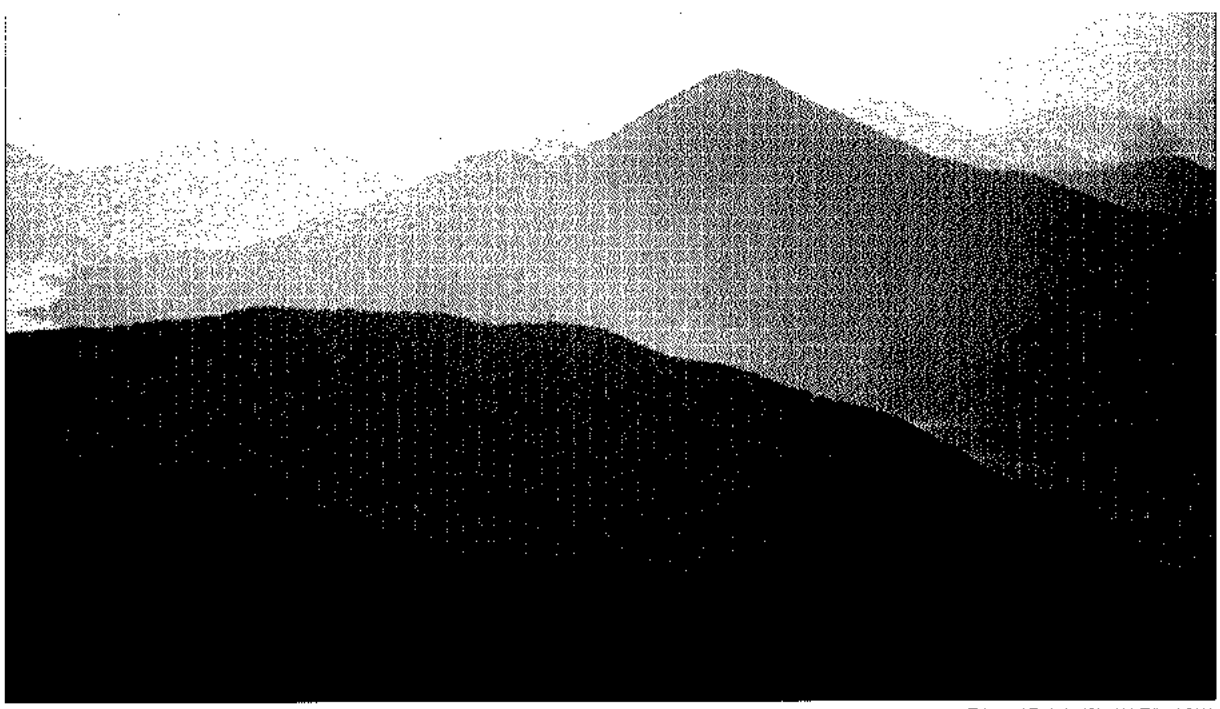


그림 11 종합된 산등신에 의한 사이 공간의 인식

지만 자신의 몸이 없음을 가정할 수 있어야 공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공간의 사용 면적을 원초적으로 따질 때 유용한 개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공간의 존재에 대한 인식적 연구결과로부터 공간의 존재를 알 수 있기도 하다. 형태와 공간을 뒤집어 생각해보고 그림으로 그려낸 Nolli 의 도시지도를 보면, 건물의 구조 형태가 존재하여 그림으로 표현되듯, 반대로 그림으로 표현된 공간을 통해 공간의 존재를 인식해 낼 수 있다.

공간을 쉽게 기능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경우는 거리로서의 공간을 느끼는 것이다. 앉아있는 두사람의 모습은 둘 사이에 거리라는 공간이 존재함을 느끼게 해준다.

어떤 경우엔 거리가 멀다고 느끼기도 하고 어떤 경우엔 너무 가깝다고 느끼기도 한다. 식당에서 줄을 선 사람들은 매표소에서 멀리 떨어진 위치로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매표소에 가깝게 전진하면서 거리로서의 공간의 변화를 느끼게 된다. 공간은 사이의 거리로 느껴진다. 공간을 거리로서 느끼게 하기 위해 건축가들은 거리를 구별해주는 방법을 사용한다. 거리는 두 눈의 간격차를 통해 인간에게 인지되는 것으로서 하나의 사물과 다른 사물 사이의 투시적 차이점을 통해 거리를 일깨우게 된다. 중첩된 산의 모습은 산등선과 산등선 사이에 비워진 공간이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다. 건축적으로는 담장의 중첩을 통해 이와 같은 효과가 쉽게 일어나며, 프레임 구조는 공간의 깊이를 드러내는 좋은 수법이기도 하다.

공간의 증거를 밝히고자 하는 것은 공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공간이 건축적 감동의 원천임을 확인하고, 건축적 공간의 창조에 심혈을 기울일 것과, 공간의 존재를 느끼게 하는 것이 인간의 심연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하는 바램에서 이다.

공간은 없다
Not Space, But Chi

동양학자인 도올 김용옥(金容沃)은 '나의 기철학(氣哲學)이 말하는 다자인' 이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건축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그러한 공간은 '없다' 라고 주장한다. 그는 기철학에 근간을 두고 볼 때, 존재하는 것은 하나의 대상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자체라고 보고, 인간의 삶 자체를 위시한 실재하는 객체가 모두 순간적(transient) 변화물이라고 주장한다. 즉 서양에서의 존재는 존재론(ontology)으로서 점유(onto)하는 것으로의 물체(substance)로 나타나지만 동양의 기철학에서는 기(氣)개념만 존재하며, 그 이외의 것은 다만 기의 발산과 취합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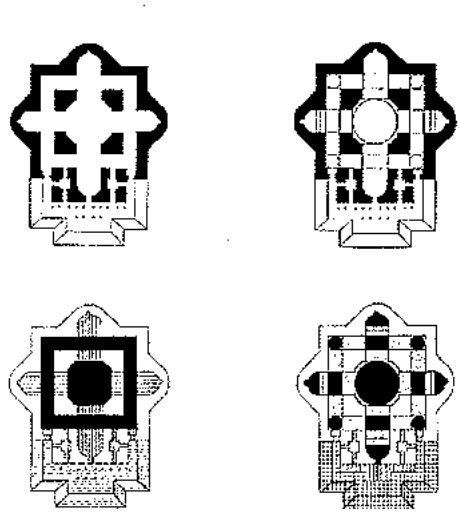


그림12 공간의 존재를 보여주는 St. Peter's 사원-그림 : Bruno Zevi

존재에 대한 동서양의 관념차이가 건축물에 대해서도 의

그림 13 기의 흐름으로 보는 공간 그림 안영배

미차이를 만들어 내고, 건축에 대한 설명을 차이나게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피라밋의 경우를 들어, 점유하는 대상물의 영원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서 전형적인 서양의 사고를 보여주고 있으며, 공간의 경우 서양건축은 벽이라는 요소를 통해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을 명확히 분할(구분된 존재로서)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반면 동양에서는, 건물의 존재가 기(氣)의 유통에 따르며, 따라서 공간도 내부공간, 외부공간으로 분할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기의 발산된 흐름으로 본다. 그리하여 한옥에서 얇은 창호지 한 장으로 안팎을 연결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서양적 존재론(ontology)으로서 공간이라는 개념은 한정되며 분할될 수 있는 공간이지만, 기철학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한 '공간은 없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매우 독자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기존의 서구적 관념의 건축이론에서 주장하는 공간이론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양에서 공간이라는 개념은 19세기 리글(Riegl), 슈마소우(Schmarsow) 등이 바로크, 로코코 건축에서 보이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으로, 비 물체인 공간에 대해 인식하게 한 계기를 만든 것으로서, 건축사에 있어서 중요한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간개념은 흐르는 공간, 유니버셜 스페이스, 공간의 연속 등으로 설명되는 20세기 근대건축운동(Modern Movement)의 발생과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기디온이나 브루노제비 등은 공간개념으로서 서양건축사를 재편함으로써 공간을 건축의 핵심적 대상으로 부각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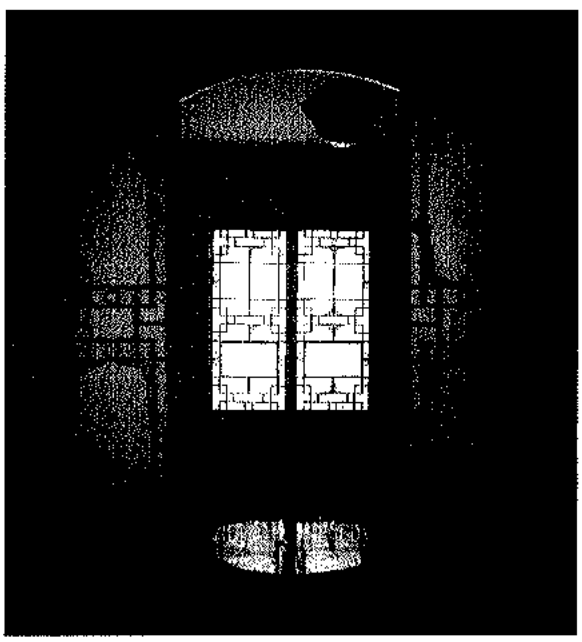


그림 14 반투명의 창호지를 통해 내외부 공간의 기 흐름을 연결했다고 해석되는 곡선재 안휘문과 칭

오늘날 현대건축가들은 그들의 작품을 설명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공간의 개념을 이용하고 있다. 피터 아이젠만의 공간구조의 해체와 프랭크 게리의 공간경험의 의외성 등은 모두 공간을 기반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공간에 대해 부정한다는 것은 생각해보기 힘든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노력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서양에서의 공간은 놀리(Nolli)의 지도로 표기되듯이 피라밋의 물체에 대응되는 비 물체로서 존재하는 하나의 대상물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여기서 두개의 쟁점, 도올 김용옥의 공간은 없다-공간을 기존재의 흐름의 일부로 보는 것-와 공간을 하나의 대상물로서 보는 것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쟁점은 존재에 대한 가정의 인정여하에 따라 전혀 다른 의견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이 자리에서 논의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된다. 다만 건축에 있어서 공간을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는가 그 사고의 영역 확장에 초점을 두고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즉, 건축에서 공간이 갖는 의미와 역할, 기능적 유용성과 폐해의 측면에서, 20세기뿐만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서 논의해 볼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하겠다. 보이지 않는 공간을 존재의 영역에 포함시켜 인간이 다룰 수 있도록 도구화한 서양건축이론이 실질적으로 인간에게 많은 도움을 주어왔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나, 기계적 동작으로 프로그래밍되는 캡슐공간, 구조와 형식, 의미의 변화에 의해 유형화되는 건축공간, 에너지가 충족되고 인공적으로 환경이 콘트롤되는 인공도시 등은 공간을 하나의 대상으로서만 인식하고, 결국 공간을 인식된 자체의 자율성에 의해 통제함으로써, 인간의 삶과 자연, 나아가 증명되지는 않았으나 있을 수 있다고 제기되는 기와 공간의 연관된 의미-즉, 공간 자체만으로는 충족하지 못하는 의미-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건축에 대한 문제의 핵심을 벗어나 왜곡된 구조를 만들어 낼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도올의 논리가 추상적이며 쉽게 감지되지는 않지만 21세기 지구환경으로 시야를 넓혀 생각할 때, 공간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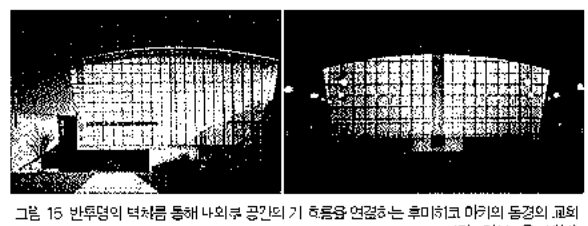


그림 15 반투명의 벽처럼 통해 내외부 공간의 기 흐름을 연결하는 후미히코 아키의 동경의 교회 (좌: 외부, 우: 내부)

우리는 이 시대의 고전을 만들고 있는가

Are we Making the Classics of this Period?

김낙중 /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건축사
by Kim Nark-Joong

건축은 인류문화유산 중에서도 제일 큰 위치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최소한 제일 덩치가 큰 문화유산이라는 데는 거의가 동의할 것이다.

건축에는 그 성격상 그 시대의 사회 제현상과 문화 예술적인 면 뿐 아니라 과학 기술적인 면까지도 기록되고 있다. 결국 건축에는 그 시대의 삶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어느 올륭한 건축가의 의도가 아니라, 인간의 삶에 관계된 다양한 기능을 수용한다는 건축의 근본적인 존재근거에서 기인된다. 엉뚱한 이야기 같지만, 이러한 문화유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긴 세월에 걸쳐 견뎌 낼 수 있는 물리적 내구성이 필수조건이다. 그래서 후대에 지각될 수 있는 물리적 실재로서 우뚝 서 있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고전에서 시공을 초월한 감동을 느낀다.

전문가들은 그것을 철학적, 사회학적, 인류학적, 미학적, 기술적 등의 각종 관심분야에서 분석적으로 대하겠지만, 그 외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주는 시각적 감동을 즐길 것이다.

고전들은 그 구성에서 그 시대의 정신, 사회 제현상 등의 인문학적 기록을 내포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그것의 형태나 재료 등을 통하여 예술적 감동을 주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 의한 예술적 감동은, 우리에게 사전지식이나 준비 없이도 일차적이고 즉각적으로 다가오는 것으로서, 인간 개개인에 따른 다양한 감수성을 인정하더라도,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동의 보편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즉각적이고, 시각적인 감동을 주는 고전의 내용에는 그 시대 장인들의 예술적, 기능적 craft외에도 오랜 세월 풍화되면서 재료의 표면에 남아있는 세월의 기록들이 있다. 이는 건축가의 의도와 관계없이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감동이다. 감각적인 것이 아닌 우리의 인식을 통해 들어오는 그 시간성에 대한 감동이다.

이것은 그 재료의 쇄락함이 아닌 숙성됨에 의한 표현의 결과다. 이를 통하여 자연학적 관점의 재료는 인식론적 관점의 물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런 점에서 앞서 말한 문화유산의 물리적 내구성은 엉뚱한 이야기가 아닌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된다. 그래서 고전의 반향은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 곁에서 항상 감동을 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현재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건축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과연 우리는 후대에 문화유산으로 남을 만한 이 시대의 고전을 만들고 있는가?

고전의 조형성은 양식이라는 틀 속에서 검증되어 왔으며, 양식은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다듬어진 형태이다.

따라서 고전은 조형적으로 아름답고, 그 당시의 건축 생산 방식은 디자인과 만들기를 함께 하는 장인(design builder) 들에 의해 건축이 생산되었다. 즉 예술과 기술이 분리되지 않은 통합적 생산 체계에 의해 건축이 만들어져 왔다.

그래서 고전은 뛰어난 장인들의 예술적, 기술적 craft에 의해 아름다운 조형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설계자와 건설자가 분리된 현대는 그 양상이 매우 다르다. 설계자는 디자인을 책상머리에서 궁리하는 자가 되었고, 건설자는 도면에 의해 공사를 집행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설계자는 장인으로서 내밀하고도 중요한 디자인정보를 전달할 수가 없고, 건설자는 도면에 있는 기본정보에 의해 이윤 극대화를 위한 효율성 위주의 공사를 하면 된다.

결국 기본 정보만 있는 설계자의 도면은 기본법이요, 건설자는 기본법 이외에는 지킬 필요가 없이 경제성,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반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도면을 아무리 자세히 그려도 내밀한 장인정신과 건설중에 발생하는 우연성에 대한 대안을 표현할 수 없고, 공사를 아무리 꼼꼼히 하려해도 자기가 못 미치는 내밀한 craft를 구현해 낼 수 없다. 현재의 다양하고, 복잡하고, 대형화된 건축물에서는 더더욱 이런 기대를 하기 어렵다.

경제, 능률주의라는 현대사회의 풍조 속에서는 더욱 이런 기대를 하기 어렵다. 이런 가치관속에서 재료도 전통적인 재료에서 화학적 합성물로 대체되고 있으며, 이런 것들의 내구성은 더욱이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세월을 기록할 수 있는 나무, 돌, 벽돌 등에서 철, 유리, 콘크리트로, 또 타일, 타일과 같은 돌판, 플라스틱, 각종물질의 성형품으로 그리고 이제는 겉모습만 이런 재료들을 프린트한 각종 화학제품으로 대체되고 있다.

이런 재료들은 후대에 남을 만한 내구성도 없고, 모두 무늬와 내용이 다르다.

재료는 있는데 인식론적 관점의 물성은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양적으로 볼 때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주도적 건축물은 아파트이다.

경제, 효율성에 의해 획일적으로 콘크리트에 페인트가 칠해진 벽식 구조의 사각형의 형태로서, 전면에는 전체가 발코니이며 그것도 대형 유리로 막혀져 있다. 어느 환경 어느 장소에나 이 틀은 변함이 없다. 미학적 배려에 의한 조형성은 찾기 어렵고, 법규와 대지형태에 따른 용적 극대화 · 이윤극대화를 위한 분절만 있을 뿐이다. 과연 이들은 이 땅, 이 도시가 주는 message를 투영하고 있는가?

관대하게 이런 현상이 이 시대 상황의 어쩔 수 없는 반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건축에 대한 존재론적 관점을 회복하면서 이 시대의 고전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과연 이 땅이 무엇을 원하고, 현재의 효율적으로 발달된 기술과 재료에 내재된 정신이 무엇인가, 그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건축일상(建築日常)

Routine of Architecture

이공희 / 국민대학교 건축대학 전임강사, 건축사
by Lee Gong-Hee

이젠 그만 함직도 한 되풀이해온 고민을 요즘 새삼 한다. 아마 내일부터 같은 고민을 다시 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요번만은 이 고민의 끝을 좀 따라잡아 그놈 앞에 서봤으면 하는 잠깐의 오기도 습관이 된지 오래다.

요번엔 또 이것 때문에 지난 1년에 반쯤을 한동안 허둥대었음을 고백한다.

하긴 '들뢰즈/Deleuze,Gilles' 다 '푸코/Faucault,Micchel Paul' 다 '자크데리다/Derrida,Jacques' 를 들먹이는 일이 건축에서만도 시작한 때가 한 10년은 훌쩍 넘어선 일이고 보면 구닥다리를 들고 또 헷갈려 했나 하는 괜한 자존심으로 지금 한심해 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그 고민에 출발의 요지는 에포크/epoch 전환시기만 되면 흔히 나타나는 '역사궤도' 의 생리나 습관으로 보면 그저 지나칠 수 있는 일인데 늘 예민하다.

그 중 한 단락을 기억하면,

'우리가 이제껏 보아왔던 형상은 겉으로 드러난 상자외곽의 주름선 일뿐 그 형상을 위한 접혀짐, 그 상자 안을 보는 일에 소홀했다. 그런 연유로 혹여 모든 현상과 본질이 무엇엔가 가려져 볼 수 없었고, 그래서 이제껏 본 것은 진실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간 건축에서 제외되었던 부분들이 우선가치가 되어 건축 속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해주며, 그것으로 인해 생겨난 건축은 이전의 것과는 다른 새로운 건축적인 사고와 맥락으로 풍경을 이룬다. 이는 신과학에서 'fold' 를 물질의 최소 단위를 이루는 에너지의 구조적 형태라고 하는 주장을 근거로 들뢰즈는 라이프니츠의 철학을 설명하면서 'fold' 란 세상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이며, 세상을 편재(遍在)하는 것' 이라는 요지의 글이다.

이런 가억으로 인해 혹여 어느 날 하루아침에 어제까지 믿었던 진실이 '진실이 아니었다' 라고 하였다면 그 후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적어도 이 땅에서 시대정신쯤을 기억하고 그것에 견주어 자기 건축을 할라치면 몇 번은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하곤 한다. 아니 내가 그랬다.

하긴 문화를 만드는 생각이란 늘 변화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 변화의 반을 뚝 잘라서 생각하더라도 그렇다. 파스칼/Pascal, Blaise과 몽테뉴/Montaigne Michael Eyqum de조차도 진리탐구에 대한 전통적 입장을 고수했던 시절에 데카르트/Rene Decartes는 이에 관한 객관적 인식에 대한 개념을 전환함으로 근세를 부흥 수 있었다고 한다.

그렇게 만들었던 인식론조차도 실질세계와 인간사고 간에 필연적인 연결점을 찾는데 실패하였지만, 흄/Hume David의 상대적 회의론으로 돌파구를 찾았고, 이는 19세기 근대에 이르러서는 칸트/헤겔의 인식론에 대한 해석의 틀에 대해 다시 전환을 보였다.

결국 니이체/Nietz에 와서 이성주의 인식론에 쐐기를 박으며 '인간은 인간을 알 수 없다' 로 장구한 '너 자신을 알라' 의 서구철학은 그 힘을 잃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저러한 연유에 기반하는 그렇게도 철옹성으로 여겨왔던 근대건축도 서구철학의 힘없음에 편승하는 운명이었음을 안다.

후기구조주의자/Post-structuralist 또는 신니이체주의자/Neo-nietzscheans들은 서양의 사고체계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그렇게 사고의 변화에 성공한다.

니이체의 언어에 대한 기본적 통찰을 계승한 데리다는 말이 먼저 생기고 글이 문화를 전달하는 차이를 문제삼는 소쉬르의 구조주의 언어학으로 연계한다. 결국 언어란 우리에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오히려 언어 자체가 실제와 상관없이 우리의 사고와 인식을 규정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식의 해법을 끊임없는?차연에 관계/relationship of difference로 보아야 한다?라는 대목에 오면 문화와 언어의 변방에서 이젠 이 건축을 어찌해야 하는 형편에 이를 때도 있었다.

일제 때 공부하여 해방 후 비로소 실제 건축에 기여한 세대가 원인이 되고, 주로 60년대 이후 한국 건축의 진흥을 이끌어온 세대의 건축 속에서 건축교육을 수혜받은 세대다.

대학 졸업 후 맞닥뜨린 실전의 80년대 시장은 크게 두 가지 메시지였다.

그 하나는 기술이 갖는 합리적 가치와 순수주의적 시각적 가치를 갖는 모더니티와 과거를 예상하여 수용해야하는 중압이다. 즉 지역적이며 토착적인 방법을 재평가하려는 경향에 편승하여 논의된 이른바 전통논의도 19세기 서구건축의 양식적 절충주의 맥락을 같이하는 양식의 수용현상쯤으로 희석되었고, 그 이상의 의미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것 역시 양식의 재구성이란 논리적 측면에서가 아니라 양식의 집합이란 레벨에서 논의되고 창작되었기 때문에 그 본래의 성과를 얻지 못한 채 유독 형태체계의 개념으로만 관심된 본질이외의 것으로 느껴야 하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탈근대로 향하는 후근대 정신이다. 일의적 가치에서 다원의 가치로 이미 홈뻑 젖은 90년대 건축시장에 대한 생소함, 특히 그 시대건축에서 흔히 본 속절없는 삐딱선이 자연스런 연유의 건축으로 이해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하여야만 했다.

아직까지 그 생소함이란 내가 그리면서도 익숙하지 않음은 접혀진 주름선만 아직도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 속에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젠 도구마저도 디지털 환경으로 자리를 내주었고, 가상과 실제를 넘나드는 ON/OFF환경은 건축에서도 더 이상 경계까지도 흐릿하게 하여 혀락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경계사이에 관심하기도 한다.

1950년대 이후 10년 주기성을 보여준 건축에 향위는 우리 환경에서도 분명 후기 구조주의의 사유 안에 있다. 그 10년生이란 형태의자에 대한 탈 모던적인 전환의 50년대, 자유정신에 의한 대중문화 운동기의 60년대, 합리주의 정신에 의한 기술과 고전의 변환기의 70년대, 네오-다다적 신주관주의기의 80년대까지를 이른다. 공감하는 바와 같이 90년대에 이르러 다원적인 가치로 보여주고 있는 트랜드를 총체적으로 구분하여 일갈하기란 그리 예사로운 일은 아니다.

실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흘러갈 일이라면 그렇게 복잡할 일도 없고 뱃속까지 편할 일이다. 하지만 작금의 건축은 그리 호락하지 않은 것 같다.

어느 날 다가온 프로리안 베이겔/Florian Beigel은 미스와 꼬르뷔제와 함께 한스 샤로운을 같은 반열에 올리면서 슈타트란트샤프트/Stadlandschaften란 개념을 소개한다. 본디 샤로운은 도면을 보고 이해하기가 좀처럼 어려운 다소 복잡하고 기이한 건축을 구사하고 베를린 필 하모닉 홀, 베를린 국립도서관 정도의 건축가로 기억한다.

슈타트란트샤프트-도시조경이란 모호한 컨셉은 내외부 공간의 구분 없음을 주장하는 요지였고, 그래서 외부가 진작에 내부화하고 있었음을 깨우치는 일도 있었다. 더 기막힌 것은 렘쿨하스 쥬씨도서관 설계경기에서 보여준 지형공간은 슈타트란트샤프트가 훨씬 더 광범위한 교감으로 아예 지형이 올라와 공간 속에서 나선형을 그린다. 이는 자에라 폴로/Alejandro Zaera Polo의 명동성당 설계경기안을 대할 때 작금에 남의 건축이므로 둔감함에 익숙한 것이 바로 우리 현실에 실천되고 있음을 깨닫는 충격-뭐 그런 경험도 있었다.

1932년 뉴욕MOMA에서 새로운 양식이 아님을 선언하면서 열렸던 국제건축전과 같은 형식으로 약 60년후에 또 새로운 양식이 아니라며 열렸던 Lighting Construction전은 지구가 6천년 별다른 대안 없이 극복하지 못한 포스트-린텔 구조를 벗어날 수 있는 개념인가 한 적도 있었다.

지금은 흔해져버린 중력, 도형의 발견, 데이타, 제3의 조작, 조직의 이식/grafting, 각기 기능을 묶는 편한 도구였던 복도가 없어진 Corridorless, Emptiness, 최근에 손에 쥔 글 속에 시설/Institution이란 개념.... 혼돈의 근거는 너무 많다.

불안하다.

이 땅에서 건축을 한다는 일이 얼마나 불안한가.

자신의 생각을 신념으로 포장하여 남에게 전하고 설득해야하는 건축이어서 더 불안하다. 그리고 실체로 증명되기 때문에 더 더욱 불안하다.

그래도 지금 내가 건축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다소간 지적 사유를 유보해놓더라도 건축이 가능했던 시기보다는 그저 좋을 것이라는 확신 또는 오기 때문이다.

건축계소식 / 75
현상설계 / 84
해외잡지동향 / 96
세무안내 / 102

건축계소식 archi-net

건축설계 · 감리제도 정립을 위한 공청회 성료

찬 · 반 격론…명확한 '감리' 규정 시급에 공감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가 공사감리를 함께 맡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건축사회는 지난6월 10일(화) 공청회를 개최해 건축계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울건축사신문 창간 1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한 이번 공청회는 한나라당 서상섭 의원 등 31명의 국회의원들이 지난 5월 16일 '건축설계 · 감리 건축사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건축법 개정법률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한 데에서 비롯했다.

발의의원들은 현행 건축법 아래에서는 건축설계를 진행한 건축사가 공사감리를 함께 맡을 수 있어 위법 · 부실한 건축물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해 개정안에 설계와 공사감리를 담당하는 건축사를 분리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의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건축사업계와 감리업계가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번 공청회에는 우리 협회 회원들은 물론 학계, 관계 등 여러 분야의 참가자들이 참석, 이 사안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여주었다.

공청회는 최영집 서울건축사회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됐는데, 토론자로는 김용철(반건축) 박순종(인천시건축사회장) 이필훈(주 · 태두건축) 조충기(간향건축) 주수일(주 · 주수일건축) 회원과 박항섭(경원대 건축학과 교수)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은 '감리'를 ▲설계를 완성 발전시키는 설계감리 ▲공사의 안전과 품질 등을 관리감독하는 시공감리 ▲행정적 법적 조사검사영역인 행정감리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감리는 설계업무의 완성에 있어 꼭 필요한 것이지만 타인의 행위를 대신 수행하고 있는 조사검사 등의 행정감리에 대해서는 분리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현재 여러 시 · 도에서 시행중인 특별검사원제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최종 1회 검사가 아닌 예비검사제를 도입하는 방법도 제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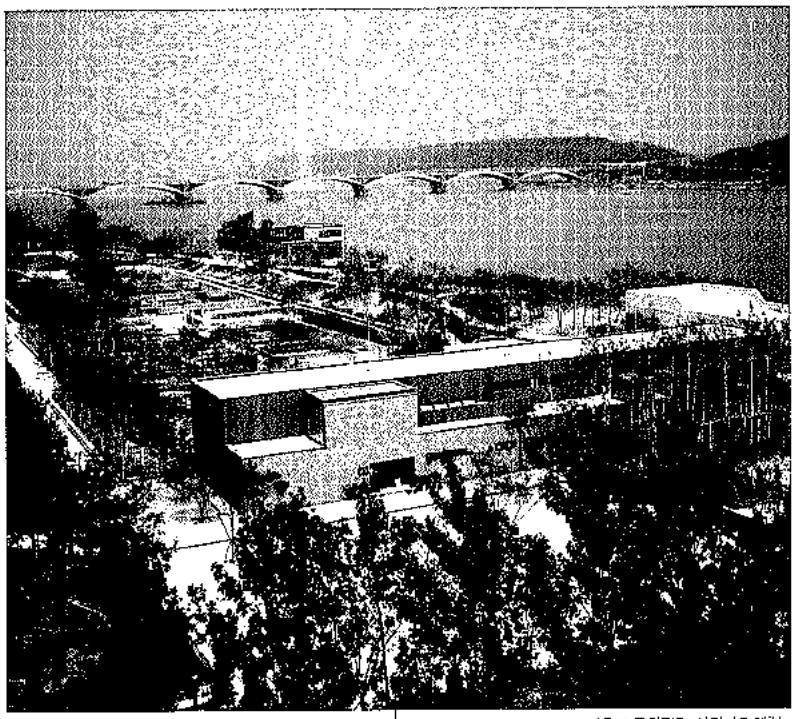
이날 방청객으로 자리한 서상섭 의원의 보좌관 류경재 씨는 "설계와 감리를 분리하는 나라는 우리 나라 밖에 없다. 이러한 입법제안을 하게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오늘 공청회를 비롯해 각계의 의견을 좀 더 심도 깊게 연구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청회 행사장인 협회 강당에는 서울건축사신문 창간 11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 그동안 정승덕(근정건축) 회원이 담당해 온 서울건축사신문 만평 전시회가 펼쳐지기도 했다.

설계 · 감리 건축사 분리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개정법률안이 건축계 핫 이슈인 가운데 서울 건축사회는 공청회를 개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했다.

제14회 김수근 문화상 수상작 발표

수상작에 「선유도공원(정영선+조성룡) 선정



선유도 공원전경(사진 / 김재경)

올해로 14회를 맞이한 김수근 문화상 수상작으로 선유도공원(정영선+조성룡)이 선정, 발표됐다.

이 상은 건축가이자 공간(종로구 원서동 219)의 설립자인 故 김수근 선생의 4주기를 맞이한 1989년에 김수근 문화재단(이사장:윤승중/원도시 건축사무소대표)에 의해 제정되었다. 김수근 건축상은 건축가이면서도 남다른 애정으로, 공간을 축으로 삼아 이땅의 문화예술의 열매를 맺기위해 열의를 쏟았던 고인의 뜻을 기리는 것이기도 하며, 국내에 많은 시상제도가 있지만, 사회에서의 명확한 위상설정과 그 권위와 흥미가 신선해야 한다는 재단 내부의 의사결정에 따라 건축, 미술, 공연예술의 세 분야에 걸쳐 당해년도에 괄목할 만한 활동을 한 작가의 업적을 평가하여 수상을 하였으나 1997년부터 건축부분만 시행하고 있다.

올해 수상작은 김수근문화재단 건축전문위원회(김영준/김영준도시건축, 김종규/한국예술종합학교, 김준성/himma건축, 이종호/스튜디오에타 이상 4인)와 심사위원회(김광현/서울대, 김봉렬/한국예술종합학교, 박길룡/국민대)에서 추천된 5개의 작품(선유도공원/정영선+조성룡, 철암작업/주대관 외, 무주작업/정기용, 숲이되는마을/조병수, 전통문화학교/민현식)중에서 전통문화학교/민현식, 선유도공원/정연선+조성룡 이상 2작품이 최종심사 후보작으로 선정되었으며 심사위원회에서는 '선유도공원/정영선+조성룡'을 최종 수상작으로 결정하였다.

선유도공원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풍경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일이며 도시공간의 자연회복에 대한 밝은 희망과 상징성을 담고 있는 21세기 도시환경계획의 한 방향을 제시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게 되었다. 한편, 지난 6월 14일 오후 1시, 원서동 공간사에서 제14회 수상작 시상식 및 제13회 수상자 초청전시회(황일인)개막식이 함께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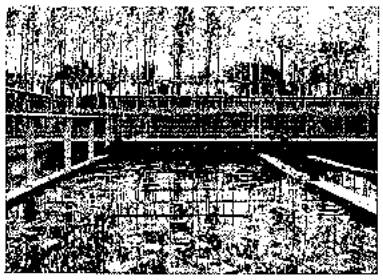
〈역대수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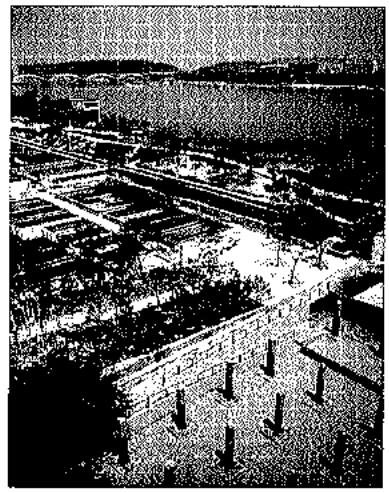
제1회 강석원(건축), 윤형근(미술), 이경숙, 김매자, 임영웅(공연예술/공동수상), 제2회 이원교(건축), 오경환(미술), 베데스다현악4중주단(공연예술), 제3회 민현식(건축), 박영남(미술), 오태석(공연예술), 제4회 승효상(건축), 김호득(미술), 남정호(공연예술), 제5회 우규승(건축), 박정환(미술), 조수미(공연예술), 제6회 이종호+양남철(건축), 박석원(미술), 정치용(공연예술), 제7회 김영섭(건축), 오수환(미술), 이건용(음악), 홍신자(무용), 이승규(연극연출), 유인촌(배우), 제8회 故 장세양(건축), 제9회 유걸, 제10회 손학식(건축), 제11회 승효상(건축) 제12회 김종규(건축), 제13회 황일인(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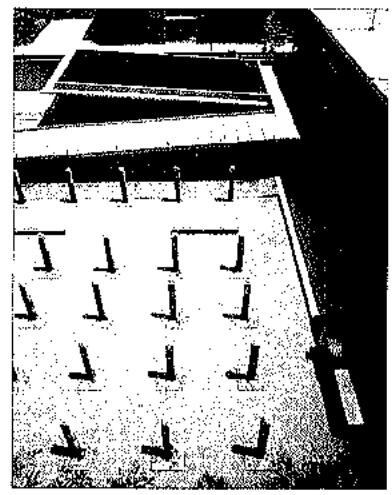
〈14회 수상작〉

- 프로젝트명 : 선유도 공원
- 건축주 : 서울특별시
- 설계자 : 영선/조경설계서안, 조성룡/조성룡도시건축
- 대지위치 : 서울시 영등포구 양화동 95번지 외 64필지
- 주용도 : 공원, 전시시설 및 공원부속시설
- 대지면적 : 106,378㎡
- 건축면적 : 3,769.70㎡
- 연면적 : 6,968.706㎡
- 규모 : 지상2층 지하1층, 주차=총52대(옥내43대 옥외9대)
- 주요마감: 점토벽돌, 적삼목, 아연도골판, 수지프라스터 뿜칠, 투명유리, 반투명유리, 압출성형시멘트판, 리버스톤
- 공원계획 및 설계: 정영선,성종상,박승진,정우건,유승렬,고희정,정태영/조경설계서안
- 건축설계: 조성룡,정상철,김경희,백은정,박창수,류근수,고경호/조성룡도시건축
- 협력설계: 다산컨설턴트(수리,수문), DN건축/도시구조기술사사무소(구조,안전진단), 한양전설/한양TEC(전기설비), 이온디자인/뉴라이트(조명), 고도기술사사무소(기계설비)
- 감리: 토펙엔지니어링
- 공사: 봉래종합건설,광진건설,화인종합건설,유성건설,나성토건

· 전시사설: 금강기획
· 설계기간: 1999. 11-2000. 8
· 공사기간: 2000. 12-2002. 4
· 준공연도: 2002. 4


수생원


정원전경


녹색원

〈심사평〉

2003년도 김수근문화상의 대상 작품을 위하여 2003년 4월 24일, 김수근문화상 전문위원회의 김영준, 김준성, 김종규, 이종호는 다음의 5개 후보 작품을 골랐다. 선유도 공원(정영선+조성룡), 철암 작업(철암지역건축도시작업팀), 숲이 되는 마을(조병수), 무주 작업(정기용), 전통문화학교(민현식) 등 대상 작품을 두고 김수근문화상 심사위원회 김광현, 김봉렬, 민현식, 박길룡은 2003년 5월 14일에 다음과 같이 의견을 피력하였다.

철암 작업 / 폐광지역 철암의 도시적 회생을 도모하는 일이다. 1999년부터 시작된 이 작업은 주대관, 권문성, 전인호, 임지택, 송재호, 최욱, 한만원, 김기연, 최재희, 김헌, 윤희진, 박태홍 등 12인의 '철암지역건축도시작업팀'이 일구고자 하는 건축문화의 텃밭이다. 건축이 지역을 알기 위해 거기에 들어가야 하고, 지식만이 아니라 그 정서를 체화하는데에서 시작하는 일이다. 그만큼 지역에 대한 건축가의 애정, 전략과 성과가 사회적 역할의 의미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 건축이 '철암 구하기' 작전과 같이 그 방법설에 우리가 고무되면서도, '이루어짐'으로 보기는 사간이 필요할 것이다.

무주 작업 / 정기용 / 그동안 꾸준하게 건축의 사회 실천에 힘주어 왔던 정기용의 이 프로젝트는 건축으로 사회가 변하고 문화를 변화시킬 기대에 훨씬 다가가 있다. 그는 관료주의와 충돌하기보다는 생각을 나누고, 지역의 사랑에서 프로그램을 생성한다. 그래서 그 결과는 '새 지리지地理志'라고 할 만하다. 이 과제는 언제 끝날지 모른다. 아마 지속적인 섬취의 의미를 위해 더 기다려도 좋을 것이다.

숲이 되는 마을 / 조병수 / 자연과 땅과 작업하는데 더 억속한 조병수의 주거 프로젝트들은 향토적이며 동시에 고급 문화의 격조가 유지된다. 그에게서 대지는 구체적인 대상이며 밑음이다. 거기에 대해 건축은 아주 겸손하지만, 자신의 힘을 헛헛하게 하지 않는다. 다만, 김수근문화상이 갖는 개별적 성질이듯, 새로운 시대개념을 향해 몸짓하다가 생긴 혈혼을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전통문화학교 / 민현식 / 전통문화 학교라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대지에 단단히 밀착시킨 작업이다. 건축가가 미리 보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 느껴지며, 생활 문화의 공간이 된다. 학습 프로그램과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따라 흐르는 건축 공간은, 그래서 매우 구조적이다.

높은 건축적 완성도를 보인 이 수작과 선유도 공원의 작업 성과가 마지막 결정 앞에 있게 되었다.

전통문화 학교의 설계자인 심사위원 민현식이 자신 작품의 노미네이트를 고사하였으나, 심사는 민현식을 본심사의 의사결정권에서 제외하고 3사람의 의견이 마지막 결심을 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다수로 '선유도 공원'을 2003년도 김수근문화상의 수상작으로 결정하였다.

선유도 공원 / 정영선+조성룡 / 심사위원회가 이 작업에 주목하는 우선의 뜻은 건축과 조경의 경계가 흐림이다. 선유도, 기존의 건물 잔재가 풍부한 대지에서 건축과 조경이 끊임없이 풍경을 만들어 간다. 독립된 오브제로서 건축과 조경이 자신의 영역을 경색시키었던 종래의 개념에 비해, 선유도 작업은 새로운 환경 디자인의 협주법協奏法을 시사하여 준다. 건축은 일깨운 시간 위에서 다시 자라기 시작하고, 자연은 인공적 요소들과 습윤된다.

심사에서 이러한 작업 경계의 모호성은 그 건축적 성과의 정체성을 애매하게 하는 뜻으로 반문이 되기도 하였다.

작가들은 수상 공원이며, 시민 공원이며, 역사적 기억을 유지하기 위해, 고고학자처럼, 원래를 다시 뒤적인다. 버릴 필요가 없는 것이 꽤 많았을 것이다. 그것들은 자연과 시간에 뒤척이던 것이다. 그런 뜻에서 이 공원의 작업은 시간의 현상을 일깨운다. 이미 수십년간 서울 시민이 쓴 물의 흔적 위에 다시 시작하였지만, 앞으로 더 많은 빛과 바람의 시간이 이 조경을 완성하여 갈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가 버릴 뻔하였던 것들에서 가치를 가려내고, 그것이 환기될 방법을 찾으며, 형상으로 재생시키어, 어느 날 우리에게 사실로 되돌려 주었다. 그 일을 건축과 조경이 하는데, 이 선유도 작업을 통해 그동안 우리에게 건축과 조경이 왜 분리되었는가를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지난 해 한국 건축의 지적 성향을 다시 되돌아볼 기회이기도 하였던 이번의 심사과정에서, 건축의 작업이 현저하게 여러 방위로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이번에 대상이 된 작업 중에서도 여럿이 그러하다. 건축이 사회적이라는 뜻은 이전부터 분명하였지만, 이제 건축은 사회에서 시작되기도 한다. 건축이 종합예술이라고는 쉽게 말하지만, 이처럼 피차의 땀을 섞어 본 경험은 없었다.

종의 다원성은 여럿이 많다는 뜻만으로서 가치가 아니라, 다중 구조에 있음을 아는 것과 거기에 어떻게 결합-반응하는가를 구사하는 일이 중요하다. 〈박길룡 모아 씀〉

황일인 회원, AIA명예원로회원에 추대
오기수 회원, AIA 프레지덴셜 메달 수여

지난 5월 9일 캘리포니아주 샌 디에고에서

황일인(일건건축사사무소)회원이 지난 5월 9일 캘리포니아주 샌 디에고에서 거행된 미국건축가협회(AIA) 총회에서 AIA명예원로회원(Honorary Fellow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HFAIA)으로 추대됐다. 황일인회원의 HFAIA 추대는 우리나라에서 고 김수근, 이광노, 원정수, 장석웅, 이경회, 승효상 씨 이후 7번째다. 한편 오기수 회원(종합건축사사무소 스페이스 오, 한국건축가협회 회장)도 같은 날 총회에서 AIA Presidential Medal을 수여 받았다. 이 메달은 외국의 저명한 건축단체장에게 수여되며, 이날 오기수회원은 미국건축가협회 명예회원으로 추대됐다.

한국건축단체연합(FIKA), 운영(안) 합의

지난 5월 20일 서울 르네상스호텔 토파즈룸에서

우리협회와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의 각 단체장은 지난 5월 20일 서울 르네상스호텔 토파즈룸에서 회의를 갖고 「한국건축단체연합(FIKA)은 건축 3단체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각 단체의 고유업무와 독립성을 상호 존중하며, 국내외 건축계의 공동관심사에 대응하는 일원화된 창구의 역할을 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서 내용에 함께 서명했다. 이로써 규정작성, 대표회장의 교체, 건축교육인증원 설립에 관한 국제세미나 공동 주최 등 3개항을 합의했다. 3단체의 회장이 공동대표가 되며, 그 중 1인이 매년 번갈아 FIKA의 대표회장을 맡게 된다. 올해는 대한건축학회의 김진균회장이 대표회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2003대한민국 생활디자인 공모

9월 초까지 원서접수

(사)한국실내건축가협회에서는 2003년 대한민국 생활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주최측은 작년에 실시되었던 '리빙뉴스 21 디자인 공모전'을 생활디자인 분야로 영역을 확대해 실시하고 이에 따라 명칭도 변경하였다.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은 6월 중순부터 9월초까지이며, 1차 작품접수는 9월 5일부터 8일까지, 2차 작품접수는 10월 8일까지이다. 전시회는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코리아디자인센터 지하 1층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문의: (사)한국실내건축가협회
사무국 02-508-8037
www.kosid.or.kr

제4회 늘푸른환경조경설계 공모전

「물과 도시환경」 주제로

(재)늘푸른과 (사)한국조경학회에서 주최하는 제4회 늘푸른환경조경설계 공모전이 '물과 도시환경'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 공모전은 오늘날 우리의 도시환경이 처한 현실을 바탕으로 '물'과 '물가'의 처리, 혹은 '물'의 도입으로 보다나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물의 도입', '물의 활용', '물의 처리'의 세 소주제로 나뉘어 공모된다. 전국의 대학교, 대학원생이 개인 또는 4인 이하의 팀을 이루어 참가할 수 있으며, 응모자는 각 부문별로 특정한 대상지를 선정하여 설계를 진행하여야 하며, 작품대상의 선정에 따라 임의의 가상공간을 대상지로 정할 수도 있다. 응모자는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을 해야 하며, 작품접수는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이다. 심사는 11월 4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며, 전시회는 12월 2일부터 4일까지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다.

문의: (재)늘푸른 02-561-7766
www.nulpurun.or.kr

'소수장애인' 공모전

7월 5일까지 작품접수

디자인비즈와 (사)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디자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유아디자이너닷컴(www.urdesigner.com)'을 통해 디자인의 관점에서 장애인을 위한 시설과 제품을 제안하고자 하는 '소수(minority)-장애인'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디자인비즈가 2003년 한해 동안 진행할 예정인 '소수;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고 불평등한 집단적 차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테마 중 첫 번째 공모전으로 디자이너들의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이에 대한 참여를 높이기 위한 시도이다. 이번 공모전은 제품, 시가, 환경 디자인 분야로 나누어 실시되며, 당선작 중 제

품화가 가능한 디자인에 관해서는 제품화 과정에 디자이너가 직접 참여하게 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6월 28일까지이며, 6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작품을 접수한다. 7월 10일 심사를 거친 수상작은 7월 15일 발표된다.
문의: 디자인비즈 02-959-1362

성남시민 대상 디자인 공모전

9월초까지 작품접수

(사)한국실내건축가협회는 '리빙뉴스 21 · 성남주부 디자인 공모전'의 행사명을 '리빙뉴스 21 · 성남시민 디자인 공모전'으로 변경, 개최한다. 이 공모전은 올해로 3회를 맞으며, 성남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하던 공모전의 대상을 성남시민으로 넓혔다. 작품접수는 6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받을 예정이며, 전시는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있을 예정이다.
문의: 리빙뉴스 21 · 성남
행사사무국 02-3444-2083
www.livingnews21seongnam.co.kr

서울건축학교 2003 여름워크숍 참가자 모집

8월 2일부터 9일까지 새만금에서

1987년 간척사업의 타당성 조사로 시작된 새만금 간척사업은 1991년 착공되어 이제 10년 이상이 흘렀다. 1996년 시화호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갈등 사이에서 이제 방조제는 전체길이의 4만㎞만 남겨놓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의 서울건축학교의 여름워크숍은 새만금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다른 시각을 확인하며 열띤 논의를 갖고자 한다. 워크숍 기간은 8월 2일부터 9일까지이며, 국내외 건축관련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여름건축학교의 학교장은 김원(광장건축)씨가, 코디네이터는 최문규(가아건축)씨가 맡는다.
문의: www.saschool.or.kr

제5회 건축사진 여름워크샵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한국건축사진작가회가 주최하고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이 후원하는 2003년 건축사진 워크숍이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워크숍은 '디지털 vs 아날로그'라는 이슈와 함께 사진이론과 건축사진의 실질적인 내용을 접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초빙강사는 미정이며, 건축사진가회 강사로는 김경호, 김재경, 김재윤, 김태오, 문정식, 박영채, 유현민, 이인미, 염승훈, 조명환 씨가 참여한다.
문의: 한국건축사진가회
사무국 02-373-9028
www.archipoto.pe.kr

2003민건협 여름캠프 참가자 모집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민족건축인협의회(이하 민건협)에서 2003년 여름캠프를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전북 진안군 능길마을에서 개최한다. 민건협은 1996년 제1회 여름캠프를 시작하여 2002년까지 7회의 여름캠프를 운영하였다. 작년 제7회 캠프부터 시작된 '소외된 건축에 대한 담론; 우리시대의 마을 만들기'는 생활공동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을이라는 단위가 농촌에서부터 붕괴되기 시작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이에 대한 건축계의 작은 목소리를 유도하고자 하는 주제이다. 이번 여름캠프는 대규모 개발로 인해 전통적 마을 공동체의 정체성이 상실되어 가는 시골의 마을들을 위해 건축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문의: www.mingunhyup.org

2003경향하우징페어 써머 페스티발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경향하우징페어가 봄 전시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하고 오는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코엑스몰 태평양관에서 '써머 페스티발'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국토를 아름답게 삶을 풍요롭게'라는 주제로 건축자재, 건축장비, 가구, 펜션 등의 인테리어와 도로교통, 환경시설 및 조경관련 자재전 등의 비교 전시를 통해 시대적 요구에 걸맞는 제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알찬 정보의 마당이 될 것이다.

문의: 02-3701-1600
www.ehousingfair.com

제8회 한국목조건축학교 참가자 모집

7월 5일까지

미국 임산물협회 한국사무소는 한국목조건축협회와 공동으로 제8회 한국목조건축학교의 일정을 6월 23일부터 7월 5일까지로 확정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 장소는 충남 계룡시 한우리 쉼터이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교육과정은 합숙을 통하여 이론과 실습을 동시에 병행하여 2주 동안 경골 목조건축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계획된 프로그램이다. 특히 올해에는 일반적인 경량 목구조에 기둥-보 구조 방식을 혼합한 독특한 방식으로 실습을 할 예정이어서 참가자들에게 보다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미국임산물협회
한국사무소 02-722-3685,
한국목조건축협회 02-554-0611

집 전

가갤러리 개관기념전으로 7월 13일까지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가갤러리는 개관 기념전으로 '집 전'을 6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 개최한다. 집이란 가장 사적이고 은밀한 공간이면서 사회와 분리되고 경계지워진 곳이자 사회적 삶으로 나가기 위한 휴식장소이다. 이번 전시는 가정, 세대대, 부엌 등의 지극히 사적인 공간을 다루는 작업만을 모은 전시로서 총 15인의 참여작가는 집에 대한 관심을 드로잉, 회화, 영상, 사진, 설치 등의 작업으로 선보인다.
문의: 가갤러리 02-792-8736
www.gagallery.co.kr

시민과 함께하는 아트벤치 전

7월 4일까지

갤러리 아트사이드와 (주)지엔에이 디자인이 주관하는 '시민과 함께 하는 아트벤치 전'이 여의도공원에서 6월 5일부터 7월 4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벤치라는 하나의 주제 아래 구본주, 김회경, 도홍록 씨 외 13인의 조각가들이 펼쳐 보이는 다양한 공간해석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도시 안의 숲 여의도공원에서 각기 다른 조형언어를 갖고 있는 벤치를 관람하고 이와 더불어 짧은 휴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문의: 아트사이드 02-725-1020
www.artside.net

오토데스크코리아, CAD 무료체험관 개관

삼성동 코스모타워 지하 1층에

오토데스크코리아(대표 남기환)가 지난 5월 21일 CAD 사용자들의 고객만족을 위해 자사의 제품 및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무료 체험관을 삼성동 코스모타워 지하 1층에 개관했다. 개인 및 기업 등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데모룸과 교육장, 비즈니스센터 등을 갖춘 체험관에서는 CAD의 효율적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상설 교육장을 마련해 정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소를 제공해 효율적인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원하는 시간에 수강할 수 있으며, 고급과정 수강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해 업무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특히 6월부터 8월까지 12주 동안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AutoCAD2004 따라하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문의: 02-558-5465
www.autodesk.co.kr

제4회 수원화성 도시건축대전 작품공모

10월 10일까지

수원시에서는 세계문화유산 '화성'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보전과 문화자원을 개발하고 화성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있어서 전국 대학생(대학원생 포함)들로 하여금 경쟁을 통해 우수작품을 발굴하여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고자 제4회 수원화성 도시건축대전을 개최한다. 작품은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의 4대문(장안문, 팔달문, 화서문, 창룡문)을 중심으로 계획하여 2003년 10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문의: 031-226-7223
www.hwasong.org

제2회 부산국제건축공모전

'광안리 일대 아이덴티티' 주제로

2002년 UIA의 공인을 받아 Busan Tower Complex를 주제로 시작한 부산국제건축 공모전이 2003년 BiArc(Busan International Architectural Competition) 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2회째 개최된다.

" THE CAPTURED OCEAN: Redefining The Busan Urban Water Front" 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올해 공모전을 위해 부산광역시와 부산국제공모전 운영위원회는 BiArc 2003을 통해 광안대교와 함께 21세기 부산의 문화, 해양도시 이미지를 다시 정의하는 광안리 일대에 관한 도시, 건축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교량과 함께하는 새로운 도심해수욕장의 모습, 해안과 광안대교와의 관계, 교량의 양극단에 남겨진 모호한 공간들의 활용 등은 이 공모전의 주요한 접근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이외의 다양한 창의적 제안들 역시 광안대교를 포함한 광안리 일대에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사는 강석원, 류춘수(국내), Hara Hiroshi (Japan), Eric Owen Moss (USA), Coop Himmelblau-Wolf D. Prix (Austria) 씨가 맡는다.

- 질의응답: 2003. 6. 1.~7. 17.
- 신청마감: 2003. 8. 12.
- 작품마감: 2003. 9. 6.
- 참가자격: 건축관련 재학생, 대학원생, 전문건축인
- 문 의: 부산국제건축공모전 운영위원회
  전화 82-51-759-9496
  www.biarc.org,

제22회 대한민국건축대전

Celebration of Cities - 도시의 찬미, 도시의 축제

꿈의 도시 브라질 꾸리찌바의 시장으로 알려진 건축가 자이메 레르네르는 UIA 회장이 되어 'Celebration of Cities' 라는 주제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희망을 전 세계 건축계에 던지고 있다. 건축의 활동은 도시영역으로 확대되어 도시와 건축의 전문가로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인류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전 세계 곳곳의 도시에 만들고 실천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세계 건축가 모두에게 주어진 것과 똑같은 주제로 2003년 대한민국 건축대전의 일반 공모전을 개최한다. 대한민국의 도시속에 있는 실제 부지를 대상으로 한, 실현 가능한 작품으로 도시의 삶을 개선하고, 도시의 사람들을 결속시킬 수 있는 만남의 장소로, 창의성이 넘치는 장소로 회복되는 결과가 예측되는 작품이 되어야 한다.

〈초대작가전〉
- 작품접수: 11. 14.
- 접수장소: 예술의 전당

〈일반공모전〉
- 원서접수: 5. 19.~6. 20.
- 1차작품접수: 9. 5. 사무국
- 2차작품접수: 11. 14. 예술의 전당
- 주제: Celebration of Cities - 도시의 찬미, 도시의 축제
- 출품자격: 국내외인(동일작품에 한하여 작가 명의는 1인을 초과할 수 없다)
- 원서신청: 한국건축가협회 홈페이지
- 심사위원: 강건희, 권문성, 김준성, 박항섭, 장응재, 최재회, 허서구
- 심사발표: 11. 17.
- 전시: 11. 17.~11. 23. 예술의 전당 미술관
- 문의: 한국건축가협회(02-744-8050) www.kia.or.kr

2003 공간대상

제21회 공간국제학생건축상
제3회 스페이스인스타일 국제학생실내건축상

공간사에서 주최하는 공간국제건축상과 국제학생실내건축상 공모요강이 발표됐다. 올해 공모전의 심사위원으로는 김준성(M.A.R.U건축)과 크리스 R. 샤플즈(SHoP Partner, New York)가 위촉됐다. 응모신청서는 공간사 홈페이지(www.vmspace.com)에서 다운받아 작성하면 된다.

〈공간국제학생건축상〉
- 주제: 오아시스-혁신적인 박물관(Innovated Museum)/가상의 황폐한 대지(사막 등) 100m×100m 안에 연건평 1,000㎡내외의 물박물관과 외부 공간계획
- 자격: 국내외 2년제 이상 대학 및 대학원 재적생-전공무관/한 팀 3인까지 공동작업 가능
- 시상: 대상 1점 500만원, 최우수상 1점 300만원, 우수상 2점 각 100만원, CG특별상 1점 100만원, 입선작 다수
- 신청 접수기간: 2003. 4. 7.~8. 11.
- 작품 접수마감: 2003. 9. 15. 오후 5시(당일 도착분에 한함)

〈국제학생실내건축상〉
- 주제: 소호(SOHO)-독립 아뜰리에(Independent Atelier)/창조성, 개인성, 독립성을 확보한 젊은 실내디자이너의 작업 공간 계획
- 자격: 국내외 2년제 이상 대학 및 대학원 재적생-전공무관/한 팀 3인까지 공동작업 가능
- 상: 대상 1점 500만원, 인스타일상 1점 300만원, 우수상 3점 각 100만원, 입선작 다수
- 신청 접수기간: 2003. 4. 7.~8. 11.
- 작품 접수마감: 2003. 9. 15. 오후 5시(당일 도착분에 한함)

카자흐스탄 국제 건축 자재 박람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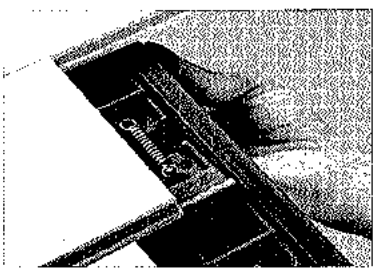
9월 3일부터 6일까지

2003년 6월 카자흐스탄 최대의 건축 종합 전문 박람회인 KAZABUILD 2003 박람회가 개최된다. 국내에서도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주관으로 10 여개사가 부스출품 예정을 하고 있는 국제적인 건축 전문 박람회에 해외 산업 박람회 참관단 유치전문 여행사인 코리아나사에서는 참관단 모집을 한다.

- 전시기간: 2003년 9월 3일~9월 6일 : 4일간
- 전시장소: 알마티 ATAKENT 상설 전시장
- 개최규모: 개최국 및 해외 20여개국 200 업체 부스 개설 / 2,000㎡ 전시 면적
- 전시품목: 천장재, 바닥재, 창호재, 인테리어제품, 수전금구, 보일러, CCTV, 도어록, 파이프, 피팅, 위생도기, 발전기, 램프, 벽지, 블라인드등 건축자재 전반
- 전시특징: 카자흐스탄 최고의 건축 전문 전시회이며, 국내(한국)에서도 10 여개사 부스 출품 예정.
- 부스관련 문의 : KOTRA 본사 전시사업팀 이재은 대리 전화: 3460-7259 팩스: 3460-7916
- 참관신청 문의 : (주)코리아나투어스 전화: 02-736-4191 팩스: 02-753-8435

신 소 재

레일플렉스(Reilflex)
못, 접착제를 쓰지 않고 마루 설치 가능



건축자재중 마루 공사에 필요한 원목 마루재를 취급하는 (주)애플코퍼레이션은 마루를 시공할 때 못이나 망치, 혹은 접착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마루를 설치할 수 있는 새로운 고기능성 마루 시스템인 레일플렉스를 개발, 판매에 들어갔다.

제품명은 「레일플렉스(Reilflex)」, 설치가 시작되면 제일 먼저 소음과 진동을 흡수하는 용도의 두께 2㎜ PE Form을 바닥 전체에 깔아준다. 이 PE Form은 마루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지않게 하고 마루위로 보행 시 보행 충격을 흡수하는 폭신한 쿠션의 역할을 담당한다.

마루구조 하부에 설치되는 기존의 나무 마루틀 대신 플라스틱으로 장선을 교체하였고, 플라스틱에 스프링을 넣어 제품에 유연성을 강조한 기발한 아이디어 상품인 이 제품은 목수가 망치와 못으로 마루를 설치해오던 전통적인 시공방법이 매우 번거롭고, 목재의 수축 팽창 등으로 인해 삐걱거리는 등 소리가 나는 단점이 있는 것에 착안, 과거 마루 시공에 있었던 불편한 모든 점을 개선한 '뜬 구조'의 인체공학적 설계로 발과 무릎관절의 피로도를 줄여주는 신개념의 마루재이다.

문의: (주)애플코퍼레이션
(02-3445-33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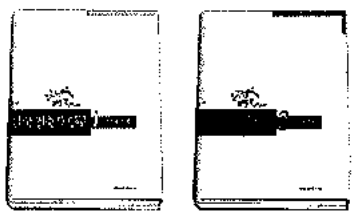
경력사원 모집

(주)단 건축사사무소

- 모집분야 및 인원
  - 설계직 차장 ○명
    과장 ○명
    대리 ○명
    신입 ○명
  - 공무과장 ○명
  - 건축설비 ○명 (기계/전기)
  - 토목설계 ○명
- 자격요건
  - 설계직 : 관련학과 졸업자
  - 공무직 : 대관업무 전담
  - ※ 인천으로 출퇴근 가능하신 분
- 제출서류
  - 이력서(연락처 명기, 사진)
  - 자기소개서(경력중심)
  - 자격증사본(소지자에 한함)
  -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전형방법
  - 1차 서류
  - 2차 면접
- 접수기간 및 제출처
  - 접수기간 : 수시접수
  - 제출처 :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2동 240-47 (선정빌딩 3층) 설계사업부 앞
  - 전화: 032-425-8855
  - 팩스: 032-246-8003
  - 이메일: dan2000@korea.com

신 간 안 내

◇한국건축사 연구 Ⅰ, Ⅱ



한국건축역사학회는 2001년 창립 1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기 위해 기획한 한국건축사 및 건축 이론 관련 연구 성과를 정리한 책을 발간했다. 제1권에서는 분야와 시대로서 한국건축사학의 전개, 종교 및 공공건축, 주거, 도시, 근현대건축, 북한 및 외국건축 등 7개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2권은 이론과 쟁점이라는 주제 하에 공간의 장론, 구조기술 및 제도, 문화재 보존과 복원, 근대 이후의 이론과 비평, 이념과 쟁점 등 5개 분야를 다루고 있다.

한국건축역사학회 편냄/ /1권: 27,000원 2권: 20,000원/도서출판 발언 발행(02-929-3546)

◇똥지 밖으로 나온 동물건축가

이 책의 저자는 건축가가 아닌 동물학자이며, 삽화는 건축가가 그렸다.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에서는 일반적인 동물들의 집짓기에 대한 이유와 과정과 원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두 번째에서 마지막 장까지는 여러 동물이 지은 집의 모양과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박태순 지음/유원재(다건축) 삽화/246쪽/1만2천원/도서출판 잉걸 발행(02-855-3709)

◇스페인에서 꿈꾼 대한민국 **반바퀴 돌린 꿈**

이 책은 건축가 김희곤(홍간건축)이 스페인 유학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잠시 돌아서서 시작의 근원을 돌아보면서 여유를 발견하고 꿈을 담아내는 과정을 쓴 글이다. 건축가의 입장에서 우리문화에 대한 애정을 바탕에 깔고, 다른 문화를 보고 느끼고 지각되어진 것을 저자 나름의 풍부한 식견으로 정리하였다. 우리문화에 자신감을 가지고 보듬어 안고 건축을 하는 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안착하는 것이 세계화에 대응하는 한국적 가치를 정립하는 길임을 저자는 말하고 있다.

김희곤 지음/285쪽/1만1천원/현대건축사 펴냄(02-455-8043)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86-7475 · 강북구건축사회/903-2030 · 강서구건축사회/661-6999 · 관악구건축사회/877-4844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828 · 금천구건축사회/859-1668 · 노원구건축사회/937-1100 · 도봉구건축사회/990-8720 · 동대문구건축사회/967-6052 · 동작구건축사회/815-3026 · 마포구건축사회/333-6781 · 서대문구건축사회/338-5552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동구건축사회/292-5865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694-8040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143 · 용산구건축사회/717-6607 · 은평구건축사회/383-1468 · 종로구건축사회/725-3914 · 중구건축사회/231-5748 · 중랑구건축사회/437-39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8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 · 광명건축사회/(02)684-5945 · 구리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66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1-7987~8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 안산건축사회/(031)49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693 · 과천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8 · 이천지역건축사회/(031)635-0645 · 평택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오산건축사회/(031)375-8648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6-0140 · 광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2-0126 · 삼척지역건축사회/(033)531-8708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3-5080 · 영월지역건축사회/(033)374-2659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3-7290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94 · 옥천지역건축사회/(043)7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3)643-3593 · 충주지역건축사회/(043)851-1587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공주지역건축사회/(041)854-3355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4-3367 · 백제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산지역건축사회/(041)681-4295 ·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1-4551 ·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5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38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3)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3)852-0796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52-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5-6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경산지역건축사회/(053)8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54)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2-6658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3-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4)535-89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3-0244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4-5560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4-8256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44-6029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5-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090 · 김해시건축사회/(055)334-6644 · 마산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사천시건축사회/(055)833-9779 · 양산시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지역건축사회/(055)741-6403 · 진해시건축사회/(055)544-774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1-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5)883-4612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33-5601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 84
국립현대미술관 주차장 / 86
영덕문화체육센터 / 90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증축 / 94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Dongbu Nursing Home

건폐율	43.94%
용적률	124.21%
규모	지하 1층, 지상 5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차대수	92대(장애인주차 4대포함)

▶ 당선작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김종국)

서울특별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성동구 홍익동에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건립을 위해 현상설계를 실시해 지난 4월 24일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이영준)의 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발표했다. 이번 현상설계는 턴키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당선작 외에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와 일건건축사사무소가 참여했다.

대지위치	서울 성동구 홍익동 16-1, 102번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10,215.80㎡
건축면적	4,489.29㎡
연면적	13,540.67㎡

마스터플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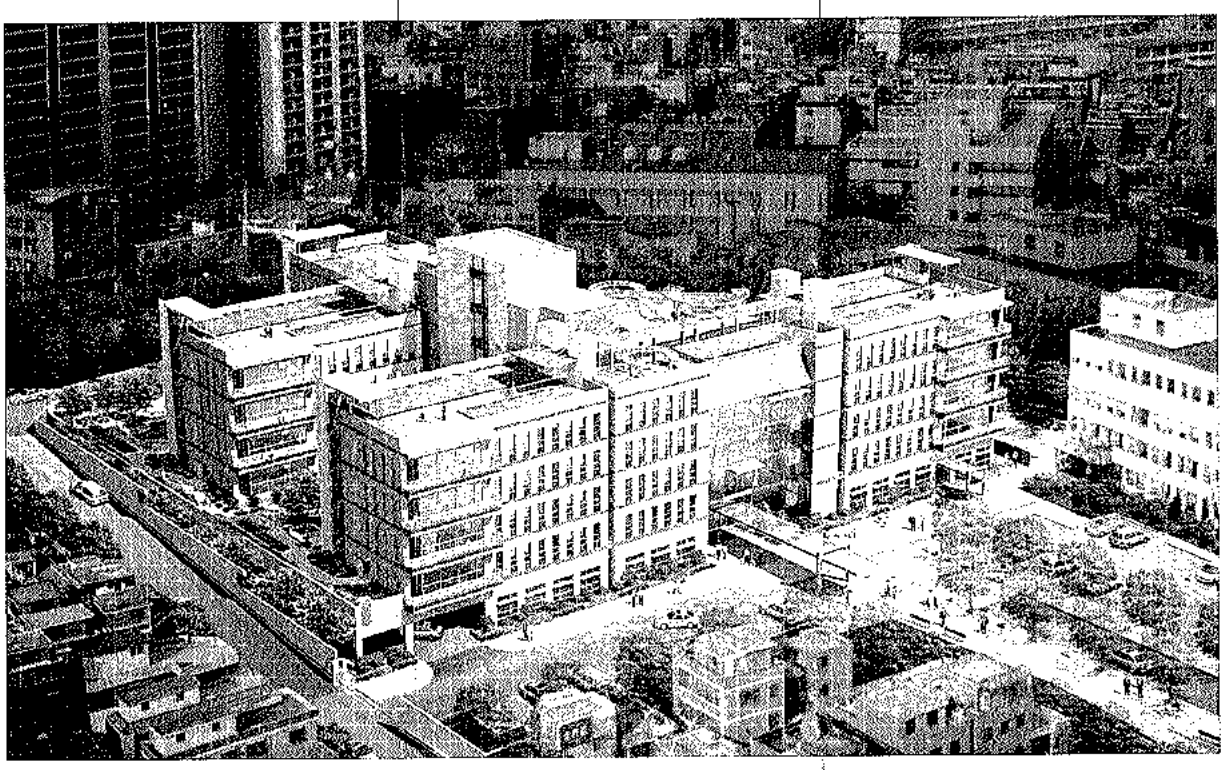
- 도시적인 배려와 인간적 스케일을 갖는 시설계획
-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계획
- 최적의 프로그램: 75명의 간호단위와 16, 20명의 거주단위

건물디자인

- 사실적 가능주의의 표현: 내부기능의 명료성이 외관에서 사실적으로 표현
- 절제된 건축어휘 및 재료의 사용: 기능에 따른 분절로 거주단위별 개체성 표현 특징적 재료의 선정

외부공간디자인

- 치유효과를 갖는 테마정원
- 한국적 정서를 갖는 회상정원
- 기능별 옥외공간 제공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공용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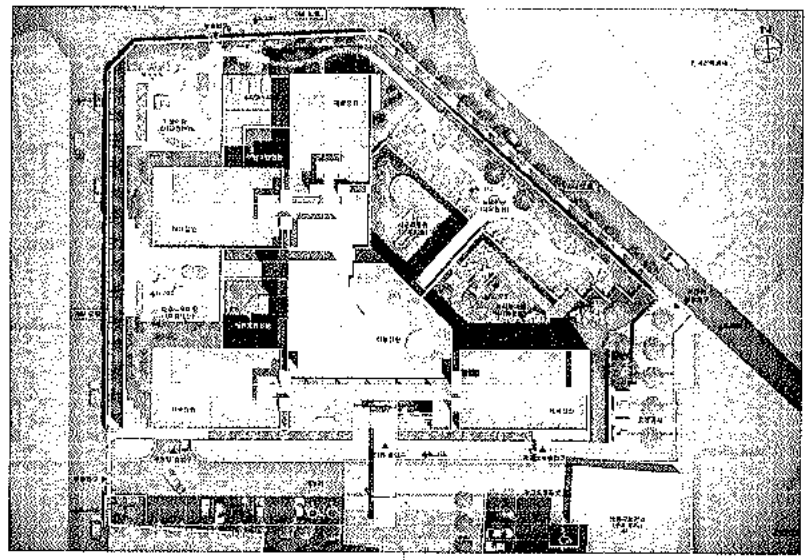
- 요양시설의 중심공간(식당)
- 그들만의 공간(배회로/내외부 휴게공간)
- 노인들의 안전을 위한 관찰과 보호

거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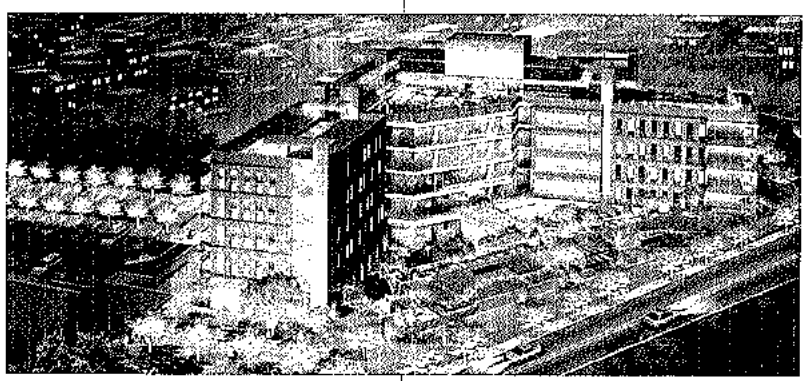
- 거주단위내 자족적 생활서설구성
- 자연스러운 사회적 접촉을 유도
- Barrier-Free Sp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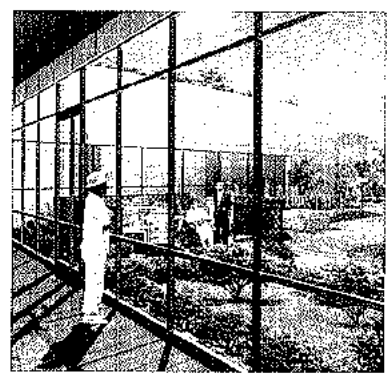
요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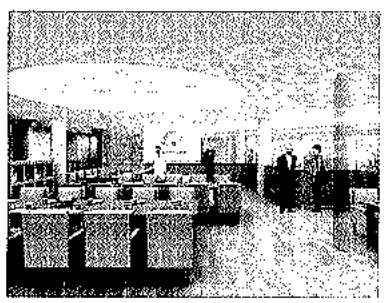
- 개별화된 공간과 가구
- 넓은 통로폭
- 찾기쉬운 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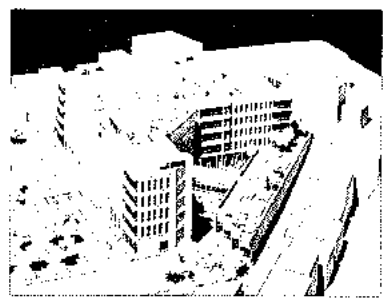


층별주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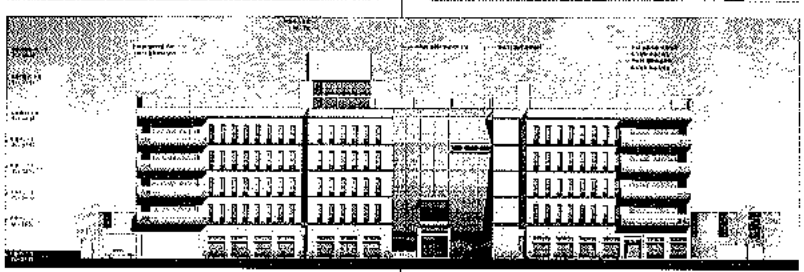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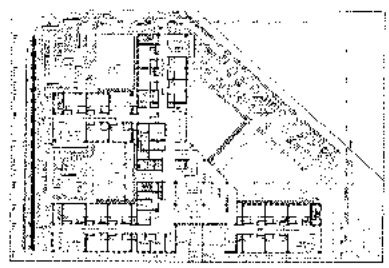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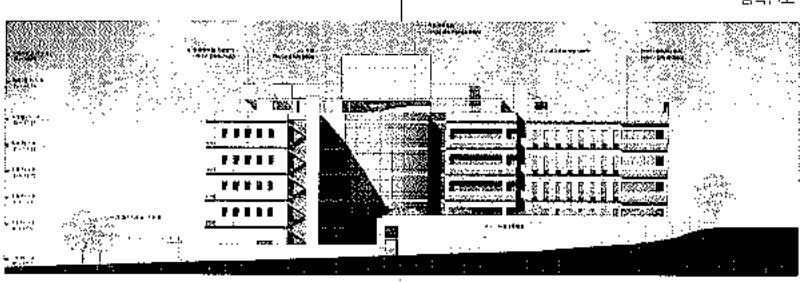
기준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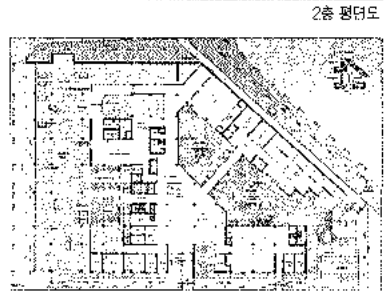
남측면도



2층 평면도



동측면도



1층 평면도

국립현대미술관 주차장

Parking Lot of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Korea

▶ 최우수작 /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정영균 · 임동건)+(주)토신건축(김납곤)+지광석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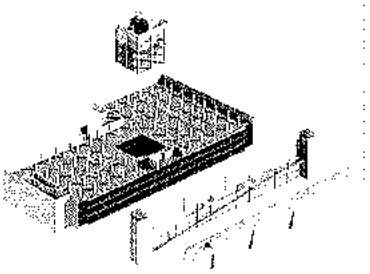
국립현대미술관은 기존 주차장의 부족으로 인한 미술관 이용의 불편을 줄이고자 지난 2월 27일 미술관 주차장 건립 현상설계를 공모하여 4월 15일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설계공모 부지로는 야외조각전시장이었다. 최우수작으로는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이영희 · 정영균)의 안이 선정되었으며, 우수작에 (주)부림종합건축사사무소(김호)의 안이, 가작에 (주)GNI종합건축사사무소(한현호 · 지승선)의 안이 각각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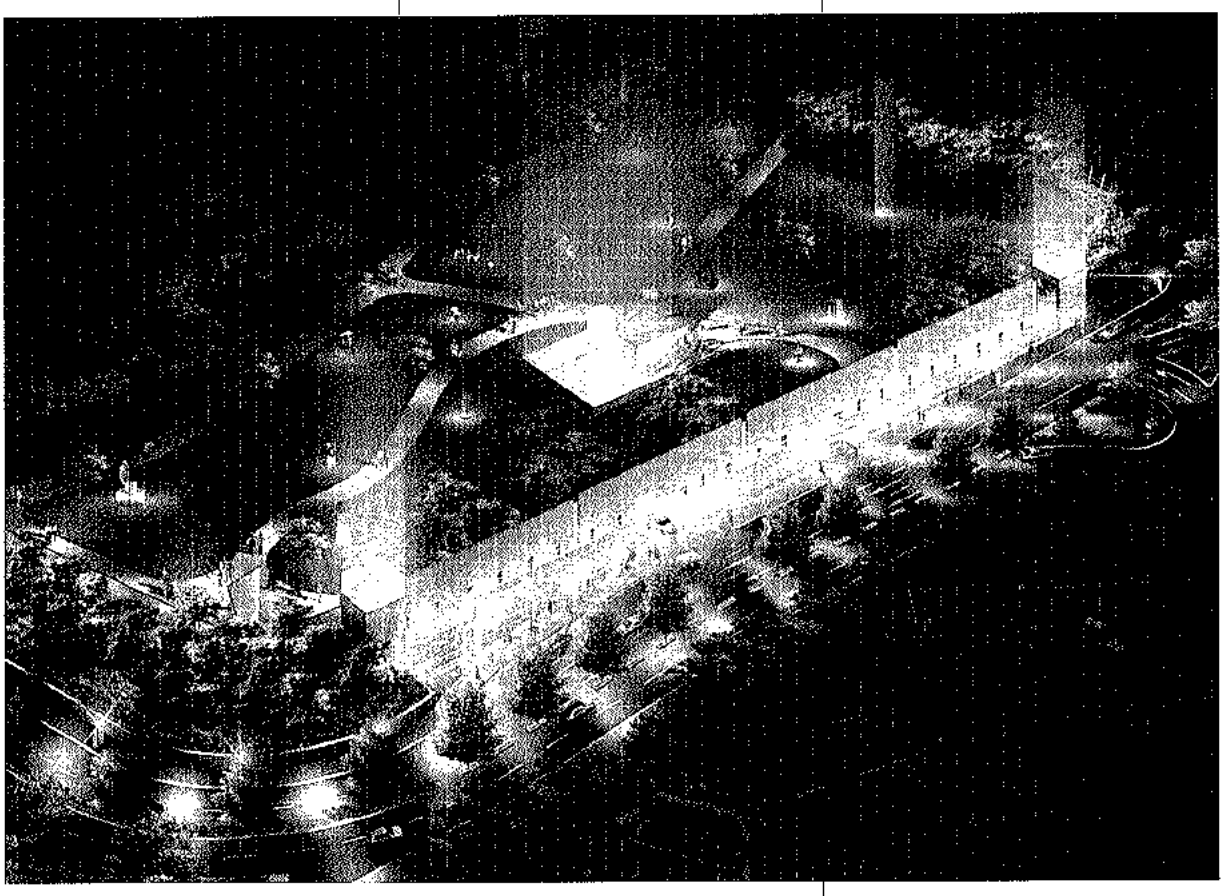
대지위치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산 579번지 국립현대미술관 내
대지면적	66,916㎡ (20,242평)
전체연면적	20,284.74㎡(기계관련실 제외)
지침상연면적	20,580.00㎡ (지침상연면적 19,600㎡ x 1.05)
주차대수	637대
규모	지하 4층
도로현황	기존 2차선, 계획 4차선 + 완화차선
총괄	임동건(희림건축)
설계팀	김은식, 최은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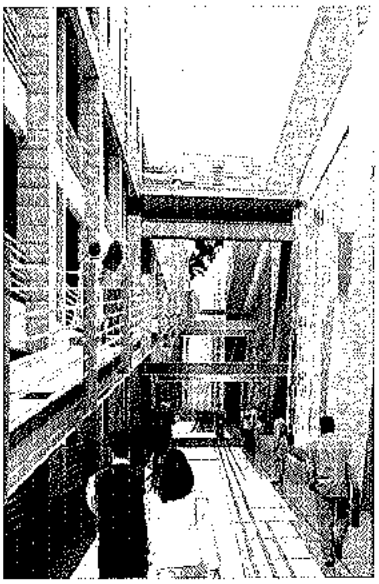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에 설치되어진 백남준의 다다익선은 이미 건물의 일부가 되어 미술관을 상징하는 작품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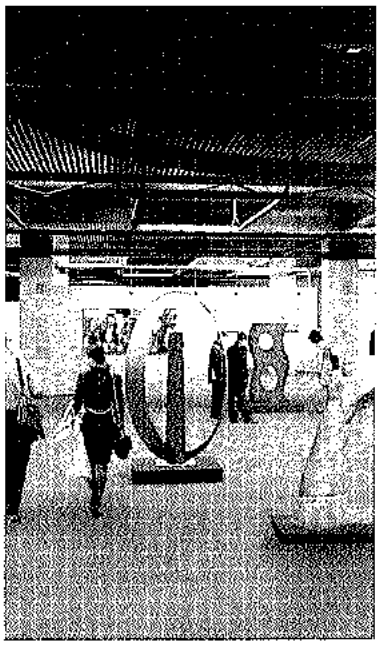
미디어시대를 예견하여 텔레비전을 매개로 창조해낸 백남준의 '비디오아트'가 80년대 국립현대미술관의 상징이었다면,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소통언어인 네트워크(network)를 주제로 '레이져 아트'로 표현된 그의 최근작 '야곱의 사다리'가 21세기의 국립현대미술관의 나아갈 방향으로 생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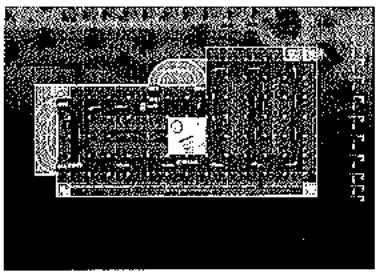
야곱의 사다리를 모티브로 하여 계획된 주차장은 내부공간의 질적 향상과 건축요소와의 조화를 통한 야외조각품의 전시효과 증대까지 고려하여 계획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야외 조각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대지 내의 훌륭한 요소들은 주차장 건립 후에도 그 원형이 유지되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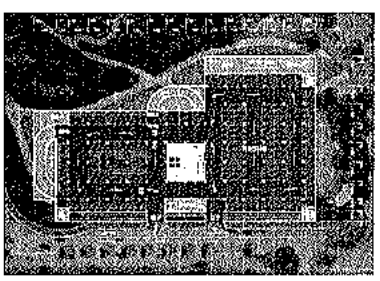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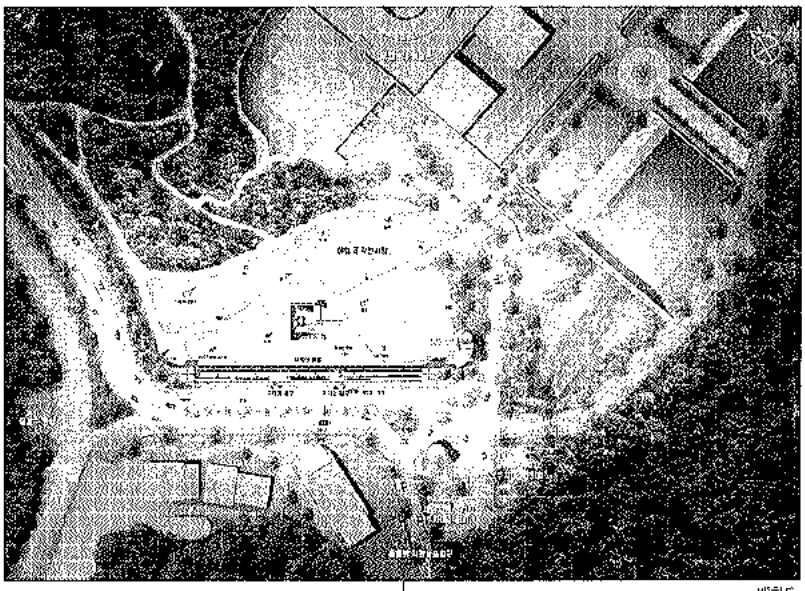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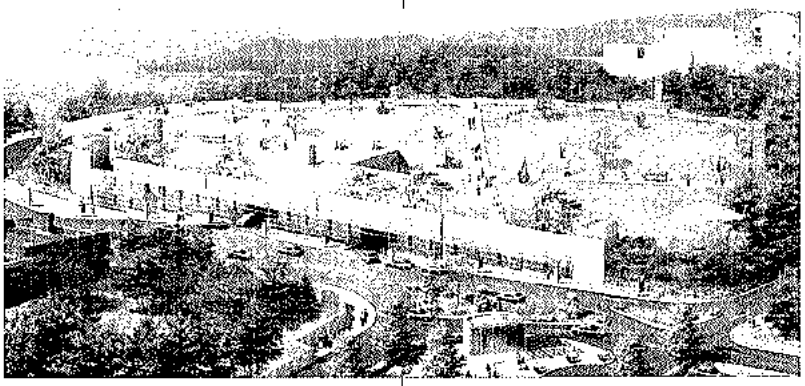
지하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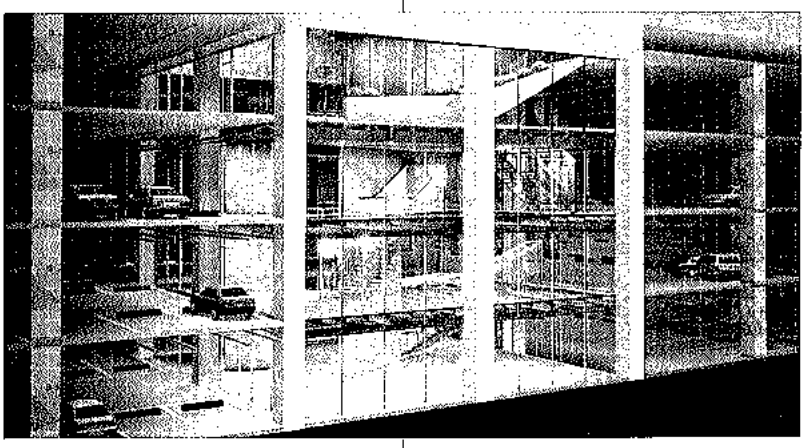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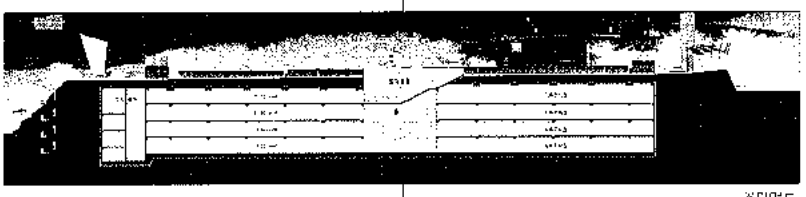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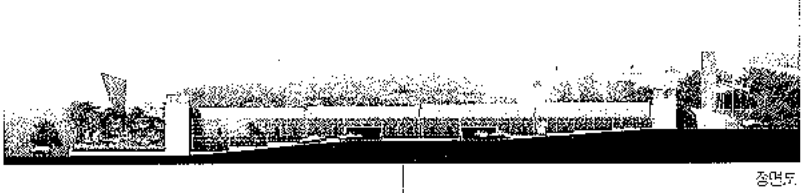


배치도









종단면도

▶ 우수작 / (주)부림종합건축사사무소(김호)

대지위치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산579번지 국립현대미술관 내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	66,916㎡ (20,242 평)
연면적	20,487㎡ (6,197 평)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규모	지하 4층
주차대수	657대 (장애인주차 22대 (3.4%) 포함)
주요시설	주차장, 주차관리실, 화장실,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팬룸 등

계획의 배경 및 목적

경제, 사회, 문화적 발전으로 인해 미술관 이용객이 늘어감에 따라 기존 100여대의 주차공간으로는 평일은 물론, 특히 휴일의 주차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미술관 이용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지하주차장을 계획함에 있어, 한정된 미술관 대지의 이용효율을 극대화하고 합리적 차량동선체계를 구축하여 명쾌한 차량동선을 형성함은 물론, 최신 운영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관리 비용의 절감 및 이용효율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미술관의 이미지와 조화를 이루고, 수려한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자연 친화적 부설주차장을 계획하여 기존 환경에 순응하는 계획을 목표로 한다.

제반 법규정에 적합한 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주차장법에 의거한 계획
- 국립현대미술관 주차장 건립 지침서에 의거한 계획

효율적 토지 이용

- 환경분석, 기능분석 등의 결과를 종합한 최적설계 추구
- 토지이용 효율의 극대화로 한정된 대지 여건내의 주차수요 충족

합리적 동선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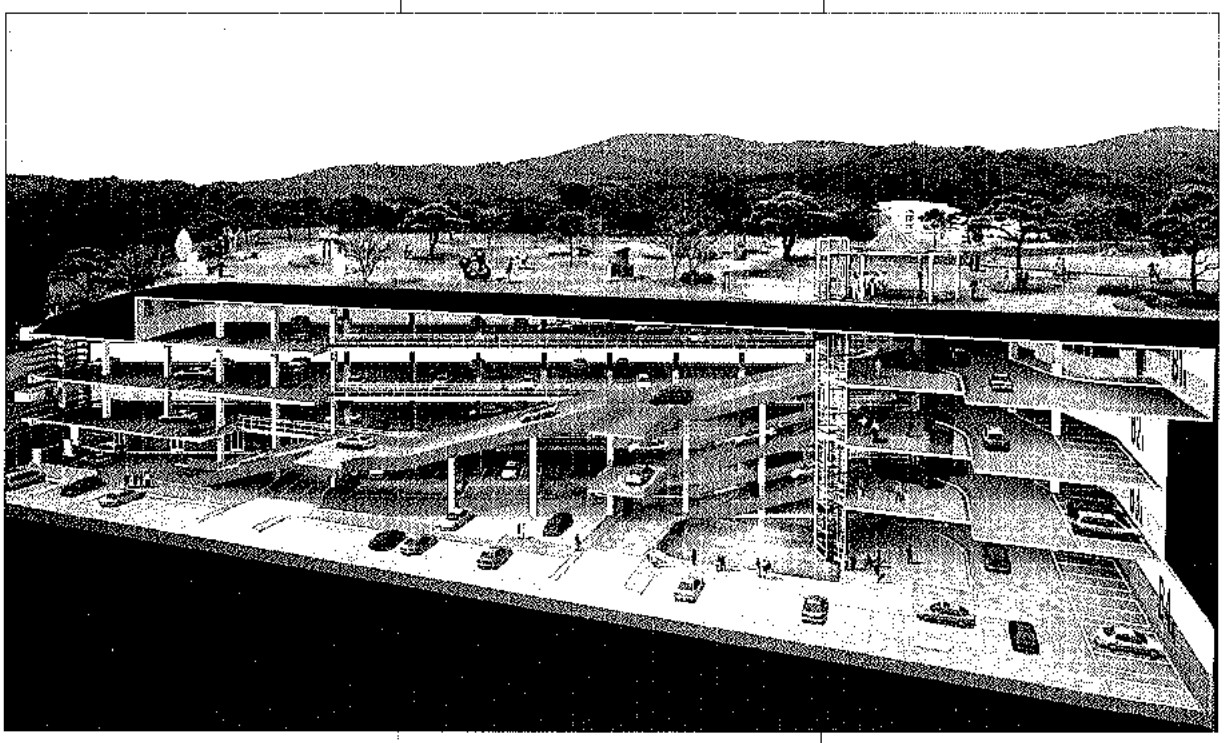
- 입출구의 분리 및 주출구와 부출구의 적절한 분산으로 주차수요가 몰리는 주말의 정체 해소
- 차량 진출입에 대비한 저장공간 (RESERVED AREA) 확보
- 신속한 입출차가 가능한 직선 경사로 (RAMP) 계획
  (차량 관제 시스템과 연계)
- 내부 차량동선의 명확한 방향성 및 인지성 (좌회전 일방향 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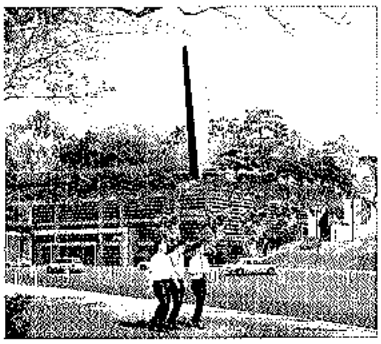
경제적 관리시스템의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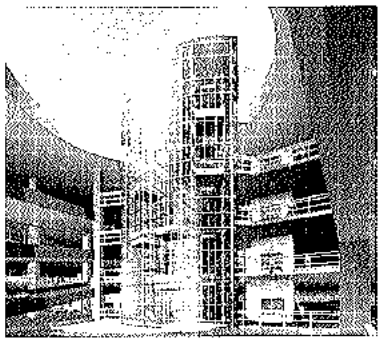
- 최첨단 차량 관제 시스템의 채택으로 관리원가 및 이용효율 증진
- 자연환기 및 채광을 최대한 도입한 에너지 절약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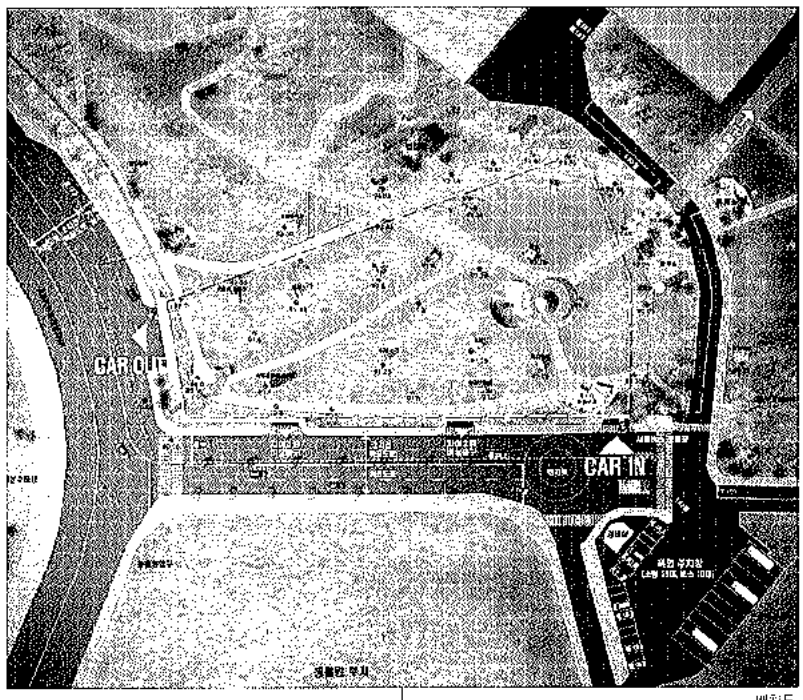
지상 옥외조각공원의 원형 보존

- 주차장 상부에 위치하게 되는 옥외조각공원에 최소한의 변형만을 가하여 주차장 내부의 수직보행동선과 옥외조각공원 그리고 미술관 진입로를 효율적으로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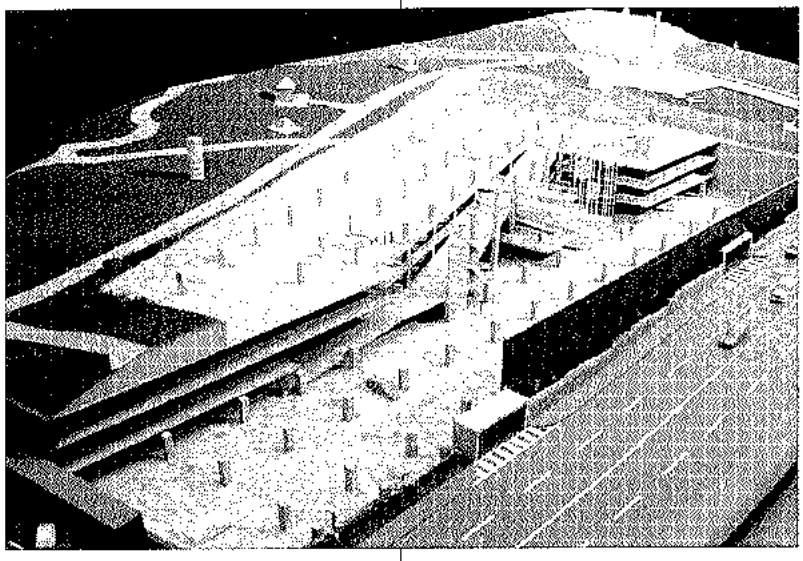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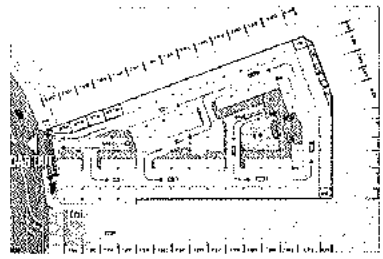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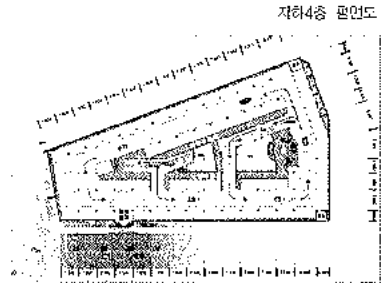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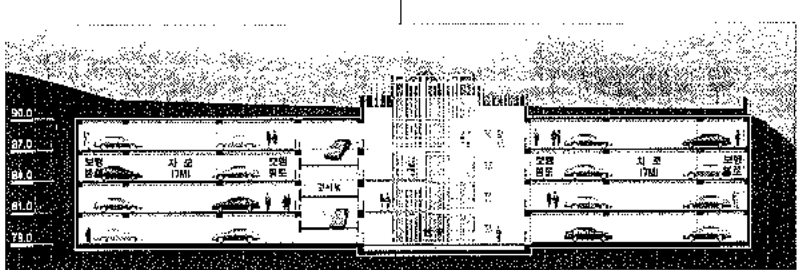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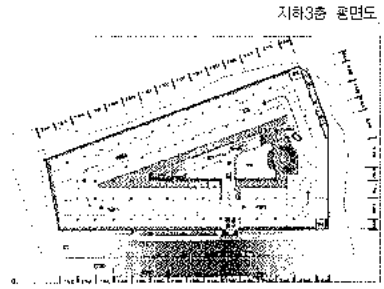
지하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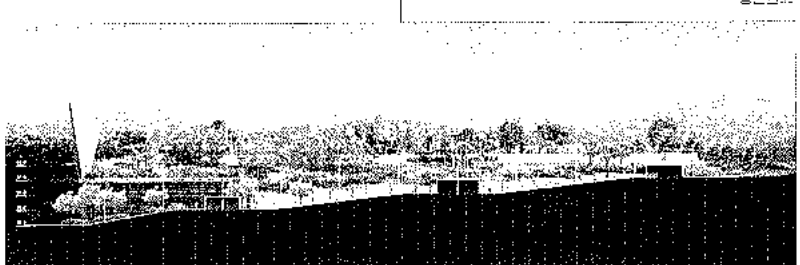
지하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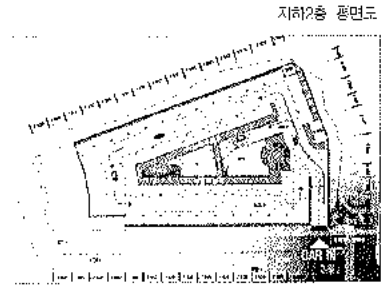
종단면도



지하2층 평면도



남측면도



지하1층 평면도

영덕문화체육센터

Yeongdeok Culture & Sports Center

▶ 당선작 / (주)건축국종합건축사사무소(김영수 · 정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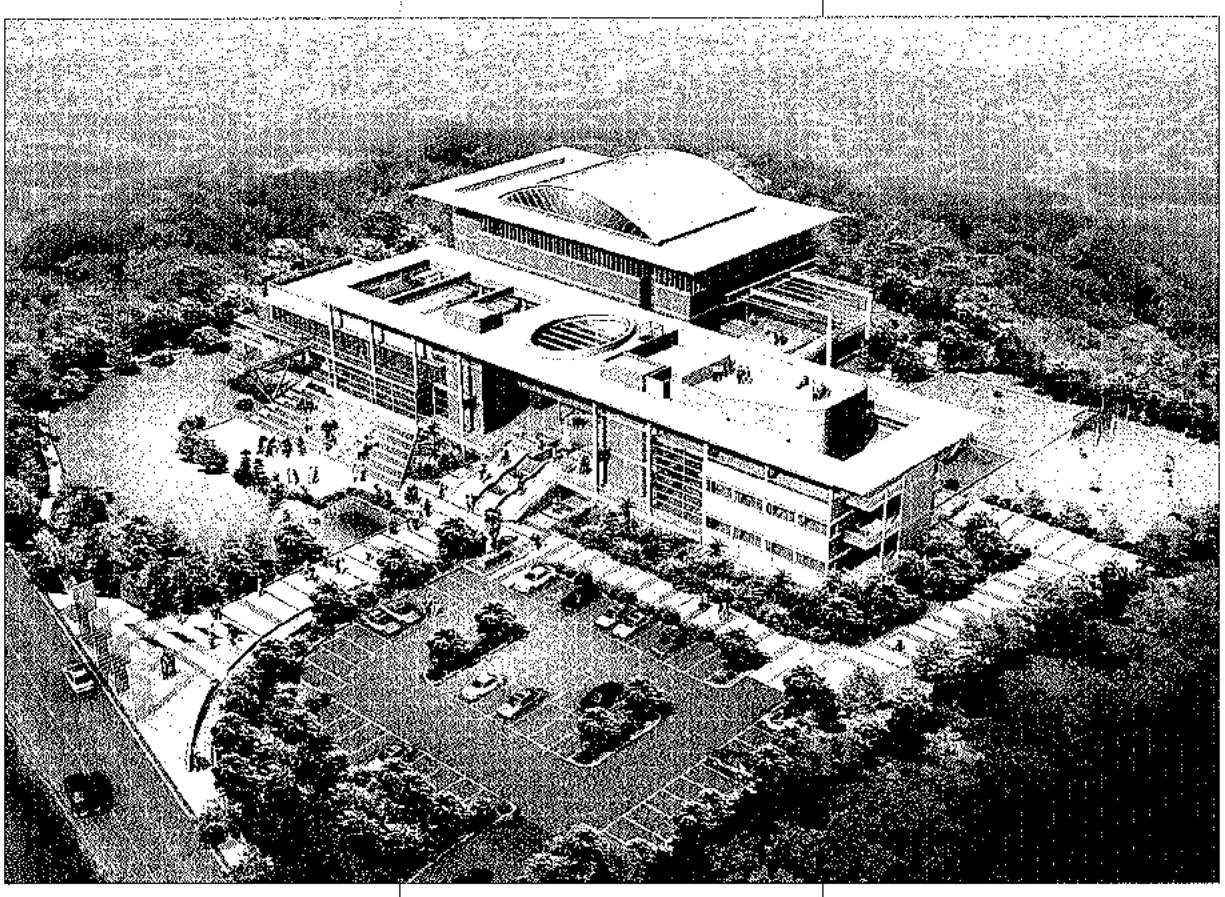
경북 영덕군에서 지역정보화를 확대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 체육 휴양시설 확충을 위해 지난 3월 28일 영덕문화시설(문화체육센터) 현상설계를 실시한 결과 (주)건축국종합건축사사무소(김영수)의 안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우수작으로는 (주)삼원종합건축사사무소(윤철준)의 안이, 가작으로는 (주)유신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김지덕 · 황현명)의 안이 각각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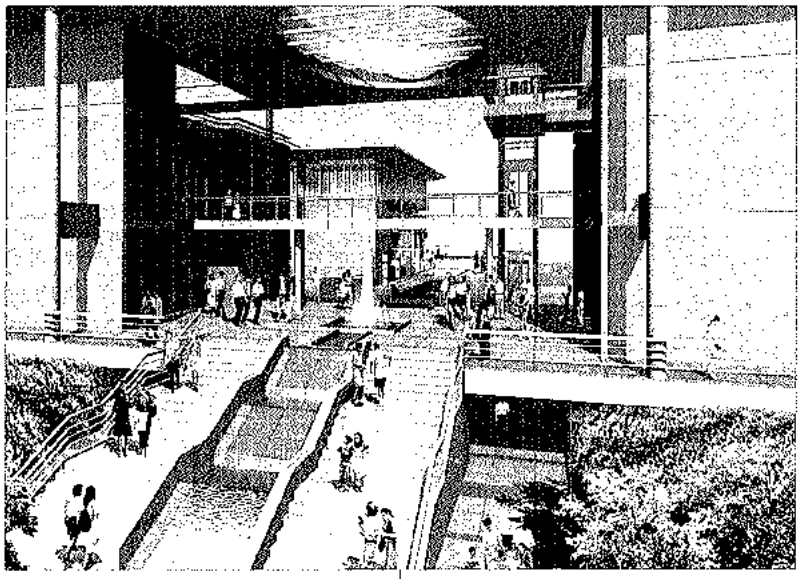
대지위치	경북 영덕군 영덕읍 화개리 608번지 일원
대지면적	16,485.00㎡ (4,987.00평)
건축면적	2,501.89㎡ (756.82평)
연면적	5,025.21㎡ (지하 99.00㎡, 지상 4,926.21㎡)
건폐율	15.18%
용적률	29.88%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주차대수	옥외 자주식주차:53대(장애인주차2대포함), 법정34대
설비개요	냉온수 유니트 방식, 패키지 방식(A/C 방식)-체육관
외부마감	알루미늄 외장재, TPC커튼월-벽돌, THK18 복층유리
설계팀	김 광윤, 강 정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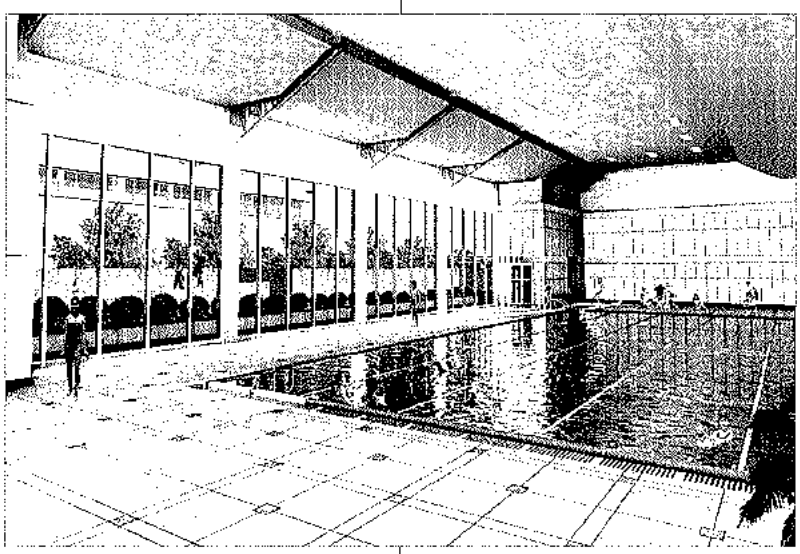
계획대지는 영덕읍 오십천 강변에 접한 과수원 부지로서 오십천 방향으로 열려진 조망이 매우 아름답다. 그러므로 본 계획은 계절의 변화, 자연의 흐름을 건물이 받아들이고 이용자가 그것을 느끼고 즐기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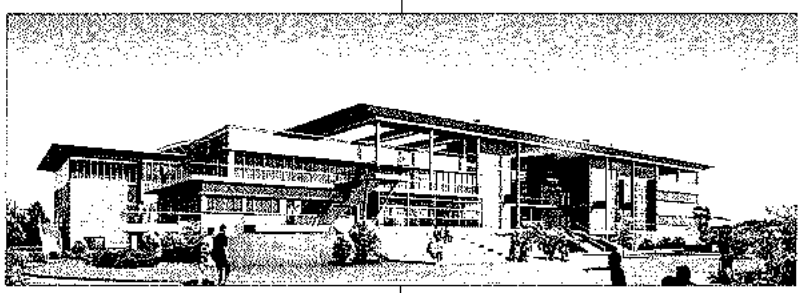
배치계획은 청소년회관과 여성회관을 분동 처리하여 전면에 두고, 농어민체육센터를 후면 배치하여 기능별 분리를 명료하게 하였고, 건물축에 직교하는 중심 보행 축으로 동선별 입체적 연결을 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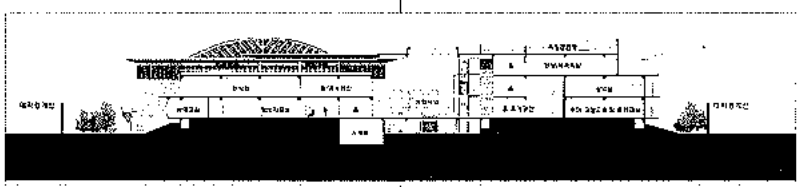
지붕과 옥상정원, 테라스와 사이 마당 등은 주변 경관을 건물로 끌어들이고, 바을 향하여 바라보는 전통건축의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적 특성을 현대적 기법으로 재해석하여 구성하였고, 건물의 전체와 부분의 통합과 분리가 자유스러운 공간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위엄과 생동감을 도출해 내고자 노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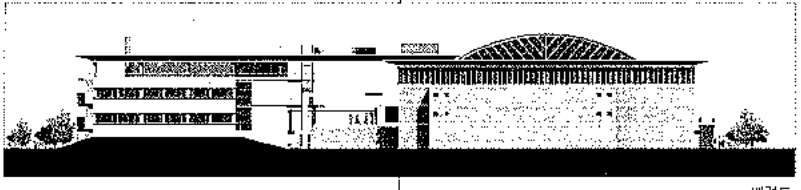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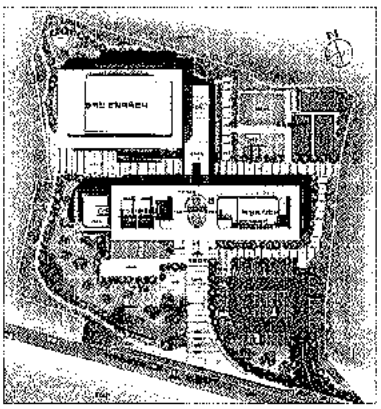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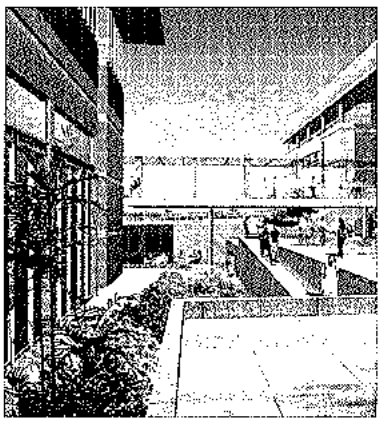
횡단면도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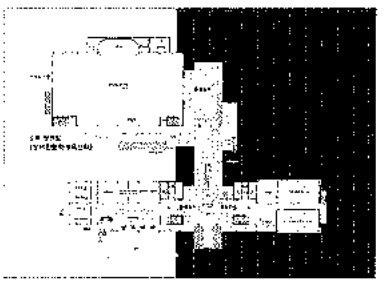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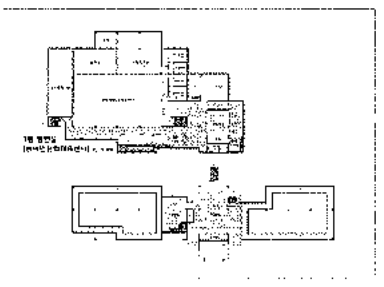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 우수작 / (주)삼원종합건축사 사무소(윤철준)

대지위치	경북 영덕군 영덕읍 화개리 608 번지 일원
대지면적	16,485.00㎡
건축면적	2,902.25㎡
연면적	4,960.00㎡
건폐율	17.71%
용적률	20.42%
구조	철근콘크리트 조 및 일반철골조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주차대수	34대
외부마감	알루미늄시트감기, 커튼월
설계팀	김갑부, 심살벙, 성모경, 신재원, 강진구

계획의 목표

- 21세기 환 동해안 시대를 맞아 동해안 거점 지역으로의 도약에 대비함
- 종합적인 문화 · 청소년 수련시설 · 여성 복지 공간으로서 예술성과 기능성을 가진 시설계획
- 사회 환경 및 경제적 상황 변화 및 주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

미래지향적인 문화 공간 실현

- 진취적, 현대적 이미지 미래지향적 조형 이미지 실현
- 생동감과 풍요로움을 제공하는 문화 공간
- 쾌적한 문화 공간 및 내 · 외부 공간
- 친환경적인 문화 공간
- 개방성과 접근성이 뛰어난 이용자 중심 공간구성
- 지역주민의 정서함양 공간으로 계획

다목적 복합 문화시설

- 교육, 정보, 문화의 장으로서 공간적 융통성 계획
- 각종 중, 소규모 공연 및 이벤트 수용을 위한 다목적 문화 공간으로 계획
- 건전한 놀이문화 및 심신수양의 장
- 가변형 공간계획으로 사용상의 융통성 고려
- 기능에 따른 적절한 공간의 독립 및 연계

경제적 공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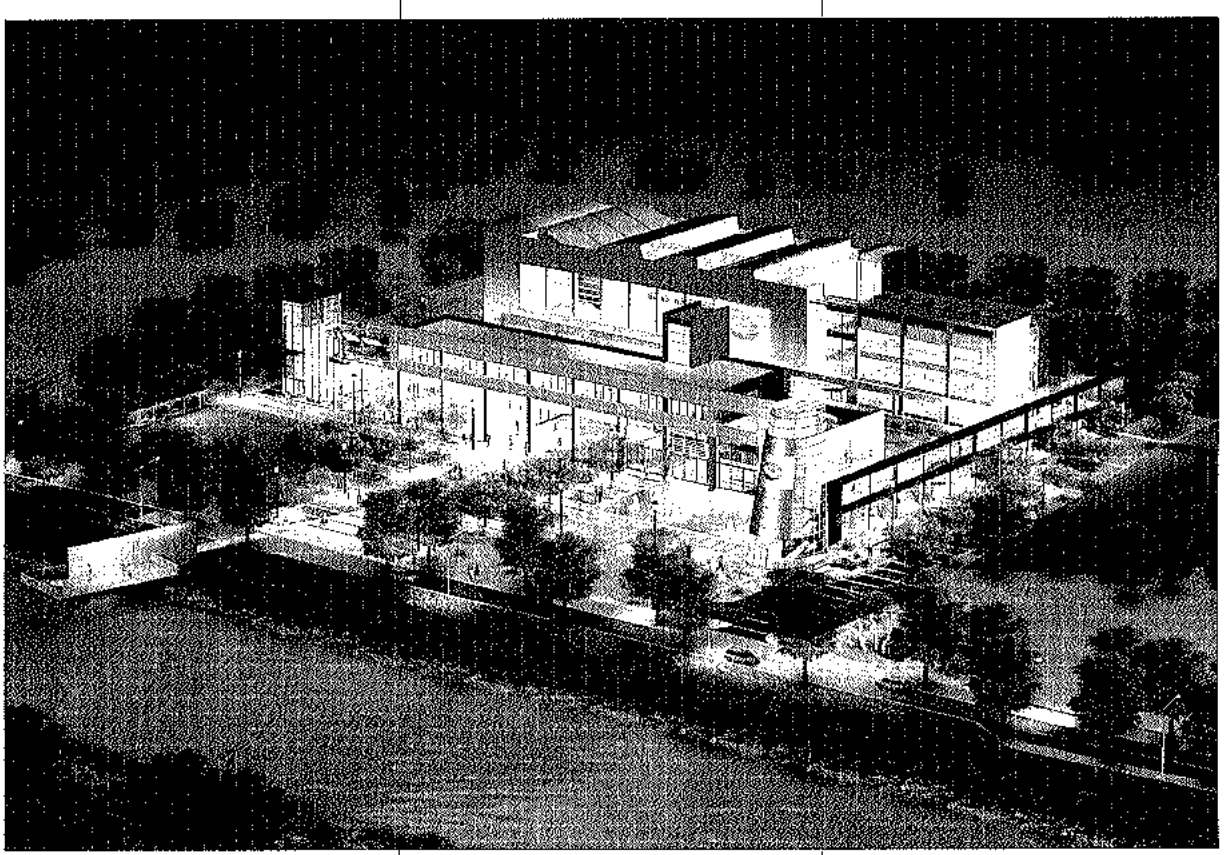
- 경제적이며, 시공이 용이한 재료 사용
- 유지관리의 용이성 고려
- 내구성, 안전성을 고려한 재료 및 공법 선정
- 에너지 절약적 측면을 고려한 각부 계획

배치계획

- 단지 전체의 주축에 의한 건물 축 설정
- 주요실의 남향배치
  -공간의 실내 환경 개선(자연채광, 환기)
- 다양한 외부 공간 및 녹지계획
- 건축적 산책이 가능한 체험적 외부 공간 계획
- 대지 지형 및 주변 환경을 적극적으로 이용
  - 강한 진입유도
  - 소음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외부공간의 배치 ZONING
  - 외부 자연환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열린 이미지의 공간 계획
  - 주변지역에 대한 인지성 및 입면의 정면성을 고려한 매스 배치계획

동선계획

- 전체 부지에 대한 명확한 진입동선 계획
- 주진입부에서부터 진입부 전면 진입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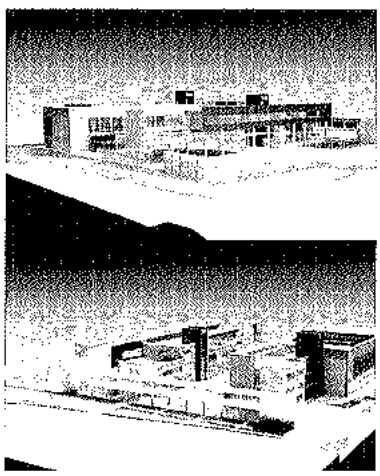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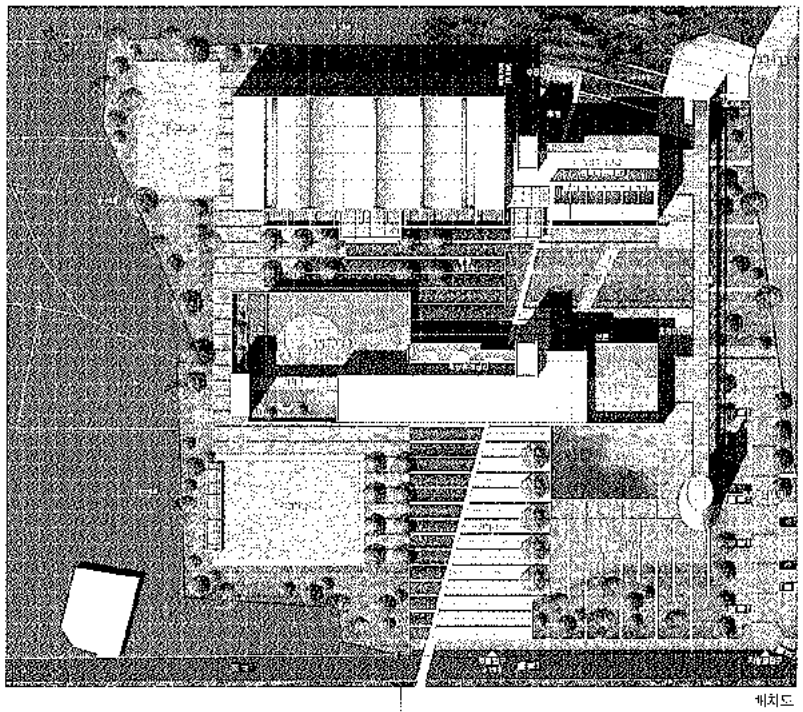
당을 동선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외부 휴게 공간으로 계획
- 바닥패턴 및 조형물, 수목식재

• 본 문화체육센터와 주변과의 시각적 · 기능적 연결성을 고려한 주출입구, 부출입구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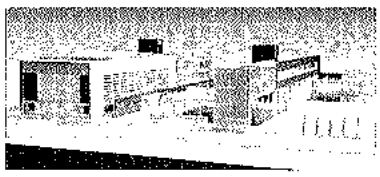
• 내부 기능을 고려한 다양한 출입동선 및 내부 동선 연결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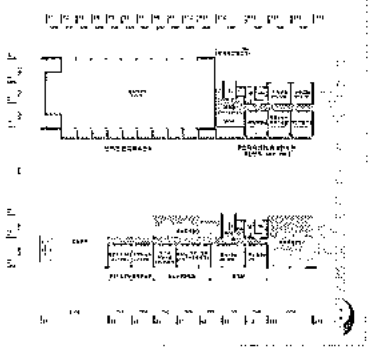
• 옥외 공간의 성격에 따른 직접적? 간접적 동선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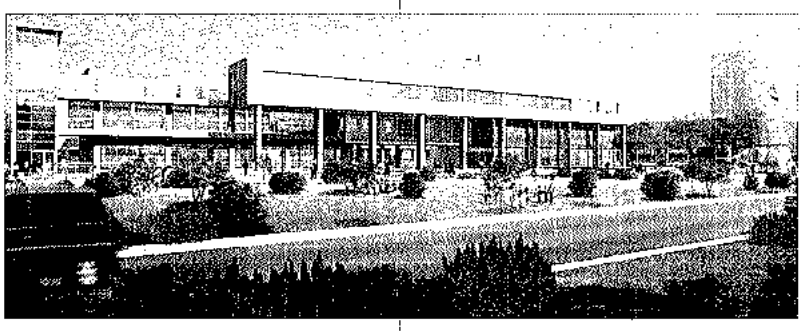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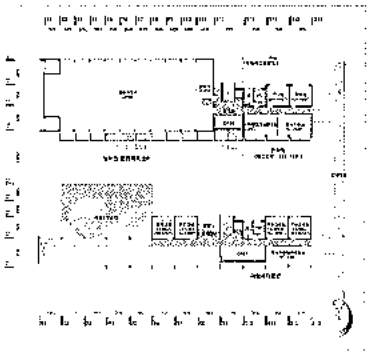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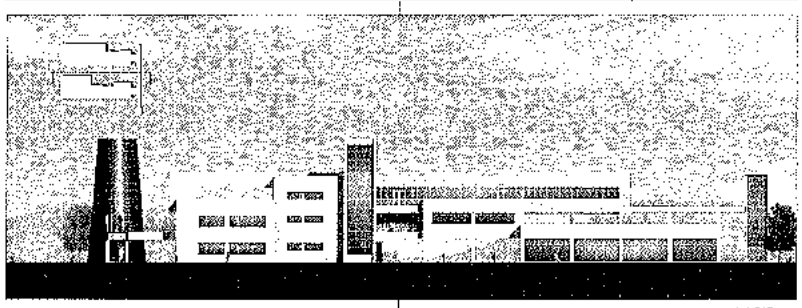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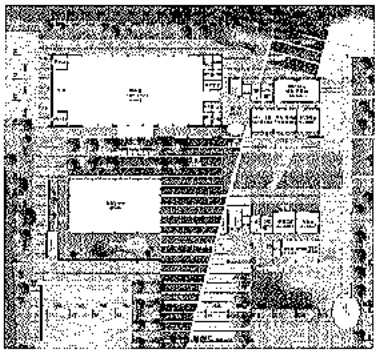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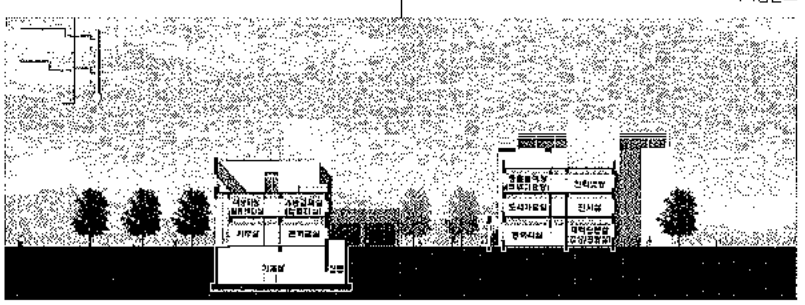
2층 평면도



북측입면도



1층 평면도



종단면도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증축

Chung-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 당선작 / (주)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노형래)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은 시설 확충을 위한 의과대학 증축 현상설계경기를 실시하여 지난 5월 20일 작품을 받아 5월 23일 중앙대학교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주)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노형래)의 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고 지난 5월 25일 발표했다.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학교 내
연면적	2,820.0㎡ (853.1평)
규모	지상 5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일부 철골 트러스구조
외부마감	THK24 로이복층유리, THK3 알미늄 쉬트, 아연도강판
설계팀	고종준, 주영준, 최정훈, 허 한, 김동원, 이후공, 권영환, 김진환, 김영주

계획개념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증축은 시설의 확충이라는 기능적인 면 못지않게, 부지가 가지는 장소적 특성이 중요한 곳이다. 부지는 캠퍼스의 동측경계 인접 주택지로 향한 경사면에 위치하며, 협소한 대지여건에 의해 학생회관을 향한 증축의 방향성을 가진다. 이로인해 대지의 경계를 따라가는 긴 매스는 캠퍼스 밖으로의 조망을 단절하고 전면도로의 성격을 재설정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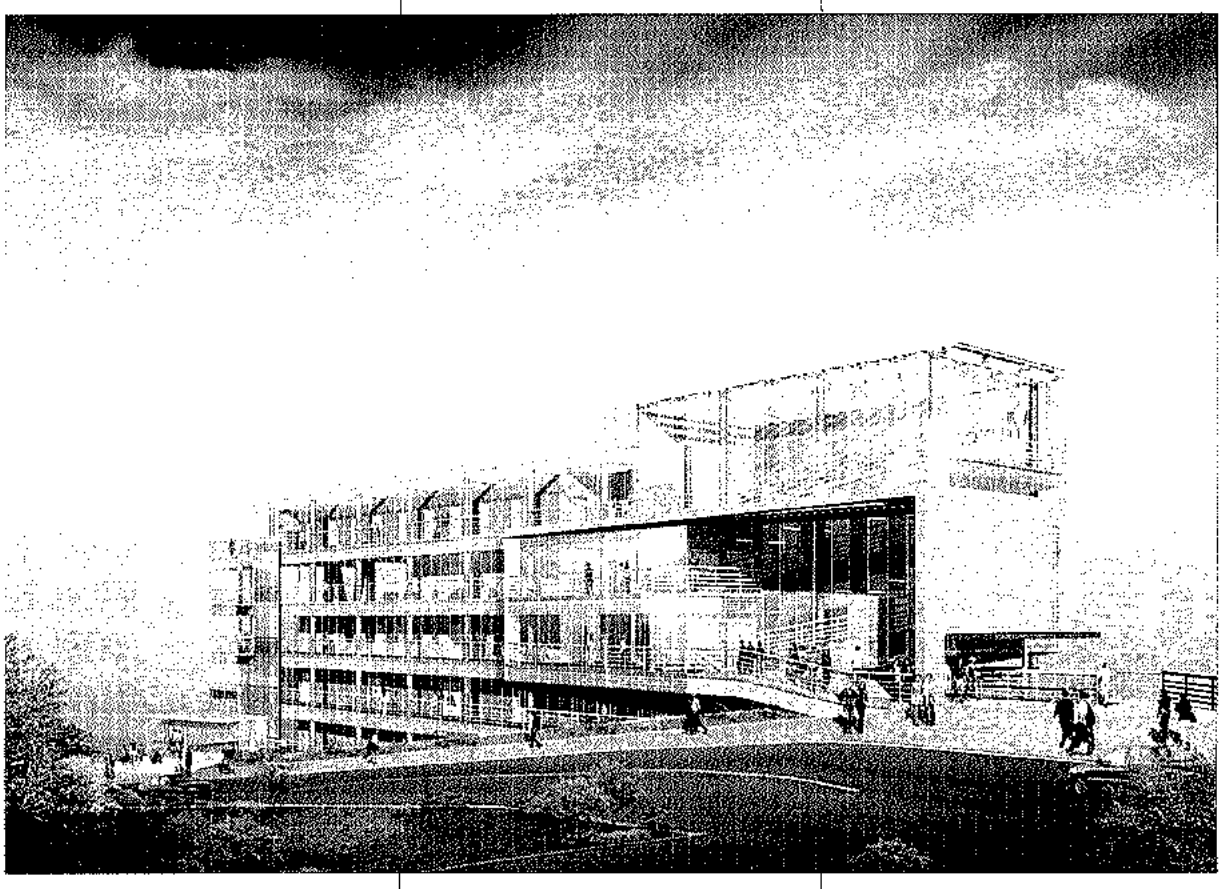
따라서 본 계획의 주안점은 캠퍼스 안과 밖, 캠퍼스 내 도서관과 학생회관, 의과대학 본관과의 관계를 재해석 함으로써, 현재 중앙대학교 정문계획에서 보여준 캠퍼스의 개방적 성격에 부합하고자 한다.

배치계획

장기적인 캠퍼스 발전계획을 고려한 전면도로의 일부조정으로 기존 의과대학과의 연결부분 부출입구에 전면 진입공간을 확보하고, 학생회관과 도서관쪽 진입을 고려한 주출입구에 대지 경사면을 활용한 데크를 계획해 동선의 혼잡함을 완화하고 캠퍼스 안과 밖을 관통하는 커뮤니티 및 휴게공간을 제안 하였다.

형태 및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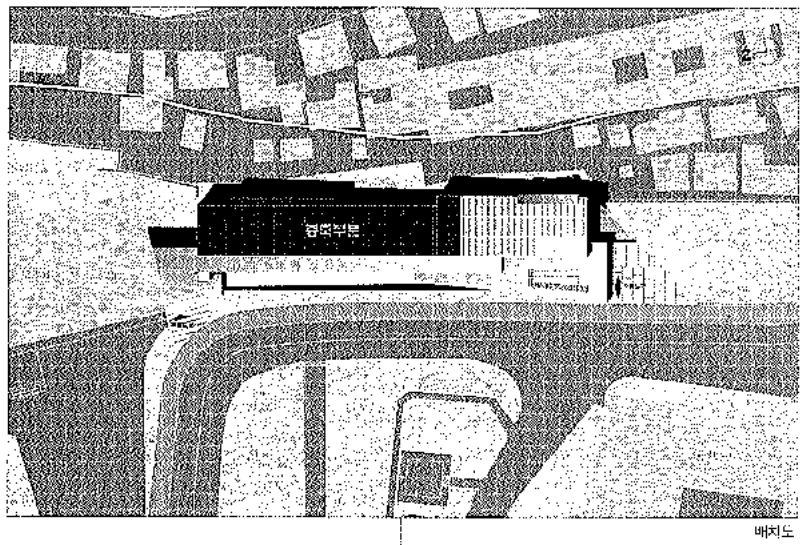
좁은 전면도로에 면하는 긴 매스의 위압감을 해소하기 위해 대형공간의 계단식강의실을 투명하게 처리하고 진입부의 필로티 처리로 인한 개방감을 확보하였다. 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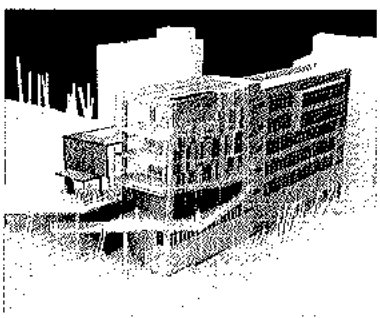
한 매스의 돌출과 다양한 외벽재료의 사용, 강의실 외벽의 슈퍼그래픽 계획으로 활기넘치는 캠퍼스의 다양한 움직임을 드러내려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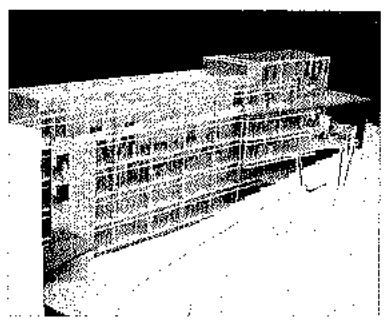
단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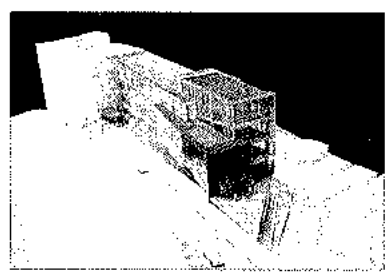
부지의 지형이 동-서, 남-북 양방향으로 경사져 주출입과 부출입이 각각 3층과 1층으로 경사를 따라 자연스럽게 진입할 수 있게 하였으며, 동-서 방향의 경사로 인한 동측 지하층 부분은 필로티 처리하여 차후 필요실로 사용할 수 있게 고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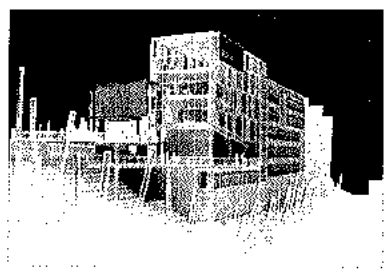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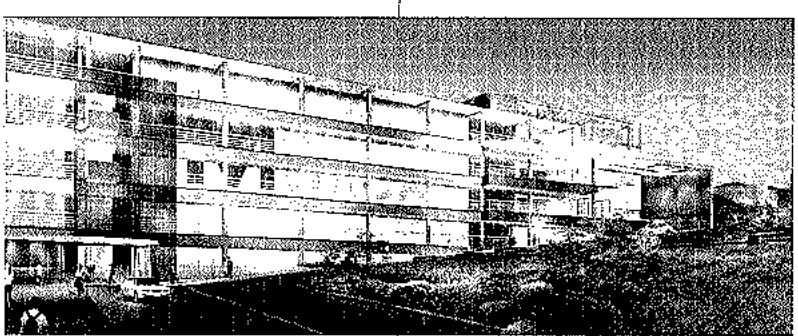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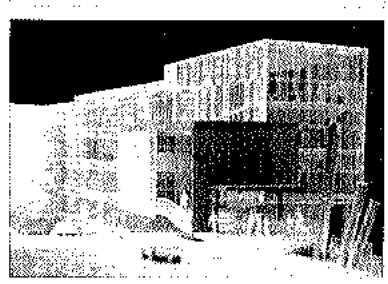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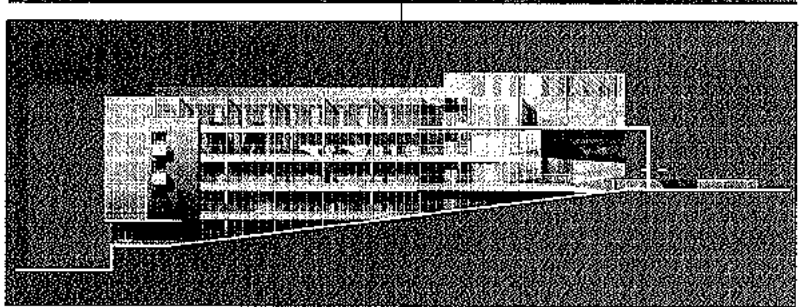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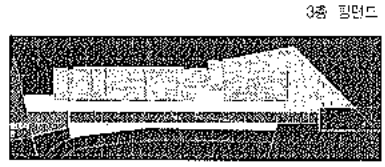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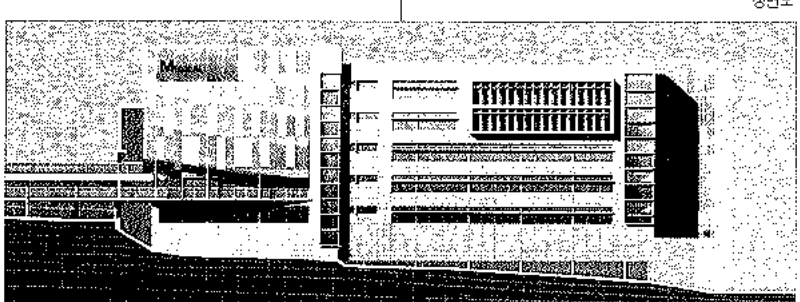





정면도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배면도

1층 평면도

a+u

신건축

건축문화

a+u

2003년 5월

이번 호의 특집은 벨기에의 건축이다. 총 두 편으로 나누어 기획된 벨기에 건축 특집은 이번 호에서 그 첫 편으로 주택을 다루었다. 에세이를 통하여 벨기에 주택의 전통과 특징을 소개하고 최근 변화해 가는 벨기에의 주거문화속에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건축가들의 작품들이 소개되었다. 「Driving Through Belgium」이란 특집의 제목은 전국의 전원도시에 주목할 만한 작품들이 산재해 있는 벨기에의 건축 상황을 잘 말해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 벨기에의 건축 - 주택

벨기에의 건축은 더 이상 '고요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중견 건축가에서부터 전도 유망한 젊은 건축가에 이르기까지 힘 있으면서도 비교적 소규모의 작품을 차례로 내놓고 있다. a+u에서는 2개월에 걸쳐 「Driving through Belgium」이라는 벨기에 건축의 특집을 기획하였다. 그 중 이번 호에서는 주택에 초점을 맞추었다. 마텐 델베이크(Maarten Delbeke)는 그의 에세이 속에서 「현대건축에 대한 통찰을 얻으려면 어찌되었든 자동차로 다양한 장소를 돌아보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뛰어난 작품들의 많은 수가 교외의 사유지나 전원의 도로 근처에 위치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벨기에 국내의 다양한 장소를 좇아가며 지도에 마킹한 순서대로 선별된 현대건축을 소개해간다. 모든 건물이 벨기에의 지형이나 풍경과 관련성을 지니고 있으며, 빔 퀴버스(Wim Cuyvers)도 이러한 연결고리를 무시하고서는 벨기에의 현대건축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한다.

■ 에세이: 「벨기에인의 주택 - 공유와 독립의 전통(The Waiting Facade and the Field of Fire)」, 빔 퀴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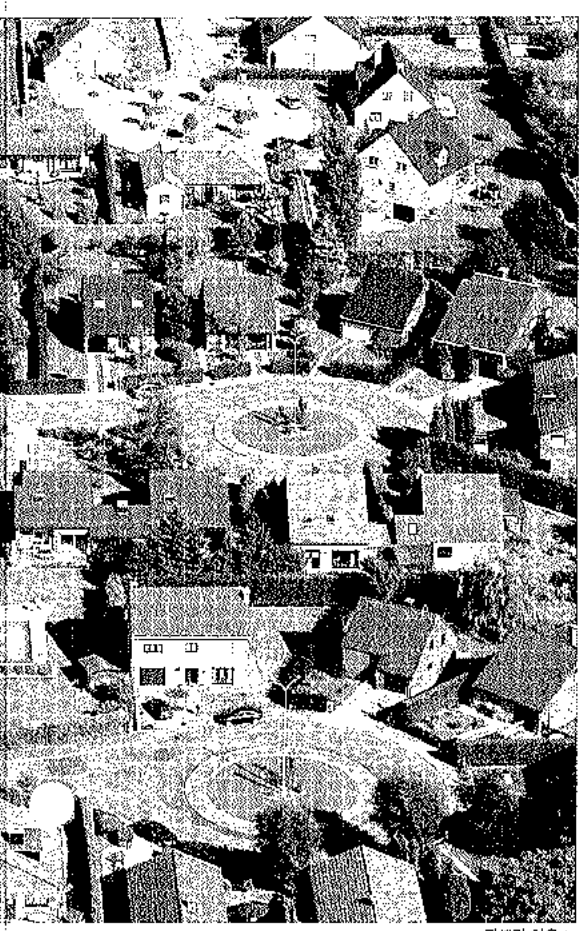
▶벨기에인의 주택 이야기

벨기에인의 주택을 흔히 '개인의 주택'이라고 이야기한다. 벨기에인은 그들의 근린(近隣)과 강한 유대를 갖고 있다. 그들은 흔히 그들이 성장해온 지역 근처에 자신의 주택을 건설한다. 벨기에인들은 주택을 은행의 저축이나 여타의 투자보다도 가장 확실한 투자의 대상이라고 믿고 있다. 그들은 과세정보에는 오르지 않는 여타의 부업을 통해 주택을 건설한다. 공동체적인 사상을 믿지 않는 그들은 정부나 여타의 행정기관이 자신들의 연금을 통해 생활을 보장해줄 것이라 생각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들이 그러한 조직들보다도 자신의 저금통을 가득 메워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리하여 벨기에인들은 감추어진 사업을 통해 얼마만이라도 돈을 더 모으려 해왔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벨기에인들의 전부 혹은 대부분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지어왔다. 필요한 경우에는 형제나 친척의 손을 빌리기도 한다. 남자들은 휴일이나 휴가기간에는 자기 자신이나 친척의 공사현장에 나가있는 것이다. 벨기에인들에게는 공들여 지은 주택들은 자식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며, 언제든지 이익을 챙겨가며 매각할 수 있는 자산이다.

▶로우 하우스의 출현

로우 하우스는 그 수가 많건 적건 동심원상으로 퍼져나가는 경우가 많고 도시나 촌락의 간선도로변에 서있다. 로우하우스는 벨기에의 탄생(1830년)이래 계속해서 건설되어져 온 것으로 산업혁명이 가져다준 산물의 하나이다. 벨기에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리본 디벨롭먼트'라고 부르고 있다. 로우 하우스는 전면에 마당을 갖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집들도 있다. 로우 하우스는 폐쇄된 주택인 것이다. 주택의 정면 파사드의 창은 언제나 커튼 혹은 브라인드가 드리워져 있거나 절대 꽃이 필 것 같지 않은 번들번들한 식물의 화분들이 놓여서있다. 가로에 면한 1층의 방은 평상시에는 비어있다. 이 방에는 흔히 카펫위에 놓인 6인용 테이블과 찻잔세트를 담은 진열장, 그리고 보기 좋은 화병과 작은 조각품들로 장식되어있다. 이 방에는 특별한 손님을 대접하거나 죽은 사람의 관을 잠시 안치하는 장소로 쓰인다. 길에 면한 방은 죽은 방이다.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도 죽은 아버지의 시신을 보관해 뒀던 이 방에서 딸의 약혼파티를 한다. 반면 주택의 안쪽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내적이고 사적인 공간이 되며 마감재도 값싼 것으로 바뀐다. 주택의 측면에는 일절 개구부가 없다. 이는 바로 옆에 주택을 지을 경우 합벽(合壁)하여 이어지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 벽은 「웨이팅 파사드」로 불린다. 옆의 주택이 연속해서 지어지길 기다린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에세이의 저자 빔 퀴버스는 이를 뭔가 주변과 소통을 기다리는 인간의 모습과 닮았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파사드의 특징들이 벨기에 주택의 성격을 잘 말해준다고 한다.


파셀링 하우스

▶파셀링 하우스(parcelling-house)로의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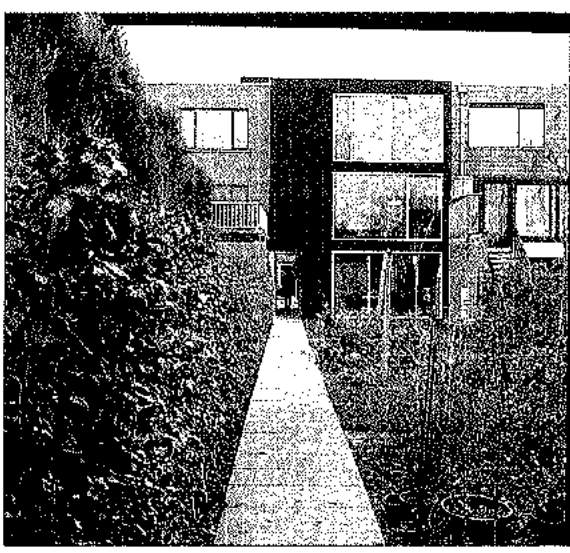
벨기에 주택유형의 커다른 두 줄기는 앞서 언급한 로우 하우스와 주택을 한 채씩 독립적으로 세워진 파셀링 하우스이다. 파셀링 하우스는 주로 20세기 후반에 개발되었다. 로우 하우스에서 파셀링 하우스로 이전하는 시기에는 주택이 서로 떨어져 있더라도 옆 벽면에 거의 개구부를 만들지 않는 과도기적인 주택들이 존재하였다. 파셀링 하우스의 개발은 자동차 교통의 발달에 기인한다. 좀더 넓은 면적에 흩어져 사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파셀링 하우스에서 인접한 주택의 경계는 주로 수목으로 이루어진 담으로 구획된다. 이 담 또한 합벽의 개념이 적용되며, 담의 앞면과 뒷면의 구분이 사라진 채 한 주택의 토지구획 전체를 감싼다. 빔 퀴버스는 도로에 면한 이 담과 도로에서 뒤로 물러서 있는 주택의 파사드 사이에 놓인 정원을 「전장(戰場)」으로 표현하였다. 도로에 선 낯선 이의 시선과 주택 내부로부터의 시선이 교차되는 곳이며, 서로 자신의 영역임을 주장하는 싸움터인 것이다. 벨기에인들은 남과 달라 보이는 것을 좋아한다. 주택에도 이러한 성격이 표현되나 그 다양성은 크지 않다. 주택들은 서로 다르면서 또 비슷하다. 남달리 희려하게 주택을 만들지 않는 점은 관한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이러한 특성으로 외국인의 눈에는 신기하게 보이는 벨기에의 평균적이고 균질한 주택풍경이 완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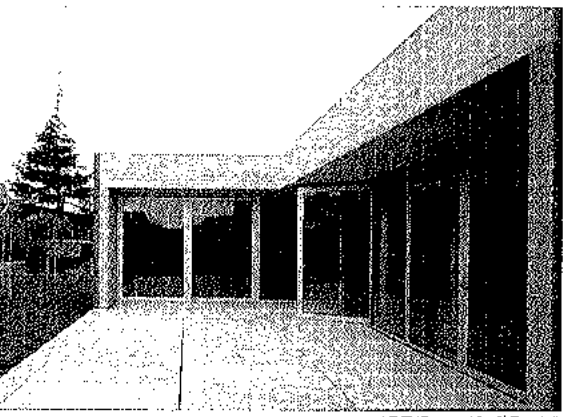
▶주택문화의 변화와 건축가들의 새로운 시도

이러한 벨기에의 주택문화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기존의 주택문화를 만들어온 기독교적인 윤리로부터 이미 많이 벗어나 있다. 정부와 개발업자들에 의해 아파트가 세워지기 시작했으며, 남자들은 휴일에 집을 손보는 것보다 더욱 흥미 있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벨기에의 주택이라는 것이 급속하게 사라져가는 시점에서 젊고 열정에 넘치는, 훌륭한 교육을 받은 건축가들이 벨기에의 주택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벨기에의 건축법규(강제적인 지붕의 경사도나 층 수 제한, 주택 배후의 증축부분의 합병 등)의 현실을 무시한 것 같은 모습에 개인이 품고 있는 주택에 대한 꿈을 결합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들 건축가들이 벨기에의 주택에 대한 노스텔직한 느낌과 함께 주택을 아무리 주의 깊게 계획하더라도 거기에는 어딘지 모르게 겉도는 느낌이 있다. 컨셉트화와 함께 공동(空洞)화가 시작되고 있다. 건축가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벨기에의 주택이라는 개념에 활기를 불어넣었지만, 동시에 그것이 지니고 있던 평범하지만 진솔했던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작품소개

소개된 사례들은 얼핏 보기엔 좁고 긴대지에 지어진 사례가 많다는 점 이외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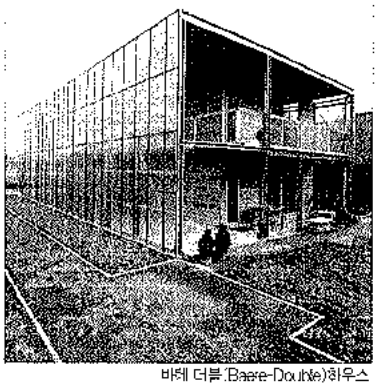

Nolet & Huyghe House(자신들의 주택이자 사무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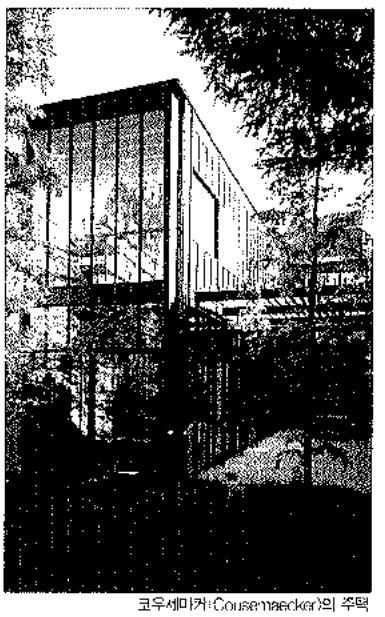
브르쥬(Brugge)의 하우스 I, II

별다른 특징을 발견하기 어려운 현대의 전원주택들처럼 보인다. 그러나 빔 퀴버스가 자신의 에세이를 통해 밝혔듯이 벨기에의 건축가들은 변화하는 자국의 주택문화속에서 치열한 싸움과 끊임없는 탐구와 실험을 통해 그들의 새로운 주거의 모습을 탐구하고 있는 것이다. 소개된 작가와 작품들로는 토마스 놀랫 & 힐데 휴게(Tomas Mollet & Hilde Huyghe)의 「Nollet & Huyghe House(자신들의 주택이자 사무소이다)」 드소바세 모하마디 아키텍튼(Dessauvage-Mohammadi Architecten)의 「브르쥬(Brugge)의 하우스 I, II」, 빔 퀴버스의 「바테 더블(Baete-Double)하우스」, 마리 죠세 판 히(Marie-Jose Van Hee)의 「키어스맥커(Keersmaecker)의 주택」, 폴 로브레힛 & 힐데 담(Paul Robbrecht & Hilde Deam)과 마리 죠세 판 히의 공동 작품인 「코우세마커(Cousemaecker)의 주택」 등이다.

키어스맥커(Keersmaecker)의 주택



바테 더블(Baete-Double)하우스



코우세마커(Cousemaecker)의 주택

신건축

2003년 5월

이번 호에서는 「와카노우라(和歌の浦)아트 큐브(시모히고시 타케토/A.A.E.)」, 「豊島學院高校·昭和鋸道高校新4호관(키타가와라 아쯔시 건축도시연구소)」, 「루이뷔통 高」 등의 최근 작품이 소개되었다. 연재물로는 「환경과 디자인」의 네 번째 순서로 설계와 시공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환경 설계의 최신 사례들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연재: 환경과 디자인 그 네 번째 - 현장에서 배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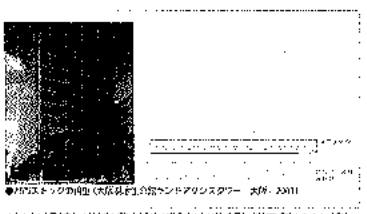
환경 친화적인 건축에 대해 다루고 있는 연재물의 4번째 기획으로 이번 호에서는 설계의 현장과 시공의 현장에서 이루어진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게재된 환경설계의 사례들 중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도시자원의 재생(오사카 메이지생명관 랜드액시스타워, 오사카, 2001년 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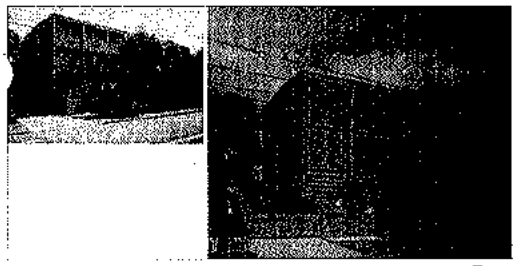
준공 36년을 경과한 구 건물 지하구체(軀體)의 대부분을 재생·활용하였다. 면진(免震)구조를 기초와 기초 상부의 건물 사이에 삽입하여 새로운 도시자원을 구축한 사례이다. 기존 지하구체의 60%를 이용하였으며, 콘크리트의 연명화 대책을 시행, 앞으로의 내구연한을 100년으로 하는 장수명화를 실현하였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2002년 일본건축학회상(기술부문)을 수상하였다.

▶ 컨버전(鈴溪南山미술관, 나고야, 2001년 준공)

독신자 아파트였던 기존 건물(1989년 준공)을 미술관으로 재생한 컨버젼이다. 기존의 건물을 미술관으로 개조하기 위해 파사드, 바닥 슬래브 등이 재편성되었다. 결과적으로 기존 구조체의 2개 층 부분을 1개 층으로 만들어 기존건물에 존재했던 풍부한 공간을 살리면서 미술관에 적합한 공간을 얻어내었다. 라이프사이클건축의 한 방향을 제시한 사례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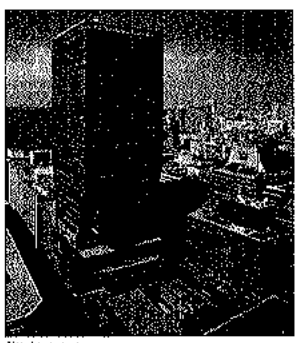
도시자원의 재생(오사카 메이지생명관 랜드액시스타워, 오사카, 2001년 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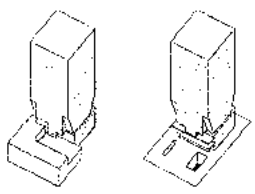


컨버젼(錢溪南山미술관, 나고야, 2001년 준공)

▶ 도시환경(도심부)의 리컨스트럭션(동경 산케이빌딩, 동경, 2002년 준공)

도시환경의 재구축, 100년간 성장하는 빌딩으로서 자산 가치를 향상, 글래스 건축과 페리메터리(視界)시스템, 熱源·搬送계에서의 철저한 에너지 절약(이 건물은 일본의 제40회 공기조화·위생공학학회상을 수상하였다)이라는 4가지를 환경의 테마로 설정한 건물이다. 특히 기존 건물 3동을 단계적으로 해체하여 고층 타워와 전면광장을 구축한다는 도시환경의 대범한 재건축이 환경계획에 있어서 원점이 되는 테마이다. 좀더 자세히 말하자면 동경 산케이 빌딩은 기존 건물 3개 동의 일부를 가동시키면서 재건축을 해나가는 재개발계획이었다. 가동하는 동(東)측 본관(신문사)을 오버행잉(over-hanging)해가며 최대의 용적률을 확보하기 위해 본관의 형태를 감싸는(본관과 접하는 부분이 움푹 들어간) 건물의 형태가 완성되었다. 본관 해체 후, 캔틸레버로 된 임대 사무실과 지하공간을 구축하였다. 주변지역은 오피스의 집중, 가로구획의 협소함 등으로 기존 건물들은 상당히 근접한 간격을 두고 세워진 경우가 많았다. 산케이빌딩은 용적률을 확보하여 사업성을 중시하면서도 주변지역이나 도시환경의 개선을 이룰 것인가를 함께 추구하여 「도시환경의 재구축」을 목표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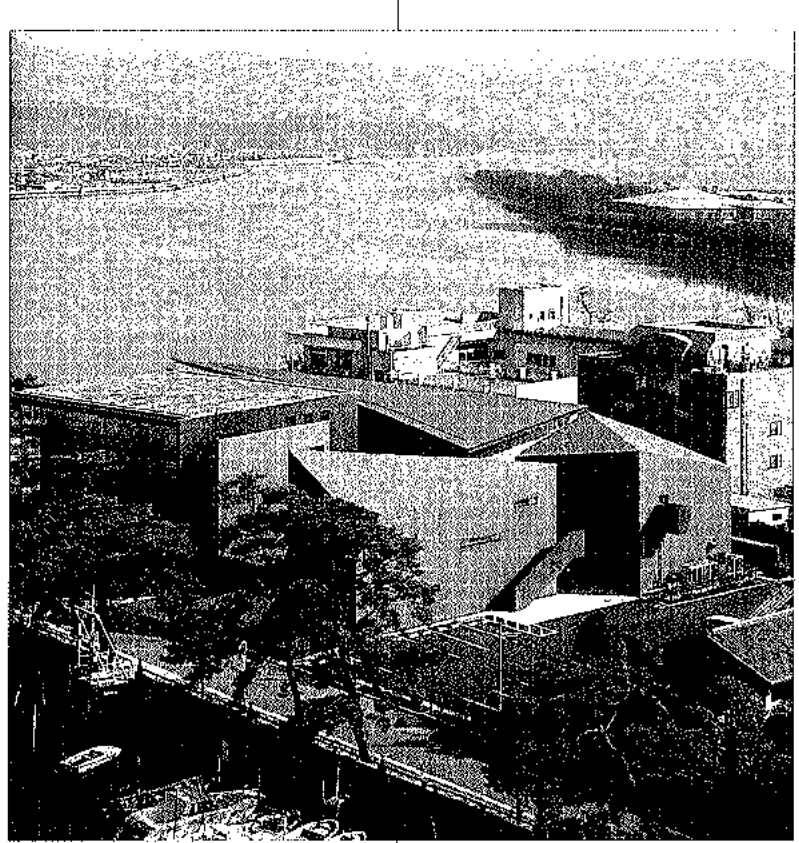
도시환경(도심부)의 리컨스트럭션(동경 산케이 빌딩, 동경, 2002년 준공)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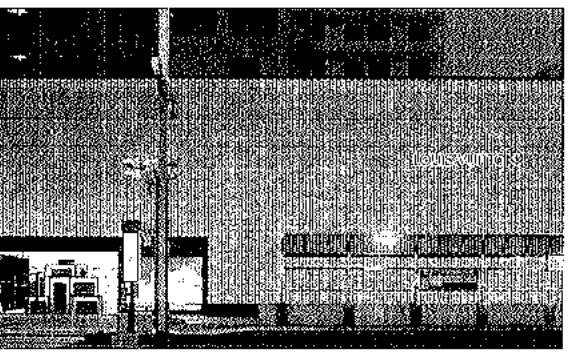
▶ 와카노우라(和歌の浦)아트 큐브 -시모히고시 타케토(下吹越武人)/A.A.E. 설계

2001년에 이루어진 프로포절 콤페는 건축적 제안과 그 프로그램의 제안이 함께 이루어진 사업콤페의 성격이 강했다. 시모히고시의 사무소는 젊은 아티스트들에게 개방하는 아뜰리에를 중심으로한 「아트센터」를 주요 용도로 정하였다. 여기에 「셀」이라 이름 붙인 작은 상자들을 부지내에 분포시켜 자유롭게 산보할 수 있는 광장과 같은 이미지를 제안하였고, 설계자로 당선되었다. 이들은 곧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고 자신이 설정한 시설과 유사한 시설의 관계자의 자문을 받고, 지역주민의 의견 청취 및 워크샵을 반복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갔다. 워크샵에서는 설계사무소가 중심이 되어 모형을 사용하여 건물과 그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교환을 해나갔다. 이를 통해 각 「셀」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규모, 배치를 결정하였다. 결과적으로는 부지와 예산부분 이외에는 모두 이와 같은 토론을 기초로 결정해 나간 셈으로, 공공건축으로서는 보기 드문 진행방법이 되었다. 현재에도 시민운영을 목표로 워크샵이 진행되고 있으며, 오픈을 향한 준비가 계속되고 있다. 아트센터 건물에서 건축공간의 백미는 북측과 동측의 수면을 행해 개방되는 회전 鋼版이 장치된 홀棟의 입면 구성이다.

▶ 豊島學院高校·昭和鐵道高校 新4호관 - 키타가와라 아즈시(北川原溫)건축도시연구소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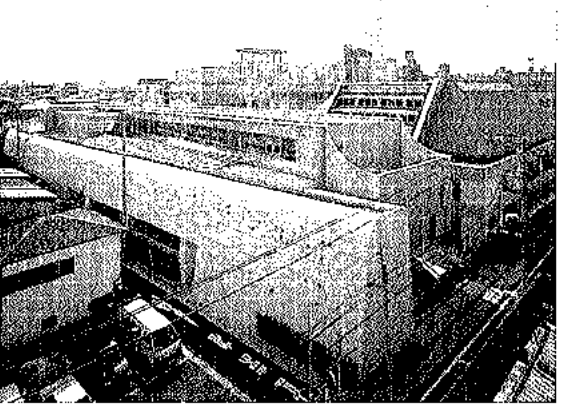
와카노우라-(和歌の浦)아트 큐브



루이뷔통 高知店

豊島學院高校와 昭和鐵道高校는 여러 街區에 걸쳐 시설을 공유하며 복합화 되어있다. 학교가 장래지역사회에 스며든다고 한다면 이 두 개의 고등학교는 이미 그 기초가 형성되어있는 특이한 예라 할 수 있다. 이미 1999년에 완공된 1기분(3호관)과 이번에 완성된 2기분(4호관)은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앞으로 완공될 3기분(2호관)은 작을 골목을 두고 떨어져 있어 브릿지로 연결되게 된다. 또한 이번에 함께 완공된 시뮬레이션관과 실습동은 인근의 필지에 아예 독립되어 건설되었다. 두 개의 고등학교가 시설을 복합화 하여 공유하는 것도 특이하지만 고등학교 교사가 도심의 대학캠퍼스처럼 각 건물이 분리된 채 지역사회에 녹아 들어가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흔치 않은 일이다. 마치 열차를 연상시키는 33개나 되는 특별활동실로 구성된 긴 매스도 이 건물의 특징 중의 하나이다.

▶ 루이뷔통 高知店 - 아누이 쿠미코(乾久美子)건축설계사무소 설계



豊島學院高校 · 昭和鐵道高校 新4호관

일본에서 루이뷔통 점포건축하면 아오키 준의 일련의 작품들을 떠 올릴 것이다. 두 겹의 외피에 새겨진 격자무늬가 중첩하며 만들어내는 이미지는 아오키 준의 루이뷔통 건축으로 이미 유명해져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도시의 번화가가 아닌 지방 소도시에 들어서는 상점으로 설계자도 이누이 쿠미코이다. 점포가 들어서는 주변 환경의 컨텍스트와 설계자 모두가 바뀐 것이다. 이누이의 설계에도 아오키 준의 설계에서 보여 졌던 루이뷔통의 브랜드 이미지(바둑판 모양의 격자무늬)는 그대로 나타났다. 이중 외피를 사용한 점도 동일하다. 그러나 가장 달라진 점은 외피의 재료로서, 이누이는 석재를 사용하였다. 벽돌과 같이 직육면체 모양을 한 백색 석재 블록을 좌우 석재간 간격을 두어가며 붙여나갔다. 결과적으로는 정사각형의 구멍들이 입면에 생긴 셈이다. 그 뒤에는 밝은 색의 정사각형과 어두운 색의 정사각형이 번갈아 나타나는 격자무늬 벽을 세워 루이뷔통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이누이가 재료로서 석재를 사용하게 된 배경은 지역 환경과의 조화 때문이다. 유리나 메탈패브릭과 같은 작업이 쉬운 소재도 검토하였으나, 특징적인 표정들이 별로 없는 지방 도시에서는 너무나 두드러지고 거북한 소재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시공에 많은 손이 가는 석재 블록을 부득이하게 택하게 된 것이다. 이누이의 새로운 입면구성의 시도는 루이뷔통의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어느 정도 아오키 준의 것과 차별을 이루는 데 성공하였다. 표면의 이미지와 재료의 질감 그 중간자적인 성격을 갖는 입면은 낮에는 흰색 블록 벽으로, 밤에는 그 배후의 격자무늬를 투과시키는 반투명의 스크린으로 그 모습을 달리한다.

건축문화

2003년 4월

이번 호에서는 특집으로 렘 콜하스(Rem Koolhaus)의 최근 활동을 다뤘다. 이번 특집은 그의 설계조직인 OMA와 최근 조직된 AMO,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서의 활동을 콜하스 및 그의 주변 인물들과의 직접 인터뷰를 통해 생생하게 전한다. 세계지도를 배경에 놓고 프로젝트의 소재지를 표시해가며 작성한 특집의 목차는 다양한 지역,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잘 나타내 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특집: 「OMA · AMO · 하버드리서치에 관한 최전선 인터뷰 - 렘 콜하스, 변동하는 視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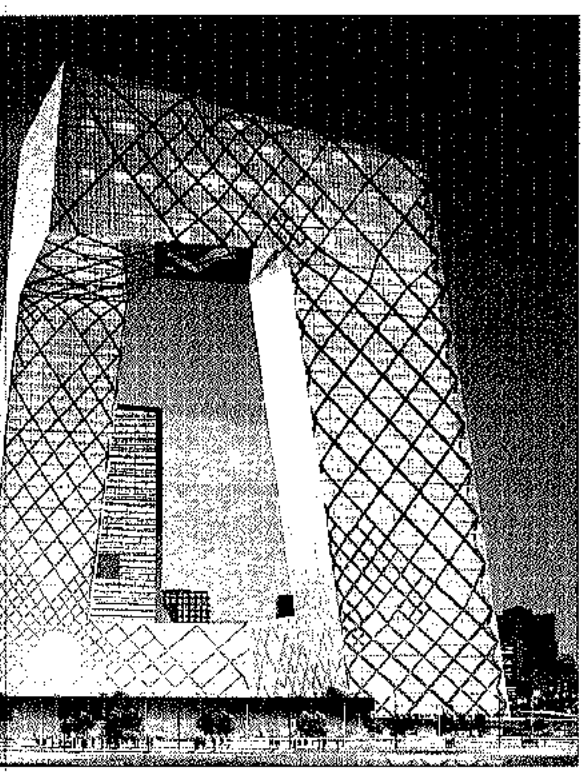
30년 가까이 많은 화제작과 『S,M,L,XL』을 비롯한 저작들에 의해 건축의 세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던 렘 콜하스가 그가 거느린 설계 집단 OMA와 신조직인 AMO을 통해 최근 2-3년간 더욱 주목할 만한 전개를 시작하였다. 건축 · 도시설계(OMA), 도시 및 브랜드 · IT전략구상(AMO), 도시리서치(하버드 대학)라는 종래에는 나누어져 있던 활동을 동시에 병행해 가며 상승효과를 거두어 미증유의 가능성을 차례차례 구체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특집에서는 세계 각지에서 동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들, 최우수안으로 선정된 중국 CCTV 콤페안, AMO의 다층 · 다원적인 프로젝트, 그리고 하버드에서의 부드러우면서 다이나믹한 사고와 시행과정 등을 콜하스와 그의 스탭들, 그

리고 공동 디자이너와의 인터뷰를 통해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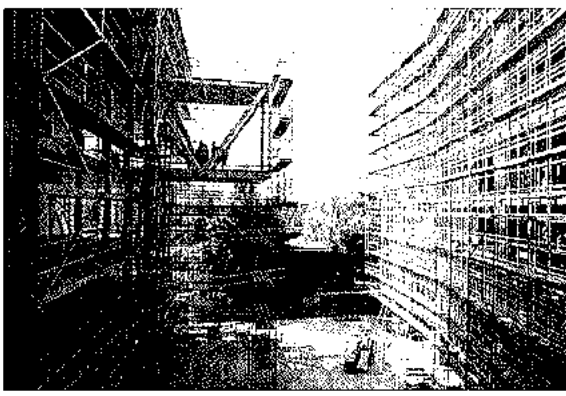
▶OMA와 책

OMA는 왜 어느 프로젝트나 책으로 출간하는가? 여기에는 2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사무소에서의 일의 진행방법이 매우 비쥬얼(시각) 중심이라는 점. 이들은 언제나 사진이나 도면, 그래픽이나 꼴라쥬 등을 매개로 대화를 해나가면서 이른바 하나의 비쥬얼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본래 책이라는 것은 한 줄기 흐름의 화상(畵像)들을 모아서 하나의 스토리, 혹은 하나의 논지나 메시지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 매체인 것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건축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바로 이들의 건축문화인 점이다. 이 문화 속에는 「스토리의 완성」이 커다란 위치를 차지한다. 즉 이들의 프로젝트에 다가가는 태도는 예술적 비전을 추구한다기 보다는 사물들을 편집해나가는 것에 더 가깝다. 기본적으로 이들이 하는 작업은 「선택하고, 조합하고, 재구축하는」것으로 꼴라쥬적, 몽타쥬적 수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책 속에는 실제로 스토리나 시퀀스로서 구성된 부분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관련된 정보들을 단지 집적해 놓은 부분도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모든 정보가 부분적으로는 관련을 맺어 어떤 형태로든 흥미로운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

프로젝트의 시작 단계에서 책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CCTV의 콤페에서도 한 권의 책에서부터 시작했으며, 이미 4종류의 책이 나와 있다. 최초의 책은 설계요구사항의 분석을 물론, 처음으로 북경을 다녀온 스텝들의 인상이나 문화를 전달하는 이미지를 섞어 기초자료로서 발간하였다. 책의 중심내용이 그대로 설계에 연결되는 것도 있고, 원래의 의도에서 벗어나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설계 프로세스의 일부분에만 해당되는 책이 있는 반면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 사용되는 책도 있으며, 도중에 사용하지 않게 되는 책도 있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는 모든 책이 독립적인 작품처럼 된다. 프라다 프로젝트처럼 계통적으로 책을 만들어 가는 사례도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실제로 30~40권의 책이 나와 있다. 그 중 하나는 전람회에 맞추어 출판되었으나, 초기의 리서치북과 함께 설계자들에게는 하나의 참고서로도 쓰였다. CCTV와 관련하여 만들어진 책도 이처럼 사용될지도 모르며, 앞으로 책이 더 나올 수도 있다.



중국 CCTV 빌딩



베르린의 네덜란드 대사관

보여주는 상대가 클라이언트이기도 하고 일반인이기도 한 OMA의 책들은 사람들에게 작품이나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툴로서 커다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실제로 프리젠테이션에 맞추어 상대방 사람 수 만큼을 준비하여 1권씩 나눠주는 경우도 자주 있다. 사람들은 지금도 책이라는 것에 강한 애착을 느끼고 있다. 특히 그림을 중심으로 한 책에서는 문학적인 분위기도 묻어나온다. 책을 「읽음」으로써 사람들은 스토리에 참가한다. 이로 인해 OMA의 스텝과 사람들 간의 대화가 시작될 수 있으며,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소개된 작품들로는 중국 CCTV 빌딩, 베르린의 네덜란드 대사관, 포르투의 콘서트홀, 프라다 에피 센터 등이다.

(번역/강상훈)

포르투의 콘서트홀 프라다 에피 센터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납부

7.1부터 7.25까지는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기간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와 관련된 사항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1.1~6.30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 개인사업자
제2기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7.1~12.31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 · 개인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 개인사업자 중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거나 신규사업자는 반드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부진자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선택적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편의를 위한 국세청 인터넷서비스

○ 전자신고 서비스

- 2003. 1월부터는 인터넷에 의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가 가능하므로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전자신고를 위한 접속요령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의 「홈택스서비스」를 클릭하고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서비스의 이용절차]

▶ 홈택스서비스의 접속에 필요한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는 한번은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용자번호(ID)와 비밀번호를 지정 받아야 합니다.

(세무서 방문시 준비물)

- 본인 신청시 : 신분증, 도장
- 대리인신청시 : 위임장, 임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 세무관서 납세서비스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인터넷국세서비스 신규/변경 이용신청서"를 작성 · 제출

▶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이미 발급받은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 발급 가능

○ 부가가치세 신고요령과 신고서식의 조회 서비스

- 「국세청 홈페이지」 - 「세무정보」 - 「신고서 작성요령」 - 「부가가치세」를 순서대로 클릭하시면 자세한 신고요령과 신고서 등 필요한 서식을 down 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예정고지세액의 조회 서비스(7. 10~7. 25 제공)

- 2003. 1기 예정고지세액을 조회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는 「국세청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궁금하세요」에서 예정고지세액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정상사업자(세금계산서 발행가능 사업자) 여부 조회 서비스

- 「국세청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궁금하세요」에서 「사업자 과세유형 · 휴폐업」을 클릭 후, 본인 및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기한내 신고 ·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신고불성실 가산세 :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는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미달한 납부세액)의 1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 무납부 · 과소납부세액 × 0.03% × 경과일수

⇒ 경과일수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간이과세자 제외) :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등 : 해당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 1%, 법인 2%

□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유의사항

○ 매입세금계산서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주요 증빙자료입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때는 아래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 실제 물건을 판매하는 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동일한지, 정상적으로 사업중인 일반과세자인지 확인

-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가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연월일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자와 일치여부 확인

○ 위의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거나 가산세를 물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자료제공 및 문의
국세청 납세홍보과(02-397-1564)
E-mail : ho25400@nts.go.kr